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STS) 를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 의 접근 방법은 효과적이다. 우리들이 성경내용 (이야기체)을 경험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본문들이 살아나고, 발견되는 보화들은 신선하고 힘이 있다. 많은 곳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오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반응은 항상 매우 긍정적이다. "

Babu Ganta – Comuunication Officer, Bible Society in the Gulf

---

"30 년 동안 온 세계가 나의 집이었다. 내 사역의 목표는 항상 '증가 (Multiplication)' 였다. 증가에 대한 만족은 예견치 않게 캐나다로 이민 온 79 세의 어느 중국인으로부터 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오직 그 이야기** (STS)" 를 40 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성경을 읽고 토론한 후에 잘 준비된 질문을 했지만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내게 새로운 책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 하도록 하는 권한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주는 일이 부족한 사역은 오직 복제 (duplication) 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오직 그 이야기**"는 대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내자이다. "

Jim Thurber - Seminary Lecturer / Missions Trainer, Global

"**오직 그 이야기** 훈련이 몇 년 전에 나를 찾아왔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 나는 35 년간 선교사로써 몇개의 대륙에서, 세계의 주된 비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섬겨왔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내 자신에게 알맞은 자연스런 방법에 따라 내 신앙을 나누려고 고심해 왔다.

"이 훈련은 문자 그대로 내 삶을 변화시켰고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을 하게했다. 지금은 자유롭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의 핵심까지 깊이 찔러 쪼개는 것을 본다. 나는 지금 정말 사역을 즐기고 있다.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역의 열매를 보고 있다!"

Bryan Thompson – church planter/missionary/storyteller/podcaster with Story4all, UK

"본 '귀납적 구두 성경 공부 (Oral Inductive Bible Study)' 는 모든 성경학교와 기독교 기관에서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 오직 그 이야기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능력 있는 도구가 되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Regina Manley – Oral Communications Specialist, Mission Aviation Fellowship, Global

---

"우리가 **오직 그 이야기**의 첫 훈련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 이야기**는 전도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이 자료는 제자들을 증가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려는 신선한 욕망을 재 점화 시켰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가슴속 주머니 (Heart Pockets) 에 저장해 둔다. 이 자료를 읽어서 오직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실습자 (Practitioner) 가 되도록 무장하기를 바란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Rev. Apollos Djibo – Director Fufulde Ministries Training Center, Niger

---

"**오직 그 이야기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로 그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강점은 이야기가 질문으로 자극을 받아 성령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 속에 있는 보화들을 보게 하시므로 그들에게 영적인 적용을 하도록 하는 점이다. 이 접근은 학생들에게 매우 고무적이어서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점을 알게 한다.

"구두 성경 학교들 (Oral Bible Schools) 의 혁명적인 생각은 지금 온 세계에 있는 갈급한 교회지도자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

Mike Holman – MAF Learning Technologies, Global

"나는 현재 공공기관의 기자로써 일하고 있다. 나는 카르나타카 (Karnataka) 에 있는 수 백명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하나님 이야기 프로젝트** (TGSP: 오직 그 이야기의 모체: 역자 주) 와 **오직 그 이야기** 팀의 일원이 된 특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내 가슴 속에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여 공인으로써 내가 가는 곳 마다 그분의 말씀 (이야기) 을 나누도록 나를 도왔다. "

M. Krishna, M.A. – Senior Journalist, Pal Voice Publisher, V J Pur, Karnataka, India

---

"나는 30 년이 넘게 타이사람들 가운데서 일 해오고 있다. 내가 **오직 그 이야기**를 발견했을 때 나는 이 접근이야 말로 대부분 불교인으로써 구두문화를 가진 이 나라에 참으로 좋은 반향을 일으키리라 생각했다.
"이 나라는 교회 개척 운동이 제일 시급한데, 이를 위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면서 문화에 맞게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태국 전역에서 **오직 그 이야기**를 가르친 후 구두로 배우기를 더 좋아하는 시골 지역의 사람들이나 또한 도시 중심에 있는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에게나 이 방법이 얼마나 적격인지 나는 보아왔다."

Larry Dinkins, ThM., PhD. – Bible Teacher, OMF Thailand

"우리는 60 명의 고아를 양육하고 있다. 이 어린이들은 각각 다른 문화와 다른 장소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을 통솔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 **오직 그 이야기** 방법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돕고 있고,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우 잘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Rev. Vijay Raj – Executive Director Happy Home, Karnataka, India

---

"아프리카인 선교사로써, 또한 우리나라의 교회 개척자며 성경학교 교사인 나는 기독교 사역자들 모두에게 본 자료를 추천한다. 이 자료는 세계 어디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성경을 구두로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체적인 도구이다. **오직 그 이야기** 를 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우리는 본 자료에 있는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배우고 토론한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변화되었다."

Rev. Jacob Ochieng Okoth - Showers of Blessings Church/Ministries, Founder, Kenya

---

"도로디 밀러 (Dorothy Miller, **오직 그 이야기** 및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의 창립자;역자주)와 **오직 그 이야기** 팀은 성경 이야기 운동 (Bible Storytelling Movement) 의 시험 도구들이다. 나는 지성인들과 구두로 배우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오직 그 이야기** 실습자 (STS Practitioner) 가 되도록 훈련 했고 **오직 그 이야기**를 이 두 영역의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양쪽 모두에게서 성경 이야기들이 살아나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다."

Charles Cibene - CEO, MegaVoice, Global

"**오직 그 이야기**를 알고서, 나는 에티오피아와 그 외 지역에서의 사역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오직 그 이야기의** 헌신은 에티오피아에서 성경말씀을 나누는데 있어 우리로 하여금 대화식 방법을 소개하도록 만들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자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은 이야기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Julie Kay Field – Paraclete Mission Group Associate, Global

" 나는 히말라야 부족들 사이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우리 부족들은 전통적인 일들은 구 전으로만 전하고있다. 문자로 된 문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이야기 방법이 최고이다. **오직 그 이야기**는 우리산악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모델 중 하나이다. "

Rev. Tinuyangba Imchen – Senior Pastor/ Bible Teacher, Arunachal Pradesh, India

---

"**오직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왔으며 이해하기가 쉬웠든 만큼이나 이야기 전체를 기억하여 그 이야기를 우리 가슴속의 포켓에 간직하기도 쉬웠다. **오직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우리 지역교회의 글을 모르는 노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주민들에게 그들이 전도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도록 우리들을 도왔다. **오직 그 이야기** 방법은 우리가 그 이전 보다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도록 도왔다."

Rev. Devasahayam -Senior Pastor/Church Planter, F L Church, Andra Pradesh, India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하고 또 거듭하며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점들을 관찰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확인하는 일들을 계속할 때 성경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 나는 충격을 받았다. – 매우 활발한 대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내용과 어긋나는 가장 경미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항상 사회자는 (이야기하는 사람) 그저 간단히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 속에서 발견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면 그룹은 곧장 말씀을 갖고 와서 쉽게 분별해 낸다."

Pastor Miles DeBenedictis – Cross Connection, USA

"성경학자로써 그리고 신학자로써 나는, **오직 그 이야기**는 성경주석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나라에서 24 년간 제자 삼는 사역을 해왔는데, 그 동안 나는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자를 삼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하게 되었다. **오직 그 이야기** 안내서에 실린 기술들은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내 동료 신학자들에게 본서의 모든 페이지 모두를 추천한다. "

Rev. Luvao - Jerusalem New Life Pentecostal Church International, D.R. Congo

---

"나는 인디아에서 **하나님 이야기 프로젝트** (The God's Story Project) 의 성장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간결함과 재생산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왔다. 만일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이 나라에서 이 세대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나는 모든 교회 개척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나라를 제자 삼기 위하여 성경 이야기들을 훈련하고 사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

Rev. Dr. Sam Abraham – Director Himachal Bible College, Berachan Ministries, India

---

오직 그 이야기

구두 형식의 귀납적 성경 공부

오직 그 이야기 안내서

토론을 통한 성경 탐사

경청 그리고 응답

도로시 에이 밀러 지음

정 양숙 옮김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만일 이 핸드북을 당신 나라 말이나 다른 나라말로 번역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당신과 의논할 것입니다. 당신이 최신판을 대하고 원하는 언어가 번역 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이메일 주소로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nfo@SimplyTheStory.org 감사합니다.

Simply The Story Handbook, Edition 6a
Copyright © 2006, 2012, 2014, by The God's Story Project
Published by The God's Story Project
PO Box 187, Hemet, California 92546
(951) 658-1619
info@SimplyTheStory.org | info@Gods–Story.org
www.SimplyTheStory.org | www.Gods–Story.org
수백가지의 언어로 말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 듣기

모든 권한 소유. 본 출판물의 어떠한 부분도, 전기장치나, 기계장치, 사진복사, 녹음,
혹은 그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재 생산을 하거나, 회복이나 전달이 가능한 기구에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단 프린트물에 간단한 인용을 하는 것은 출판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만일 이 자료를 다른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당신의 번역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매우 기뻐하며 모든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TGSP)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지를 확인하기 원한다.

도로시 에이 밀러 (Dorothy A. Miller)
전무 이사,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The God's Story Project)

본 서에서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들은 킹 제임스 역본을 사용했다.
본 안내서가 포함하고 있는 성경구절들에 대한 여러 참고 성경구절들을 당신이 직접
찾아보기를 바란다. 만일 여러가지 성경 번역본의 내용이 다르면, 이야기의
내용을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이야기 자체를 공부하고 당신이 어떻게 이야기 할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ISBN 978-0-9855206-0-1

목차

서문: 아프리카 8
서문: 미국 9
오직 그 이야기 한국어 서문 11
제 1 장: 구두전략의 필요성. 15
제 2 장: 질문들과 이야기들—성경에 있는 모형 20
제 3 장: 오직 그 이야기 - 한쪽의 개요 25
제 4 장: 오직 그 이야기 (STS)방법으로 이야기를 준비하는 방볍 26
기술 I: 이야기를 잘 선택하고, 잘 배우고 잘하는 기술 26
기술 II : 이야기 속에서 보화 찾는 방법 37
"영적인 관찰들" 이라고 불리는 보화를 발견하는 방법 37
"영적인 적용" (Spiritual Applications) 이라 불리는 보화들 찾는 방법 42
기술 III : 당신의 질문들을 디자인 하는 방법 47
이야기를 위하여 소개말을 준비하는 방법 50
제 5 장: 준비하고 실습하는 우리의 기술을 시도해 보기 53
준비 : 영적인 보화 찾기 53
실행 첫 단계: 이야기를 3 번 하기 55
실행 둘째 단계 : 영적인 관찰들에 대한 토론 62
실행 둘째 단계 : 영적인 적용들에 대한 토론 70
제 6 장: 토론을 인도할 때의 일반적인 유의 사항 75
제 7 장 : 정확한 적용 – 코끼리 찾기 85
제 8 장: 문맹자들과 구두 성경학교 (Oral Bible School) 91
제 9 장: 가시 뽑기 – 생각의 변화 97
제 10 장: STS 이야기 하는자들 (Storytellers)의 등급 111
제 11 장: 사용하는 곳—배우는 방법들과 오직 그 이야기 확산 115
부록 A: 코치 복습 양식 121
부록 B : 본보기 이야기를 통한 여행 125
부록 C: 사용자들이 끼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들 - 지도와 증가 (Mentoring and Multiplcation) 148
부록 D: 어떤 지도자의 발견 152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부터 영원까지 155
세계적인 연결 (World Contacts) 156

서문: 아프리카

몇 년 전 나는 걸프 (the Gulf) 에서 중요한 협의회가 있을 때 도로시 밀러 (Dorothy Miller) 를 만났다. 그곳에서 도로시는 나와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영광을 소개해 주었는데, 제한적인 장소들 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단한 이야기를 함께 하였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었는지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후, 나는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그 영향력의 놀라운 보고들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갈보리 사역들 (Calvary Ministries/ CAPRO) 을 하고 있는 지역에 이것을 소개했다. 갈보리 사역들 (CAPRO) 은 토착민들로 이루어진 선교단체로써 아프리카주의 30 개 국가들 중에서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미전도 그룹과 회교권 미전도 그룹을 합하여 모두 65 개의 미전도 그룹들 가운데서 교회개척을 위한 사역을 하고있다.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증거들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보호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요약이며, 그분의 나타나심은 인간이 이 보물을 찾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오직 그 이야기는 성경을 조직적으로 탐사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로써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문맹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귀납적으로 깊이 파도록 도움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문화는 이야기가 가치관을 심어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훈들을 전수해주는 유력한 통로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골, 즉 말로써 내려오는 전통을 즐기는 시골 경청자들에게 친숙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화를 너머, **오직 그 이야기**는 경청자들이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돕는데, 이는 개인적인 발견에 따르는 결심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갖도록한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가장 큰도움을 주는 것은 이야기하는 자들의 접근방법이며 경청자들에게 제기되는 질문의 시리즈이다. 이는 모든 문화권에 영적인 성경적 진리를 정확한 방법으로 나누는 일을 강화시킨다. 영적인 관찰들과 (Spiritual Observations) 영적인 적용들을 (Spiritual Applications) 탐사하는 두 가지 접근은 경청자들에게 질문을 이르킨다. 이 방법은 성경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 형식 속에 묻혀있는 성경적 진리들을 경청자들이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오직 그 이야기**는 이야기 하는 자들이 이야기 하는 동안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또한 **오직 그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준비할 때 그 이야기의 배경과 내용과 함축적인 뜻을 알아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

온 세계에서 **오직 그 이야기**훈련에서 유익을 얻은 자들의 흥미있는 체험담 이외에 본서는 성경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탐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많은 기술들을 질문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모든 족속들, 특히 언어로만 의견교환을 하는 지역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부흥을 갖고 오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오직 그 이야기**의 훈련을 받기를 전심을 다해 추천한다.

Amos Aderonmu – International Director, Calvary Ministries (CAPRO)

서문: 미국

우리는 도로시와 톰 밀러 (Dorothy and Tom Miller) 를 40 년 이상 알아온 절친한 친구이다. 이들의 처음 영화,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 후 **오직 그 이야기**의 출생과 급속한 성장을 목격해오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사역이 잃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방법들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제자가 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영감과 흥분을 불러 일으키면서, 마을과 나라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도록 격려 받아왔다. 이야기 형식은 모든 곳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관심을 갖게 한다.

오직 그 이야기의 귀납적인 성경공부 방법은 참여한 사람 자신들이 직접 통찰과 교훈을 성경에서 찾아내어서 일반적인 방법보다 더욱 풍성하고 깊은 경험들을 하게한다. **오직 그 이야기**의 최첨단 기술이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사실, 연령이나 국적이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교육 수준이나, 그 외 어떤 다른 배경 할 것 없이 복음의 참 메시지가 **오직 그 이야기** 방법을 통하여 넓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 **오직 그 이야기**가 완전히 특별하고 각별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역은 특별히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옆으로 밀쳐 놓았든 것들 —어떤 수단이나 기술이나 영향력같은 것이 없이 성경을 드려다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하거나, 특권이 있는 자나 없는 자이거나, 이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텃치하는 능력과 함께 이 사역은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고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Don and Sondra Tipton – Founders & Directors, Friend Ships Unlimited

하나님 께로부터 오는 깊은 진리들이
성경의 간단한 이야기들속에 저장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박함 (simplicity that is in Christ)" (고린도후서 11:3)" 에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감사하고 효과적인 사역에 대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The God's Story Project) 에 수 천명의 자원하는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 를 수백 개의 언어로 생산케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합하는 자들과, 번역자들, 대본 읽는 자들, 녹음하는 자들, 자금을 지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를 사용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자국에서 일 하는 분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척이나 열심히 섬기는 직원들과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는 간사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분들이 종종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런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핸드북 안에 있는 아이디어와 이야기들과 그 외 여러 가지들로 수고한 분들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야기** 성장의 핵심이 되는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인하여 우리는 하니님께 경외심을 기지면서 감사 드립니다.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막강한 군대, 지금은 수백만 명이 되는 군대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1994 년 화가 놈 맥게리 (Norm McGary) 는 연로하신 그의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그녀의 하나님과 구주로 믿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나 이다 (I Am)" 로 그림 에 묘사했습니다. 놈 (Norm) 은 2012 년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고 거기서 그의 어머님과 합류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는데, **오직 그 이야기**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우리는 놈 (Norm) 의 종 된 가슴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어머님이 구원 받는 것을 보고 싶어 창안했든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는 폭발적인 방법이 된 것을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톰과 도로시 밀러 (Tom and Dorothy Miller)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The God's Story Project)

오직 그 이야기 한국어 서문

메리 양숙 (정 양숙 의 미국 이름)과 그녀의 사역 팀들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오직 그 이야기 안내서 (Simply The Story* Handbook)** 한국어 역본이 완성되었다. 이 안내서는 나의 어머니 도로시 밀러 (Dorothy Miller) 에 의하여 집필되었다. 이 안내서의 한국어 서문을 쓸 수 있는 특권이, 2014 년 12 월에 어머니께서 이땅을 떠나 하늘로 가셔서 나 바울 밀러 (Paul Miller) 에게 주어졌다.

나는 **오직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들이나 다른 언어 프로그램 사역에 항상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11 명 자녀들의 아버지로써 나의 아내 리브가 (Rebecca) 와 나는 그들을 기르며 사역과 사업으로 매일을 꽉짜인 계획들로 보낸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 가족과 나는 메리 양숙 자매와 매우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지난 일년동안 우리는 서로 알게되었고 친구가 되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놀라운 도구인 오직 그 이야기 핸드북이 한국어로 완성된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해 하실지를 나는 안다.

지난 50 년간 수백만의 한국인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된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축복의 물결이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을 텃치해 왔다. 이제, 우리는 한국인 형제 자매들이 **오직 그 이야기** 사역을 통하여 계속 성장해 가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한국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 기술이 갈고 땎아지기를 기도한다. 목표는 명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여 광맥을 찾아서 우리들 각자가 개인적인 발견들을 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이 예수께로 보다 더 가까이 가도록 하자.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한국어 안내서가 수백만명의 삶을 터치하는데 사용될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한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사역으로 당신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께서 그의 양떼를 인도하시듯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다 메리 양숙!

바울 밀러 (Paul Miller)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The God's Story Project)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

한국어 역본 발간사

한국교회는 수년동안 그리스도인 숫자에 비하여 대 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되어왔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제자삼는 위대한 열정적인 교회들 중 하나임을 보여왔다.

이 **오직 그 이야기** 안내서 (Simply The Story Handbook) 전체가 한국어로 번역되는것을 보기 위하여 나와 **오직 그 이야기** 의 창시자인 도로시 밀러 (Dorothy Miller) 여사는 오래동안 기도해 왔다.

주님께서는 지난 약 20 년간을 내가 도로시 (Dorothy) 와 함께 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다. 도로시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경의 페이지에서 취하셔서 온 세계사람들의 가슴속에 넣어주시는 것을 지켜보는 기회와 또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구두로 배우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다른 연장을 이제 연장 벨트에 갖게된것을 알게되어 나는 흥분되지 않을 수 없다.

메리 양숙 안 (Mary Yangsook Ahn), 당신의 비젼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본 안내서가 완성되도록 열심히 일해준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한가지 더 첨부하도록 허락해 준다면, 오직 그 이야기와 한국인 그리스도의 몸 사이의 교제는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도구, 구두로 하는 귀납적인 성경공부(Oral Inductive Bible Study)라는 이연장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을 듣기 원한다.

앤드레아 (Andrea)
전무이사 (Executive Director)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와 오직 그 이야기 (The God's Story Project and *Simply The Story*)

역자 서문: 도로디 밀러(Dorothy Miller) 여사를 기리며

오직 그 이야기식 성경공부방법은 나의 지성속에 있는 신학 지식들을 나의 영성속으로 계속 운반해 주는 역활을 하고있다. 이 좋은 하늘 아버지의 선물을 나만 소유하는 것은 그분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주께서 깨우쳐 주셨다. 이 깨우침이 내가 본서의 번역을 책임지면서 내 이웃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봉사에로 초대해 주신 주님과 나를 처음 만나 한국을 위해 칠년동안 기도해 오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일을 부탁해준 도로시 밀러여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자원 봉사로 이루어진 본 한국어 안내서는 내 혼자가 아닌 우리들의 결실이다. 우리들이라 함은 시카고 지역에서 **오직 그 이야기** 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주님을 더욱 잘 알고 사랑하여 따르기를 힘쓰는 일에 기도와 희생으로 기초가 되신 여러분들이다.

이명수선교사님을 통하여 시카고지역에 이야기식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성경훈련원 원장으로 또 성경 파노라마등 말씀사역에 전인을 쏟고 계시는 한인서부교회 담임이신 조 현배 목사, 드림교회 담임이며 가정교회 시카고 지역 목자 사역을 담당하고계시는 김 회연 목사, 그리고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40 주년 설교집의 총 출판을 책임지시고 대업을 이루어내신 유정환 목사는 본 프로그램이 시카고에서 뿌리내리고 또 한국까지 소개되기를 위해 부인 유니스 사모와 또 동역하시는 최영숙 목사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밑거름이 되어주고 계시다. 시카고 선교교회 담임이시며 국제 기디온 협회 시카고 지부장으로 또 한국의 군선교 지원자로 그리고 교단의 대표등을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와 말씀사역에 헌신하시면서 **오직 그 이야기를** 사랑하시어 시카고 지역 본 프로그램 훈련을 위해 매주 교회장소를 제공하시며 만남의 장을 제공해 주시는 고 다니엘 목사와 부인이신 순희사모, 그리고 이야기 하는집 (Story Telling House) 에서 본인과 함께 오래동안 동역하며 힘이되어주시는 수잔 민 전도사와 민병선 집사, 그리고 박화연 자매 내외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거룩한 축복교회 담임 이신 김인철 목사 내외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오직 그 이야기의 일리노이주 주강사로 우리들을 위해 기도와 훈련으로 수고해 주시는 요나단 멜린 (Jonathan Melin) 목사,그리고 한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며 닫힌 나라들의 선교에 헌신하고계시는 헨리 (Henry R.) 선교사,그리고 한국어 자료들을 위해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하며 봉사하는 진 스미스 (Jean Smith)여사, 이 모든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인과 본서를 위해 기도해 주며 또 서문을 쓰주신 도로디 밀러 (Dorothy Miller) 의 아드님되시는 경건한 형제 바울 밀러 (Paul Miller), 그리고 도로디 밀러 여사와 함께 동역하면서 한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오다가 도로시 여사를 주님께 먼저 보내고 그분의 자리를 이어 계속 한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본 프로그림의 실행 위원장 안드레아 엠 (Andrea M) 에게 감사드린다.

또 한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다. 시카고 근교에 있는 아가페 침례교회 영어부 교사로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은 타주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전 영주 박사이다. 시카고의 목회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부의 워크샵에서 미완성된 본서를 참고하며 훈련 받을 때와 그리고 이들이 워커샵을 시카고에 영입할 때 그 긴 시간들을 조건없이 통역으로 봉사해준 전 박사의 헌신을 잊을 수 없다.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오직 그 이야기의 모체가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없이 기도와 재정적인 희생으로 지원하고계시는 도로디 밀러의 남편이신 톰 밀러 (Tom Miller) 에게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서의 저자이며 하나님 이야기 프로젝트 (The God Story Project) 의 창립자 이신 주의 여종, 도로시 여사를 하나님께 드린 그녀의 남편 톰의 경건함이 없었다면 **오직 그 이야기**라는 이 도구가 도로시 여사를 통하여 세상에 생겨날 수 있었을까? 도로디 여사의 장례식에서 톰이 한 말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는 보수적인 교단의 경건한 평신도 형제로써, 교회에서 잠잠해야할 사랑하는 부인이 교회의 지도자로써 능동적으로 전인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당황했다. 톰은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계속 점점 더욱 더 크게 세계적인 말씀사역에 사용하고계심을 경험하면서 더욱 혼돈 스러웠다. 그는 주님께 무릎꿇고 진지하게 여쭈었다 한다. "어떻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응답이 왔다, "그녀의 길에 방해만 하지마라." 톰은 나이가 자기보다 적은 74 세의 아내를 주님품으로 먼저 보내면서, "내가 한것이라곤 주님의 이명령을 들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순종했든것 한가지 뿐이다." 라고 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했든 참으로 귀한 주님의 한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었고 또 자손의 자손들에 이르기 까지 신령한 복 줄기가 넘쳐 나고있는것을 나는 지켜 보고있다.

주안에서 존경하는 말씀의 종 이 동원 목사님과, 침례교단에서 요엘서 2 장 8 절의 말씀이 전체로 이루어지도록 교단에 속한 하나님의 딸들에게 역사의 장을 열어주신 한국기독교 침례신학 대학교및 신대원의 전 총장이셨든 도한호 목사님께서 **오직 그 이야기** 프로그램을 위해 본서를 추천해 주셨다.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이 여종의 사역을 위해 말없이 뒤에서 기도와 격려와 희생으로 힘이되어주는 아가페 침례교회 담임이며 남편이 되는 안 영배 목사와 교우들 그리고 주님께서 낳게하시고 기루시고 영광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인 요한과 지혜, 요섭, 그리고 주경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들의 기도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들의 기도와 지원이 없었다면 나의 본 사역도 없었을 것이다.

본 안내서의 저자 도로디 밀러 여사는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나기 바로전, 본 역서의 일부를 읽으시고, 처음에 역자가 본 프로그램의 영어 이름, 심플리 드 스토리 (*Simply The Story*) 혹은 에스 티 에스 (STS)를 영어 이름 그대로 한국말로 사용한 것을 알고, 심플리 (Simply)를 오직 (Only)으로 한국말로 바꾸고 드 스토리 (The Story) 도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하여 사용해 주기를 부탁했다. 그 부탁으로 나는 그 분이 얼마나 한국에 대한 애정을 깊게 갖고 있는지 감지 할 수 있었다. 도로디는 자신이 영어로 계발한 프로그램이 순수한 한국말로 심겨지기를 깊이 소원하셨다. 그래서 심플리 드 스토리 혹은 에스 티 에스가 **오직 그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는 세계선교의 현장에서 지성이 높은 한국인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을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했다. 그분이 살아서 팔년간을 본서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오직 그 이야기**가 한국에 심겨지기를 기도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들어주고 계시며 또 세계속의 한국인을 향한 그녀의 비젼이 계속 확장되고 성장되어 갈 것을 확신한다.

본서에서 사용하는 영어 역본이 한국어 성경 역본들과 맞지 않을 때에 역자는 신약 성경은 1976 년 미국 죤 더반 (Jondervan) 출판사에서 출판한 The NIV Interlinear Greek-English New Testament 를, 구약은 1982 년 미국의 토마스 넬슨 (Thomas Nelson) 사에서 출판한 The Hol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과 1986 년 한국 요단 출판사에서 출판한 구약 원어 사전 을 참고하였다.

본인이 역자 서문을 쓰는 동안 미국 연방 대 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천지의 주재이신 주께서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가슴을 찢고 더욱 크고 깊게 그분을 만나야 한다.
오직 그 이야기가 내게 그렇게 하도록 큰 힘이 되고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것을 깊이 확신한다.

2015 년 6 월 하순에
시카고에서
역자, 정 양숙

제 1 장: 구두전략의 필요성.

서양의 세속적인 환경과 그리스도인들의 환경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로써, 나는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제시하여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해 왔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연대순으로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법이 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사람들이 질문에 의하여 인도 되면서도, 성경 내용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것이 그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영화,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부터 영원까지 (*God's Story: From Creation to Eternity)* 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문을 내게 열어주셨다. 그 영화는 성경을 연대순으로 이야기 식으로 접근하여 세계의 청중들에게 성경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 80 분 짜리 이야기식 개요의 영화가 수백 개의 언어로 나갈 때 그 영향력을 보았다. 이 영화는, 음향기기만의 사용이라 할지라도,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 이야기가 중심부에 있음을 절실히 깨닫도록 했다.

후에 우리는, 선교사역의 다른 지도자들과 연결되었는데, 그들은 사역에서 이야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안내는 성경을 이해 할 수 있는 인구를 넓혔는데, 세계인들 중에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특별한 지도자들에게서 얻은 통찰들이 우리로 하여금 토론 형식 (discussion-style) 의 교수 방법과 한가지의 이야기에 머무는 방법을 통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 통합이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 STS)가 되었다.

오직 그 이야기는 한 이야기에 머물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목표가 있는 토론 질문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발견한다. 우리는 지금 말씀이해와 개인적인 적용 이상을 보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본다!

물건을 팔며 짐 마차를 몰고 시내로 간 사람은
다음 번에는 되돌아오는 길을 안다.

이런 결과 뿐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능력과 담대함을 본다.

오직 그 이야기는 성경의 정보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으로 이야기들을, 전체의 이야기들을, 활용하라고 격려한다. 여기서 "이야기들" 이라 함은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구절들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이야기로 생각되지 않는 구절들도 포함한다.
본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말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그 이야기들을 토론에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다.
이 핸드북과 다른 자료들 외에 **오직 그 이야기**에서 제공하는 개인적인 코치도 이런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누가 이런 스타일로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미국에서 시행하는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 참여한 한 사람이 왜 자신이 거기에 참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목회에 발을 딛고 일년이 되면서,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챨스톤 남부 대학 (Chaleston Southern University) 에서 성경 전공으로 4 년제 학위를 받았고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최고 우등생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나는 가르치고 훈련시킬 준비가 되어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하신 곳에서 대지상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했다. 강단에서 부터 여러 가지들이 잘 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를 끄덕였고 문에서는, '목사님,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몇 달 동안 새로운 신자들만을 위하여 개발된 주일학교에 몇 명의 새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는 성장을 위해 더욱 배워야 했다. 우리는 교단 출판사에서 모범으로 쓰여진 <분기적으로 (Quarterly)> 라는 공과를 나누어 주면서 '집으로 이 교제를 가져가서 읽으십시오. 다음 주일에 오셔서 쓰여진 내용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매주를 이렇게 거듭하면서 학급에서 나는 '읽으신 것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슨 질문이 있으십니까? 흥미 있는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 라고 묻곤 하였다. 거의 항상 대답은 – 침묵이었다.

그들이 공과를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급기야 나는 실망감으로 학급에서 누군가 공과를 소리 내어 읽도록 요청했다. 매우 길고 이상한 기다림 후에 한 사람이 자원했다. 그는 몇 줄을 매우 천천히 읽으면서 많은 단어들을 잘 못 발음하면서 고투하였다. 그때야 나는 알았다! 이 사람들은 공과를 읽고 있지 않았는데—이들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간신히 읽을 수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좀더 이점을 알아봤을 때, 통계가 내가 경험한 것을 확신시켜주었다. 내 교회 주변에 살고 있었든 성인들의 약 삼분의 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젊은 목사로써 나는 어려운 질문에 봉착했다: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나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불행히도, 나는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 두 개의 복음적인 학교에서 사역을 위해서 7 년간 준비를 했으나, 나는 구두로 배우는 자들에 대하여 한번도 어떠한 것도 듣지를 못했다. 나는 학벌이 낮은 자들이 내 사역에 도전이 되리라고는 아예 생각마져 해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를 하라고 부르신, 말로써 배우는 자들을 위한 사역의 도구가 내게는 전무하다는것을 깨닳았다. 이것이 내가 여기에 훈련 받으러 온 이유이다."

이 목회자와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 온 다른 사람들은 공통된 세가지의 값진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고, 성경을 이해하여 교훈을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했다.

구두소통의 필요가 얼마나 큰가?

성경이야기들 하나 하나를 하나의 전체이야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말로써 배

우는 자들"을 어떻게 정의하여 자리매김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들이 정보를 어떻게 소화 하느냐를 인식할 때 더욱 커진다.

배울 기회가 없어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이 말로써 배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인 제시에 의하여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아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것을 조사하려는 노력의 결과는 우리를 도전한다. 예로써, 어떤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민들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을 부풀리거나 혹은 평가기준을 아주 낮게 발표한다. 예를 들면, "당신의 이름을 서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으로 분류된다.

많은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예를 들어, 국민 (미국 성인) 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관(the 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43%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문단의 전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미국에 사는 44%의 사람들은 귀로 듣고 토론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 놀라운 통계는 다른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통계가 뜻하는 것은 선진국의 87%가 글을 사용하여 배울 수 없거나 말로써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계발 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발전된 나라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문맹자 비율이나 말로써 배우기를 더 좋아하는 비율은 더욱 높다.
말로써 배우는 자들은 노트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은 이야기 속에 정보를 엮어서 기억하는 것이다. 말로써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없이 개념이나, 교훈이나 주제나 혹은 개요의 형태 속에 정보를 담아 제시한다면 그들은 그 정보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디자인 하신 방법 속에 이야기를 강조하신 점을 유의해보라.

10 % 설명
15% 시 그리고
75% 나레이 티브 (이야기) 이다.

혹시,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을 나누려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하여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끼어들곤 하던 경험이 있는가?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계속 되는 방해로 인하여 그 영향력은 손실되어 버린다. 성경의 이야기들도 전체로, 이야기가 기록 된 데로 제시될 때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75%를 이야기라는 형식에 담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 전체 이야기를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지않겠는가?

현재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의 함정들

당신이 친구에게 선물을 포장하여 보냈는데 그것이 후에 열려 지지도 않고 당신에게로 돌아왔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의 친구가 그 선물내용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상상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선물을 받으려 하는 자가 그 선물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를 몰랐다 고 생각해 볼 수는 없겠는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주제적 (topical), 개념적 (conceptual) 혹은 분석적 (analytical) 이라는 상자에 싸서 주면, 주로 말로써 배우는 자들은 그것을 오직 열 수가 없을 뿐이다.

지금은, 성경의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야기" 를 잃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복음을 듣고 제자도가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두로 배우는 자들이다. 대화자로써 우리가 이야기를 떠나 정보를 재 구성하고 재 조직할 때, 구두로 배우는 자들은 그 정보를 기억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제시한 진리들을 이해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 를 사용해야 할 이유

주제별로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연구방식을 말로써 사용하는 이야기 식의 **오직 그 이야기** 방식의 큰 차이점은, 이 기본적인 질문 즉; 누가 혹은 무엇이 가르치려고 하느냐?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성경과 성령의 성경적인 역할을 살펴보자.

주제적인 가르침 (topical teaching) 은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미리 결정한다. 본문 말씀이 교사에 의하여 선택되고 듣는 자들에게 교사의 관점이 설명되고 입증된다. 이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가르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주제적인 가르침 (topical teaching) 은 이야기를 깨뜨려서 정보를 기억하기 더욱 어렵게 만 든다. 성경이야기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에게 말한다. 교사가 이야기를 깨뜨려서 어떤 범주 속에 넣어 정보를 제공하면 할 수록 그 정보는 더욱 더 우리의 지성 쪽으로만 기울어져 가고 우리의 혼과 영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교사가 주제별 가르침을 할 때는 선별된 요점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전체를 통하여 구절들을 선택한다. 청중들은 듣고 노트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정보를 따라갈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노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보를 함께 보관 할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 그 가르침은 뼈가 없는 인간의 몸과 같다!

청중 속에 있는 구두로 배우는 자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기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전달 할 수 없다. 따라갈 이야기 없이는 정보를 함께 연결 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학식 있는 학습자들은 어떤가? 그들이 필기한 노트의 도움 없이는 그들 대부분 역시, 들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무장이 잘 되어 있지 못 할 것이다. 솔직히 말 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생활현장에 나갈 때 메시지를 적은 노트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어찌 하였든, 학식이 있는 자나, 문맹자나 할 것 없이 양쪽 모두, 학식있는 형태의 설교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어떤 훌륭한 간증이나 이야기는 쉽게 전달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들이 들은 주제 속에 있는 정보들을 자신 스스로 발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교사에게 의지하는 의뢰심이 계속된다. 맛있는 정보의 조각들이 청중에게 전해지는 것이 마치 어미 새가 음식을 모아다가 기다리는 새끼 새의 벌려진 입에 떨어뜨려 주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매주마다 이 청중들은 다음 식사를 기다린다. 너무 많은 제목 중심의 가르침은 새 둥지에 있는 오십세의 새들을 만들어 낸다!

제목 중심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또 하나의 함정은 이것이다. 교사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의 주제는 청중들이 들어야 한다고 교사가 생각하는 주제들이다. 그래서 교사는

이미 그가 알고 있는 주제에 알맞는 성경구절을 증명할 다른 성경구절들을, 온 성경을 통하여 선택한다. 주제 중심의 가르침은 교사들로 하여금 정보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익숙지 못한 구절들을 탐구하려고 하는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혹은 주제별 가르침을 들은 경험들이 있다. 주제들은 아마 전도, 미 전도 종족들의 전도, 가정, 재정, 절제, 기도, 하나님의 속성, 치유, 사업이나 혹은 예언사역의 정직성들일 것이다. 모두가 중요한 주제들이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야기와 토론을 통하여 이 모든 주제들이 다루어지는 것을 본다.

구두로 하는 이야기의 귀납적인 형태에서는, 교사는 이야기 전체를 사용하고 이야기의 내용이 통찰들과 가르칠 교훈들을 결정한다.

교사들이 성경 구절이나 이야기에서 어느 주제를 가르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면, 발췌된 성경 내용 속의 나머지 정보들은 지나쳐 버리기 쉽다. 그러나 이야기가 질문과 토론에 의하여 충분히 탐사되면, 많은 주제들이 발견되고 토론 될 것이다. 성령께서 결정하실 때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가져다 주신다.

일반적으로, 주제에 관한 교훈을 입증할 성경구절들로 구성된 주제별 가르침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정보가 청중들에게 하나의 규칙이나 율법으로 전달되기 쉽다. 이야기들이 사용될 때는, 이야기나 혹은 구절들 속에 포함된 많은 진리들이 경청자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된다.

때때로, 교사들은 **오직 그 이야기**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삶을 터치한 **오직 그 이야기**식 의 이야기--- 가르침의 기본 재료--가 빠져있다. 실수는 이것이다; 교사가 이야기하지만, 그이야기가 언급조차 하지 않고있는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가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야기는 교사에게 맞도록 만들어 진다.---교사가 이야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오직 그 이야기**에서**는**, 어떠한 통찰들을 가르치든 간에, 그것들은 이야기에서 보여져야 한다.

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사용할 때, 그 이야기를 이미 그가 알고 있거나 믿고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근간으로 사용한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새로운 정보를 받는 축복을 잃는다. 이야기나 문단 속에서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교사에게 흥미진진한 일이다. 이야기하는 교사가 새롭게 발견한 보화를 학생들도 같은 발견의 흥미로움을 경험하도록 그 보화를 질문의 형식 속에 넣어 어떻게 부드럽게 학생들에게 제시하는가는 교사에게 도전이 된다.

근본적인 결심: 성경의 진리가 선진국에서만 그 뜻이 명백하게 소통될 뿐 아니라,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 (UPGs) 과 10/40 윈도우 (window) 에 있는 잃어진 자들에게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 갈망하는가? (10/40 윈도우란, 적도에서 남쪽으로, 위도 10 도로 부터 북쪽으로 위도 40 도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북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 권을 말한다. 이곳에 세계인구의 약 삼분의 이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역자 주)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급히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응답하겠는가?
구두로 배우는 자들을 제자 삼기(*Making Disciples of Oral Learners)* 라는 책을 보라. www.oralbible.com 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오디오도 가능하다.)

제 2 장: 질문들과 이야기들—성경에 있는 모형

예수님의 모형: 이야기하기, 그리고 질문하기

예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께서는 약 이백 번의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중 직접적인 답변을 하신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거의 질문을 하시거나, 이야기를 하시거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응답하셨다. 예수께서는 이야기만 하시고 지나가셨는가? ...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고 토론으로 초대하셨다.

예수께서는 "토라 학교 (Torah school, 오늘 날의 신학교; 역자 주)" 를 졸업하지 않으셔서 이야기를 사용하셨는가, 혹은 목수였기 때문에?.....아니!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별로 학식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11% 정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이야기형태로 말씀하시도록 강요 되셨을까? 아마....그러나 잠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떠하셨는가?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사용하셨는가? ....그렇다.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메시지를 이해했다—그리고 그 중 몇 사람들은 믿기까지 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당시 있었든 가장 인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충격을 줄만한 강의들을 해 주실 수 없었을까?....그는 그런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평범한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단어들을 선택하셨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시려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 오직 그 이야기에 참석하는 자들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보 (보화들) 들을 어떻게 찾아내며, 그런 후 듣는 자들을 그 보물들에게로 인도할 토론형식에서 사용될 질문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운다.

이 핸드북에서나 혹은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서 제시하는 안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효과적인 실습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실습자들을 통하여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축복하시길 기원한다.
좀 더 첨부된 정보를 갖고, 연습과 감독을 통하여 실습자들은 예비 강사가 된다. 이 예비강사들은 조만간, 자격을 갖춘 오직 그 이야기강사들이 된다. 본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알려준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수가 증대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 보고 싶어한다.

성경적인 보화 (Treasures) 들은 무엇인가? 길

어떤 한 사람이 자기고향을 떠나 도시로 일을 찾아 떠났다. 이 사람은 도시에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마침내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친한 친구로써 그를 맞았다.

이 새로운 부자는 그의 참된 친구들에게 선물들을 주기 위해 그의 돈 얼마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마을을 하루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서 "나는 네 친구"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건너 쪽 언덕 가까이로 그를 만나러 오라고 말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광고를 했다. "나는 강으로 가는 길에 일을 했다. 만일에 당신들이 길을 따라가면 얼마간의 보화들을 찾을 것이다. 이제 가라. 가서 당신들을 위한 보화들을 찾으라."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고서 곧 " 음, 이 길은 참으로 흥미 있는 길이군. 이 속을 한번 조사해 보자"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가든 길을 멈추고 길에 있는 모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래 얼마 만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들은 강을 향해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길 끝에 왔을 때 그들은 " 우리는 이 길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는 아무런 보화들도 찾지 못했다." 라고 불평을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낯익은 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들은 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이 쓰러져 오래된 나무를 봐. 우리가 길을 쉽게 걸어 갈 수 있도록 옆으로 치워 놓았네." 라고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길이 안전하도록 가시가 돋쳐 있던 덤불이 잘려 뒤로 젖혀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물들을 찾기 위해 길을 달려 가는 대신, 이 사람들은 더욱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자친구가 자기들을 위하여 힘써 일한 결과들을 즐기기 원했다. 그들은 그 길 자체가 친구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식했다.

갑자기, 이들 중 한 사람이 길을 멈추고 모두를 불러서, "길가 여기, 이 덤불 밑을 좀 봐. 쌀이 여러 부대 있네! "라고 말하며 이들을 보게 했다.

그러자 걷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여기 길옆 덤불 밑을 좀 봐! 여기 많은 새로운 요리 기구들이 있어! " 라고 말했다.

천천히 걷는 자들은 길바로 곁에서 숨겨진 보물들을 거듭 발견해 갔다. 그들은 이 선물들이 부자친구가 그들을 위해 그곳에 마련해 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부자는 그의 참된 친구들은 그를 믿고 그가 만든 길을 감사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들이 이들을 위해 놓아둔 선물들을 찾는 자들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자에 의하여 사랑스럽게 준비된 길을 달려간 사람들은 모든 선물들을 놓쳐버렸다. 그들은 길이나 혹은 길을 만든 자에게 감사할 정도로 충분히 천천히 가지 못했다. (길가의 모래를 분석하기로 결심한 자들은---지금도 계속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길을 여행하지 않고 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길들이다. 성경 이야기의 길을 천천히 걷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께로부터 온 진리의 선물들, 즉 숨겨진 보화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천천히 걷는 일을 오직 그 이야기에서 하고 있다.

나단 (Nathan) 의 예를 따르기

사무엘 하 12:1-14 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위하여 하나의 특별한 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성실한 사람, 다윗 왕은 후에 간음을 행하고 그의 군대 지휘관에게 그 여자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명령하는 큰 죄를 범한다!

그런 후 다윗은 그의 죄를 숨기려 한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담긴 한 이야기를 한다: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하였다. 그 큰 부자는 많은 가축과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다.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진 살찐 양을 훔쳐서 죽인 후 그의 손님에게 이것으로 식사대접을 하였다!

다윗은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나단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개혁한글성경: 역자 주) 라고 말한다.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기 전,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써, 간음과 배신과 살인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았을까?...그렇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았는가?...그렇다고 나도 생각한다. 다윗은 죄를 인정했는가... 그는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대답에 나는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간음과 살인을 대결하여 어떻게 설교할 것을 기대하는가? 나단은 어떤 설교방식을 선택하였는가?...오!그렇다. 다윗을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대신 나단은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은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그렇다. 다윗은 부자가 범죄자라고 옳게 판단했고 부자는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가?...그리고 무엇에 대한 어떠한 대가?...그렇다. 다윗은 부자가 훔친 한 마리 양의 대가로 부자는 4 마리를 갚아야 하고 그 부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윗은 이야기를 느꼈다---부자의 죄를 보았다---그리고서 올바른 영적인 관찰을 했다. 다윗이 말로 무엇이 옳은지 말한 후에, 나단은 다윗을 이야기 속으로 데리고 와서, "당신 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 "이라고 말하여 다윗이 영적인 적용을 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말했다.

그러자 마지막에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드렸다.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고 말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후에 (다윗이 나단에게 부자에게 임해야 한다고 말한) 죽음의 심판이 다윗 자신의 집에 임한 것을 본다.
다윗에 관한 이 성경 이야기는 **오직 그 이야기**에서 중심되는 부분의 예화가 된다. 사람들이 성경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그 이야기를 느낀다면, 그 이야기를 통찰력 있게 토론 할 것이다. 이야기 속을 들여다 보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영적인 정보를 발견하고 말로써 그 정보에 전념한다. 우리는 그 발견들을 "영적인 관찰 (Spiritual Observation)" 이라고 부른다.

경청자들이 토론시간에 말을 크게 하고, 이야기 속의 인물들에 대하여 본 것을 나눈 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이야기 속으로 초대한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비슷한 도전과 기회를 만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 관찰한 것과 오늘날 그 관찰한 것을 그들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질문으로 격려한다.

오직 그 이야기에서, 이 개인적인 진리들을 "영적인 적용"이라 부른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인 관찰에 대한 토론을 할 동안, 성령께서는 종종 듣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것들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혹은 누가 이 일을 하는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 온지가 몇 년이 되었거나, 혹은 성경교육을 공식적으로나 비 공식적으로나 얼마 만큼 받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가 지 뿐이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적인 것이다. 성경은 인류에게 보내는 하나님 의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담긴 영적인 진리들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에서 배운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 (Church-goers) 은 청중들에게 성경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는 그들의 목사님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학구적인 얼마간의 학생들은 그저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학교에 다닌다. 목회자들은 배우기 위하여 성경 학교들과 신학교에 다닌다. 그리고 지속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주석들을 보고 새로운 정보들을 찾기 위해 여러 모임들에 참석한다. 신학생들과 또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저자들을 연구한다. 이 모든 자원들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자원들을 넘어 더 위에 있는 최고의 자원은 종종 지나치게 된다! 이 자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자원은 무엇일까? 아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로부터 개인적인 수업을 3 년 이상 이수한 후에,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깜짝 놀랄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려 하신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4 장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 근심하거나 두려워 말아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미루어볼 때,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음을 알 수 있는가?...그 렇다. 그들은 두려웠다. 그들의 위대한 개인적인 교사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신다. 누가 그들을 위로할 것인가? 누가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일부로써,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만 홀로 있지 않을 것 이라고 확신시키신다 요한복음 14 장과 16 장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상주할 한 교사를 약속하셨는데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사, 성령께서는 각 제자와 함께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항상 함께 있을 것이었다! 그 진리의 영이 모든 진리로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최상의 자원은 그분의 성령---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그의 선물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는지 설명하신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 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 (고전 2:9-16)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이 교사로 계시는 클래스가 비어 있었다. 그분의 클래스에 참석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질문들을 하자. 우리가 각 이야기들, 각 구절들을 공부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답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본 핸드북의 첫 부분에서는 말로써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을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야기와 질문을 사용하는 성경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음 부분에서는 몇 가지의 이야기와 질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정보의 실체를 기대하시기 바란다! 당신은 이미 이야기와 말로하는 방식 (stories and oral method) 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당신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에다가 첨가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오직 그 이야기**만의 특별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다른 교사들과 말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다른 분들에게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받아왔다.

배우는 방법과 나누는 방법, 혹은 영향력을 끼친 보고들에 대하여서도 놀랄 것이다. 어떤 것들은 당신에게 전혀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놀라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능력이나 타인들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 당신이 생각해 왔거나 가르침을 받은 것과는 다를지 모른다. **오직 그 이야기**는 말로써 사역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해 보라.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아이 처럼. 마태복음 18 장에서 예수께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신 흥미진진한 진리들 중 하나는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 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다.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어린이처럼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독특한 면, 어린이들의 겸손함에 관한 어떤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심이 틀림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어린이가 새로운 정보를 마음문을 열고 받아드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모두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격려를 받으면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매우 열심히 듣고 흉내 낸다는 것을 주목해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릴 때는 모두가 경이감에 가득 차도록 디자인 하신 듯 하다. 어린이 때부터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어린이로써의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새것이다. 우리는 정보를 빨리 흡수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반대할 많은 지식이나 혹은 이미 수립 되어있는 지식의 모형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후 어른이 되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쌓여진 정보들과 이제 들어온 정보들이 결합된데 기초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

오직 그 이야기의 구두 성경공부의 유용한 많은 요소들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10 세로 돌아가서 이 낯선 정보들을 그냥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감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방법들, 익숙지 않은 방법들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든 것을 자유롭게 시도해 본 후에, 당신은 당신의 기술이 넓혀졌음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제 3 장: 오직 그 이야기 - 한쪽의 개요

준비 (PREPARATION)

오직 그 이야기의 기술은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배우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보화 들을 (spiritual treasures)" 쉽게 발견하도록 한다. 또한 이야기에 관한 토론을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구두형식의 질문들을 구성하도록 한다.

제시 (PRESENTATION).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이야기 하고, 그런 후 보화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첫 단계.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이 내용에 익숙하도록 3 번에 걸쳐 제시된다.
필요한 기술은 세가지: 이야기를 잘 하는 능력, 자원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능력,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을 재미있게 복습시키는 능력이다.

1. 말하기 (Tell): 이야기 하는 자는 이야기를 말로 한다. (첫 번째 이야기 할 때는 듣는 자들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우면서 또 그 영향을 느끼도록 돕는다.)

2. 자원자 (Volunteer): 이야기 하는 자가 경청자들 가운데서 들은 이야기를 되풀이 할 자원자가 있는지 물어보거나, 혹은 둘이서 짝을 지어 서로 돌아가면서 다시 그 이야기를 되풀이 하도록 한다. (경청자들은 그들의 동료들이 "바르게" 그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지 주의를 기우려 듣는다. 이 과정은 듣는 자들의 기억 속에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돕는다.)

3. **전체적 인도 (Lead Through)**: 이야기하는 자는 그룹 전체를 3 번 째로, 전체 이야기를 통과하도록 인도한다. 이 마지막 3 번째로 거듭하는 이야기는 인도자가 그룹 개개인이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여러 가지 암기방법이 사용되어, 경청자들의 도움으로 완전하고 정확한 이야기가 거듭 말하여지도록 한다.

둘째 단계. 이야기하는 자는 경청자들을 영적인 보화들로 인도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자가 더 이상 경청자들에게 이야기를 거듭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야기의 각 부분에서 보화들을 찾기 전에, 이야기하는 자는 이야기 속의 각부분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그 각 부분을 다시 이야기한다.

1. 영적인 관찰. 첫째, 이야기하는 자는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여 경청자들이 영적인 정보를 찾아내도록 격려한다. (경청자들은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활동들을 주의해서 보도록 초청된다. 그런 후, 경청자들은 이야기 속의 사람들에 대하여 배운 것들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누면서 질문들에 답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영적인 관찰 (Spiritual Observation)" 이라 부른다.

2. **영적인 적용.** 두 번째로, 발견된 영적인 관찰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추구한다. (이야기하는 자는 경청자들이 적용부분을 발견하고 나누도록 질문들을 사용하여 이들을 인도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영적인 적용 (Spiritual Application)" 이라 부른다.

제 4 장: 오직 그 이야기 (STS) 방법으로 이야기를 준비하는 방법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I. 이야기를 잘 선택하고 잘 배우고 잘 이야기하는 방법
II. 이야기 속에서 보화들 찾는 방법
III.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구상하고 질문하는 방법

기술 I: 이야기를 잘 선택하고, 잘 배우고 잘하는 기술

오직 그 이야기 과정을 통과할 때 무엇보다 최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으로써 전체가 가장 잘 이야기 되어졌다고 믿으라. 당신이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정보도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리고 이야기를 할 동안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 내용을 설명하지 말라.

성경 이야기들의 선택

당신이 어떤 이야기나 어떤 성경본문을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경우가 있을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여기 몇 가지 가이드 라인이 있다.

1. 특별한 그룹에게 성경이야기를 한번 (혹은 오직 몇 번만) 할 경우 경청자의 나이를 고려하고 주어진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길이의 이야기를 선택한다. 경청자들이 들어야 할 진리들을 품고 있는 이야기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라.

2.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그분이 선택하실 수 있었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으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인류에게 필요한 완전한 것들만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다. 이처럼 또한, 그의 전지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아셨고 인류가 발전시킬 모든 신앙의 형태들도 아셨다.

성경은 초 문화적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모든 문화를 초월한다. 우리는 성경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이점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야기 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어떤 그룹에게 "틀린" 이야기를 선택했을 까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기 바란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야기를 이야기 할 때, 성령께서는 그분의 메시지를 그곳에 있는 각자 각자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 **오직 그 이야기**에서는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 일정한 이야기들을 미리 정하여 놓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제자 삼는 사역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있어 모든 이야기들을 사용하신다는 증거를 **오직 그 이야기** 사용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받는다.

4. 만일 같은 청중에게 이야기 할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경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이야기는 앞에 있는 정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경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선택하여 이야기 할 것을 권한다.

5. 성경 이야기를 하거나 녹음할 경우, 만일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어떤 이야기들은 뛰어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뛰어 넘을 경우,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명백히 이해 시키기 위하여 그 이야기와 연결된 이전 이야기를 소개하기 원 할 것이다. 이야기를 뛰어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경청자들을 준비 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말한 그 전이야기를 상기 시킨다면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지원자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경우 "우리가 토론 했든 지난 이야기를 다 함께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라.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요청 받기 때문에 지원자가 어떤 부분들을 잊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6. 이야기가 길다면, 약 15 구절 이상일 경우, 그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길 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청자들이 두 부분을 잘 배우고 좋은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라. 나눠지는 부분이 정확하게 중앙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5:1-27 에 있는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이야기 하기에 매우 훌륭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만일 토론할 시간으로 3 시간을 할애만 할 수 있다면 !. 실제로,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는 4 가지의 뛰어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있다. 큰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져 있다: 1 절부터 5 절까지, 6 절부터 14 절까지, 15-19 절까지, 그리고 20-27 까지.

7. 어떤 이야기는 매우 긴 목록, 즉 시가지 이름이나 사람들의 이름 등을 갖고 있다. 만일 이야기가 한번에 모두를 나누기에는 길다면, 두 부분으로 나누라. 목록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 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 할 때 소개 부분에서, 여러분은 그 목록에 대하여, " 열 네 나라로부터 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목록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당신은 두 개의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 이야기 하는 자들과 배우는 자들이 초기에는 이야기를 둘로 나누는 것이 이야기를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 이야기하는 자들의 기술이 늘어나면, 그들은 언제든지 뒤로 돌아가서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고 이름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이야기를 어떻게 선택 할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 할 것인지를 배우는 몇가지 방법을 심사숙고해 보기로 하자.

1. **기도**.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 할 능력을 간구한다.

2. **이야기를 한번 큰 소리로 읽는다.** (혹은, 이야기 하는 것을 듣거나 읽는 것을 듣거나 한다). 당신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용어는 바꾸기를 원할지 모른다. 여러분의 특별한 경청자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선택하라. 예를 들면 "두려운 (fearful)", 이라고 말하는 대신 "무서운 (afraid)," 혹은 "겁먹은 (scared)"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화체로 말하기를 원 할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 내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극도로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당신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읽고 말 할 수 있는 행운을 갖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갖는다. 한 가지 언어로 소리 내어 읽고, 그 다음 당신이

이야기 할 때 사용할 언어로 거듭 읽어라.

예를 들면, 만일 당신이 힌디어 (인도 공용어 중 하나: 역자 주)를 읽을 수 있고 영어로 성경 이야기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힌디어 로 된 성경을 보고, 영어로 그 이야기를 크게 말하라. 그러면, 똑 같은 낱말들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당신은 내용을 기억 할 것이고 이야기를 이야기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화적인 단어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선택 할 것이다.

3. **성경도 덮고 눈도 감아라!**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다시 말해 보라. 당신이 기억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이야기를 기억해보라. 당신의 마음에 이야기가 자리 잡힌 것을 보기 시작하여라. 기억을 해 나가면서, 부분들을 더듬거나 잊어도, 염려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 그냥 계속하라. 만일에 나중에 생각나면 빠뜨린 정보를 나중에 더하여 넣으면 된다.
이것은 기억하는 것이지,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만일 본문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고 하는데, 그 순간 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하자, 당신은 그래도, " 예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후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면 "그들" 이라고 하는 대신 " 베드로, 야고보,그리고 요한..." 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당신은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다시 거듭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속에 그들이 나타날 때는 아마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4. **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라**. 다시 읽을 때 아마 당신은 어떤 정보를 더하였는지 혹은 빠뜨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양의 이야기를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려는 이야기가 길다면 (12 구절이나 15 구절 이상이 된다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배우기를 원할 것이다. 긴 이야기는 보통 자연스럽게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다. 당신은 아마 당신 마음속에 두 장면이나 혹은 그림들로 기억하기를 원할 것이다. 당신은 단어들을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따라 정확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5**. 다시 성경을 덮고 눈을 감고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이야기 한다.** 소리를 내어 읽으면 방해되는 소리들을 차단하고 이야기를 기억 속으로 눌러 넣는다. 이야기를 할 때 눈을 감으면, 이야기를 보게 된다. 그 이야기 속의 사람과 그 주위 환경을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라. 이번에, 이야기를 반복 할 때는 처음 이야기 할 때 보다 이야기의 더 많은 부분을 기억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성경을 펴고 소리 내어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더하였는지 혹은 빠뜨렸는지 보아라.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로, 이야기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

6. **시작과 끝맺음 말을 당신이 선택하라.** 당신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작하며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지 당신 자신의 이야기 길을 만들어가라.

7. **마음의 표시들.** 당신이 선택한 이야기가 기억하기 쉬운 것 일 수도 있다. 이 말은 그길이 시작에서 끝날 때 까지 똑바로 곧은 길임을 뜻한다. 어떤 이야기는 당신이 마음으로 길에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놓치기 쉬운 어려운 부분들이나 혹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어떤 이야기는

이야기하기를 거듭 반복하면서 몇 번씩 자신을 점검하면, 어떤 정보는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이름들이나 혹은 이야기의 어떤 뚜렷한 부분들을 여러 번 놓친다면, 그 부분에 마음으로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기억하기 힘든 단어들이나, 이름들이나, 혹은 세부사항이 있다면, 마음속에 바보스러운 그림을 그려라. ("암기 박사" 로 알려진 제리 루카스는 이 방법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만일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의 아버지 이름, 아밋대를 기억하기 힘들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기억하려고 하는 그 이름과 소리가 비슷한 당신 나라의 낱말이나 말을 생각해 보라. 영어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야구미트를 넥타이로 차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남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A-mitt-tie.

마음 속으로 그림을 우스꽝스럽게 그릴 수록 그 어려운 말들은 더욱 쉽게 기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언어로 말 하든지 당신의 생각 속에 이름이나 혹은 어떤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운율로 된 단어 (rhyming word) 나 혹은 바보스러운 형상을 찾도록 하라.

b. 이야기하기를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기억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이름들을 말하도록 격려한다.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고생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의 이름과 장소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 할 때 그 정보들을 포함시키기를 좋아한다.

8**.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점검한다.** 이야기를 잘 알 때 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반복 할 수 있을 때 까지 눈을 감고 전체 이야기를 소리내어 이야기 하기를 계속한다.

본 이야기에다 다른 사건들을 더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 성경 이야기와 비슷한 어떤 부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고 해도 말이다! 주님께서는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한번 이상 말씀하시기를 결정하셨다. 각 이야기는 약간씩 다르다. 만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기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일이다. 한 이야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에만 우리를 제한시키면 보다 깊이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한곳에 집중하면 그 특별한 설명 가운데서 특수한 진리들을 발견케 된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후에 따로 연구하면, 각 이야기 마다 서로 맞물려 잘 맞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 우리는 이미 효과를 본 구조 속으로 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통합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몇분의 자원 봉사자들이 내가 오직 그 이야기를 위해 저술하고 있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듣기로 합의했다**.** 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치 있는 교수 방법임을 보여주셨는데, 한 부분의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분들은 이야기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야기를 처음으로 배우는, 수줍음을 타는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다

아시아에서 온 한 숙녀는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 4 번 참석했지만 항상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공부했다. 한 신사분은 80 세가 넘으셨는데 (20 대처럼 공부하신다!), 이야기하는 시간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빠져나가셨다.

"만일 이 지침을 따른다면, 이 10 구절의 이야기를 10 분 안에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나는 설명했다. 나는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이야기를 배울 것을 상기시켰다. "이야기 전체를 한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읽을 때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이야기 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 이야기에서, '볼지어다 (behold)' 라는 말 대신에 '보라 (look)' 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야기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고 난 후, 곧 눈을 감고 이야기를 기억 할 수 있는 만큼 소리 내어 이야기 하십시오.

"당신들의 목표는 정확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지 정확한 단어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빠트린 부분들을 알게 될 것 입니다. 눈을 감고 다시 소리 내어 이야기를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4 번 하십시오."

이 협조적이고, 섬기는-마음을 가진 두 분은 지침들을 내게 복창했다.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말하듯이 읽은 후, 성경을 덮고 이야기를 말하라. " 두 분은 성실하게 반복했다. 그런 후 그들은—조용히 !—읽었다. 두분 모두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끼어들었다. " 어떻게 읽기로 했지요?"

"소리 내어." 두분 모두 대답했다.

"그런데," 나는 웃으며, "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요."

"글쎄요, 나는 내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신사분께서 말했다.

"그러나, 소리를 내어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협조적이신 분께서 어떻게 지침들을 따르시지 않았는지요?" 라고 나는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그는 당황하며, "아마 한번도 그렇게 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나는 숙녀에게로 향했다.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네"

"그러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소리 내어 읽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수줍게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다. 특별히 삭게오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삭게오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바보짓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또한 삭게오 이야기 속에 있는 진리 중 하나는 삭게오가 어떻게 전적으로 지침을 따랐는지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얼마 만큼의 코치 후에, "이렇게는 결코 해 본적이 없다." 그리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겁난다" 는 사슬을 끊을 수 있었다. 그들은 소리 내어 읽고, 눈을 감고 이야기를 기

억 할 수 있는 만큼 기억했다. 이렇게 모두 4 번을 한 후,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나는 요청했다.
놀랍게도, 소리 내어 읽기를 반복한 십분 후에, 두 분은 모두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이야기 했다!

나는 팔십이 넘은 노신사에게 농담을 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10 구절을 십분 안에 암기하십니까?" 그분은 그냥 웃기만 했다.

그 숙녀는, "전에는 한번도 이 성경 이야기를 배울 수 없었어요. 나는 원했고, 시도했지만,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라며 내뱉듯이 말했다.
"모든 지침을 따라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아니요, 조금전 까지는 아니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오직 그 이야기**의 지침 모두를 따르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때의 일을 나누기로 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직 그 이야기**를 배우고 소통하는 방법이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말로 하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기 위하여 다른 세계로 발을 떼어 놓도록 요청 받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앞에 나열되어 있는 **오직 그 이야기**의 모든 단계들을 시도해 보라. 위에서 말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은 꽤나 일상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 이야기**의 가이드 라인의 오직 한 부분만을 보여 줄 뿐, 이것 만으로는 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오직 그 이야기 <한 쪽의 개요>에 있는 것들을 시도한 후에는 주님께서 아마도 여러분의 연구와 **오직 그 이야기**의 실천을 풍성하게 할수 있는 많은 유용한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깊이를 더하고 이야기의 관심거리에 귀 기울이기

1. **이야기의 배경 (context/setting) 을 생각하기.**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인도한 성경 부분을 읽거나 혹은 귀를 기우리라. 당신의 선택한 그 이야기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종종 이해를 더하여 준다. 당신이 이야기를 모두 준비한 후에, 경청자들이 이야기를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이야기의 소개부분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후에, 소개부분을 어떻게 준비 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2. **대명사 피하기!!!!!** 만일 당신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특별한 장소이름 혹은 사물들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 "그 남자", "그 여자" 혹은 "그들" 이라고 하는 대신 이름을 직접 사용한다면 경청자들이 이야기를 보다 잘 따라 올 수 있을 것이다. (언어구조가 이것을 허용한다면.)

3. **이야기의 시간에 관하여 생각하기.** (**"**이야기 시간" 과 다음의 "이야기를 살기", 이 두 가지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잘하기 위한 핵심이다).

> a. 이야기가 생동감있게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시간 보다는, 이야기 전체를 모두 읽는 시간이 훨씬 빠를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천천히 읽는다. 길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길을 천천히 걷든 사람들이 보화들을 발견 하였다.

b. 이야기의 각 부분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라. 이야기에 주어진 정보들이 당신을 이야기 속으로 발을 딛도록 도울 수 있게 하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각 생각과 느낌들에 관하여 이야기가 무엇을 계시하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하라.

c.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비록 몇 천년 전에 일어났다고 해도,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 사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 비록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익숙하다고 해도 이점을 유의하라; 이야기 속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사건을 살아본 적이 없다.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 했을 것이 틀림없을 사건들을 당신이 다시 살아 볼 수 있도록, 당신은 마음속으로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보라.

4. **이야기 살기.** 이야기의 각 부분 부분 모두에서, 등장하는 각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보고 듣고, 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의하여 보라.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조심스럽게 "경청 (listen)" 한다면 그들에 관하여 영적인 것들을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조심스러운 관찰을 통하여, 이야기 하는 자는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인 표현과 행동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신뢰심을 보였지만, 모든 사건마다 각 사람들은 믿음과 신뢰를 선택해야 했다는 것을 명심하라.

5. **인용부분들에 감정을 넣어 말한다.**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한 말을 당신이 말할 때, 그 인물의 감정이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감정이 명백히 보일 때, 그 감정을 당신의 목소리에 담아 내어라. 그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실망인지, 혹은 어떤 다른 감정들이 있는지 찾아 보라. 등장 인물이 하는 말을 최선을 다해 그 감정에 맞게 드라마틱하게 말하라. 만일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감정을 넣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당신 생각의 정당성이 확실해야 한다. 등장 인물들의 말을 인용 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야기에 커다란 생명력을 주는 기회를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만일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이 확실치 않으면, 당신이 그 등장인물이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 만으로는 감정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결코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이야기에 첨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32)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 30: 5-6)

6. **이야기를 표현하기.** 이야기 하기를 연습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이야기 내용의 분위기와 느낌을 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a.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종종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그러나 그런 후에 전체 이야기를 모두 같은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한다! 감정적인 목소리로 너무 길게 흥분되어 말한다면, 청중들은 지치고 결국 흥미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생활에서, 계속되는 강렬한 흥분으로는 어떤 이야기든지 정확하게 재연할 수 없다.

b. 실제로, 흥분된 목소리로는 이야기의 어떤 부분에 있는 슬프거나, 두렵거나, 친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혹은 그 외 어떤 감정을 바르게 재연 할 수 없다.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라. 목소리의 음량을 높이거나, 혹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표현하라. 이야기의 어떤 부분은 보다 천천히 말하면서 강조하고, 빠른 행동을 표현하기 위하여는 빠른 속도로 말하라. 당신 목소리의 흥분된 수준을 이야기에 맞추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다양한 감정을 당신 목소리의 음색과 목소리의 표현으로 보여줄 수 있다.

c. 모든 언어에는 사람들이 말할 때, 참 언어가 아닌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들은 자연스럽게 말속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혀가 부딪치는 소리들은 감정을 나타낸다. 이 소리들은 모든 언어와 문화마다 특성이 있을 것이다.

숨을 밖으로 내쉬는 것은 피곤을 나타내거나, 혹은 실망의 표현일지 모른다. 빠르게 숨을 헐떡이거나, 숨을 안으로 몰아 쉬는 것은 놀라움이나 경악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웃거나 목소리를 죽이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모든 표현된 소리들은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이런 모든 소리들을 자라면서 주위에서 배운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다른 문화권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하는 기술을 발전 시켜라.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되면, 성경이야기를 할 때 사용할 목적을 갖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라.

d. 말과 말 사이를 잠깐 쉬거나 머뭇거리는 것도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재미있게 듣도록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이 " 예수께서 손을 내 미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말한다. 이 때 만일 이야기 하는 사람이 머뭇거림이 없이 말을 한다면, 큰 기회를 놓치고 만다. 예수께서 실제로 문둥병자를 만지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매우 큰 연민의 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야기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기 위해 몸을 낮추시고 허리를 구부리는 몸의 움직임 (이야기 하는 자에 의한) 사이 사이를 망설임으로 말을 천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하는 자가 천천히 속도를 느리게 늘리면서 놀라운 목소리를 더욱 늘리면서, " 예수께서---그의 손을 내 미시----고-----문둥병자에게 손을---대시며." 라고 할 때, 예수와 문둥병자의 이 아름다운 만남의 순간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진다.

e. 이야기 속에 있는 극적인 순간을 찾으라. 이야기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거나, 어떤 독특한 것이 있거나, 등장 인물에 의한 강한 말까지라도, 당신의 말 속에서 망설임이나 일시적인 쉼을 고려해 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경청자들이 극적인 사건을 열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할 수 있다.

f. 대부분의 이야기에는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서술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가장 좋은 부분들이다.

g. 그러나 가끔, 설명하는자의 서술 부분도 이야기에 흥미를 더해 줄 수 있다. 서술자의 말은 이야기의 놀라운 부분에 대하여 장소가 바뀌는 것이나 혹은 괸심을 모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은 깊은 관심을 갖는 느낌으로 말하여진다. 그것은 마치 서술자들이 경청자들과 어떤 비밀스럽고 흥미진진한 정보를 나누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큰소리로--속삭이는 형태로 말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오는 말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심지어 일상적인 용어, "그 동안", "동시에", 혹은 " 도착 후에 " 같은 용어들도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망설이고 음색을 사용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몸 동작을 사용할 수 있다.

7. **몸 동작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보여주라.** 이야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몸동작은 두려움, 탐욕, 공격성, 들뜬 기분, 놀람, 용기, 지혜, 우울,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여줄 수 있다. 감정은 아주 작은 몸짓으로도 설명되어진다. 당신이 서 있는 장소, 표정, 혹은 몸짓으로 이야기 속에서 거론하고 있는 인물이나 군중이 있는 장소, 혹은 어떤 장소들이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발전된 것이지만, 시도하면 재미있다. 이야기 속에서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당신이 말할 때, 그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곳에 당신의 위치를 옮겨라.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보고 있을 곳을 보고, 그 사람이 행동할 행동을 흉내 내라. 예를 들면, 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경이로운 표정이 될 것이고 새롭게 치료받은 몸을 천천히 움직일지 모른다. 혹은 그들은 흥분하고 기뻐서 뛸지도 모른다. 그 행동에 맞는 더듬 거리는 말은 이야기를 살려내고 극적인 효과를 준다.

경고 한마디. 당신이 이야기를 끝낸 후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은 위대한 스토리텔러 (storyteller) 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 당신의 극적인 표현력이 훌륭합니다." 라고 말한다면---당신의 발표를 다시 생각해 보라. 이야기 하는 당신, 스토리텔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주인공이다. 스토리텔러의 너무 많은 극적인 몸짓은 말하여진 말씀에서 초점을 옮겨 놓을 수 있다. 사람들은 듣기 보다 보기를 시작 할 수 있다. 당신이 하는 말을 그냥 좀더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의 몸짓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가 제게 말했습니다." 혹은 "제가 그 이야기의 그 사람입니다."

8. **이야기를 말하기 위하여 서야 할까 혹은 앉아야 할까?** 많은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야기 하는자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 서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더 자연스럽다. 이야기를 연습할 때는 서서 하기를 권한다. 그렇게 하면 몸 전체로 몸짓을 하고 위치를 옮기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보다 큰 그룹에서나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최선일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청자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그 이야기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물론, 앉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 최선 책일 때는, 반드시 앉는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사역이 대부분 앉아서 행하여 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연습한 몸짓의 얼마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9. **이야기 시작하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혹은 " 이것은 성경이야기 입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시작 할 때 성경을 들고 펴서 성경을 읽을 때처럼 잠깐 보도록 하라. 이 모습은 당신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려준다. 만일 소개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소개할 동안은 성경을 덮어둔다. 소개부분은 여러분의 말이지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는 이야기에 행동을 더하기 위하여 양쪽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원하면, 그렇게 하라. 그 때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책상이나,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평평한 곳에 성경을 편 채로 부드럽게 올려 놓는다. 성경을 따로 놓으면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여, 경청자들이 성경에서 발견된 이야기를 당신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펼쳐져 있는 성경에 손을 대고 들어 올릴 때에도 이야기를 계속 한다.

(만일 당신이 반 기독교 지역에서 이야기 한다면, 성경을 들거나, 경청자들에게 그것이 성경이야기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야기만 하고 다음단계로 계속되는 이야기의 내용과 토론에 의하여 영적으로 터치되도록 한다.)

10. **가끔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라!** 오직 그 이야기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 하도록 가르친다. 어떤 워크샵에서 재미 있는 한가지를 발견했다. 어떤 새로운 스토리텔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하여 나만 보고 이야기 했다. 나는 그분을 교정하기 전에 그분의 문화권에서는 어떤 집단에서 정보를 말할 때 그 그룹의 연장자 혹은 그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만 말하도록 되어있는지 물었다. 그는 " 그렇다."고 답했다.

오, 문화의 충돌이 없기를 ! 오직 그 이야기에서 바라는 바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고 격려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날 저녁 오직 그 이야기 토착민 지도자들과 이 문화적인 갈등에 대하여 오랫동안 충분히 토론하였다. 우리는 연장자들과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존중히 여기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간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이 문제를 극복했다.

우리는 스토리텔러가 연장자들에게 존경을 표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경청자들의 사회적인 계급이나 신분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러가 발표할 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또한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이야기 함으로써, 스토리텔러는 오늘날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를 보여준다.

이 세상 신은 모든 인류의 문화 속에 힘 있는 사람은 높이고 약자는 얕보는 경향이 있는 마음을 엮어 넣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명백히 있다. 예수께서 이 원리를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사시든 땅의 문화가, 신분이 낮은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이 행동 만으로 종종 비난을 받으셨다.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회가 제쳐놓은 사람들, 즉 여성들, 어린이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자들,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소수민족 집단들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참여시키는가를 보여준다.

문화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성경과 부딪칠 때, 신자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문화가 그의 행동과 믿음들을 이끌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과 믿음들을 보다 높은 곳으로 움직여 나가게 할 것인가---각 신앙인은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11. **이야기의 끝맺음**. 이야기를 모두 완결했을 때 경청자들에게, "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의 성경을 덮으라.

12. **당신이 선택한 이야기를 자주 말하라.**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에게, 그 이야기가 쉽게 흘러 나올 때 까지. 만일 사람을 찾을 수 없거든 가까이 있는 동물에게나 아니면 나무에게라도 말하라.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은 같은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용감하라—신뢰하라—기록하지 말라!

예수께서 산상 수훈을 하실 때, 그는 먼저 그 앞에 있는 강대상에 노트를 놓으신 것과 비슷한 일을 하셨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간증을 해 주길 요청하든지, 당신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혹은 당신의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경험들을 이야기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당신은 답하기 위하여 노트를 참고하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어떤 정보의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친구들에게 오늘은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기억에 의하여 이야기 한다. 우리는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 그것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되풀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옛날에 만일 당신이 연설가였거나, 교사였다면 확실히 당신은 연설이나 수업을 다시 기억하기 위하여 노트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당신이 강의를 하거나 당신을 위하여 새로운 자료들을 제목별로 내용을 싸서 두었다면, 당신은 노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야기와 함께라면 노트가 필요 없다.

오직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준비할 때, 이야기와 질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저장된다, 필기된 노트가 아닌! 읽기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른다. 우리가 언급한 데로, 읽기를 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다시 불러오기 위하여 기록물에 의존한다. 그러나 **오직 그 이야기** 과정에서는 노트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매우 평범치 않은 일을 하도록 요청한다. 가르칠 과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록하지 마라**! 그렇다. 우리는 진지하다---**기록된 노트 없기**.

만약 당신이 어떤 가정에서 만든 초콜릿 케이크를 맛보고 그것이 맛있다면,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초콜릿 대신 바닐라를 넣고 밀가루 대신 쌀을 넣는다면 말이 되겠는가? .....물론 안 된다. 그 케이크의 특성은 자료와 그에 따르는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오직 그 이야기**의 자료와 만드는 방법 (recipe) 을 따르도록 권한다. **오직 그 이야기**는 각 단계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말이다.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들 중에 하나를 참석해 보도록 권한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10 절의 성경 이야기를 10 분 안에 배우는 경험을 할 것이다. 또한 영적인 보화들을 발견하는 방법과 질문들을 준비하는 것을 배울 때 **오직 그 이야기** 강사들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트필기 없이 행하여 진다!

기술 II : 이야기 속에서 보화 찾는 방법

두 번째 필요한 기술은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성경 속의 보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각 이야기 속에다가 엮어 두신 영적 진리들을 "보화"라 부른다. 이 보화들은 영적인 관찰과 영적인 적용의 결합체이다.

영적인 관찰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들이다.

영적인 적용은 영적인 관찰에 기초한 것으로써 현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영적인 진리들이다.

찾는 자들이 발견토록 돕기.

사도행전 8 장은 빌립과 내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 중요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주님께서 내시에게 성경을 설명해주기 위해 빌립을 보내셨다. 성경을 듣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방금들은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성경에 전례가 있다.

"영적인 관찰들"이라고 불리는 보화를 발견하는 방법

당신은 역사의 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탐색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야기 속의 각 인물에게 마다 항상 계획을 갖고 계시다.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이 배우는 것 (혹은 배우지 않는 것)으로 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다 앞에서의 설명처럼,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방법의 일 부는 그 이야기의 안에서 살아보는 것이다 (live that story).

각 인물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그 이야기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일 하시는지도 역시 주목하라. 이 "이야기 속에서 살기 (living in the story)"는 이야기의 보화를 얼마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이 영적인 보화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죽 따라가라. 그러면서 시간을 내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각 개인 이나 그룹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 하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야기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과 일 하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는 이야기의 앞부분을 프린트로 된 성경이든지 혹은 음향으로 된 성경이든지, 어느것이든 당신이 갖고 있다면 그 앞부분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당신 이야기 바로 앞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고려하라. 그곳에 지금의 당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아는것이 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무엇이 있는 가를 찾아보라.

영적인 관찰들을 발견하는 짧은 개요:
현명한 상담자 (The Wise Counselor).

어떤 마을 사람들이 어떤 우물과 우물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쟁을 오랫동안 하다가, 한 현명한 상담자에게 조언을 받으러 갔다. 이 상담자는 많은 질문을 하기로 소문났는데, 그는 훌륭한 조언을 줄 수 있도록 문제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상담자는 처음에,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몇 마디로말입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논쟁에 대하여 짧게 이야기를 마치자, 이 상담자는, "내가 이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어떤 일이 이 문제가 있기 전에 있었습니까?" 라고 현명하게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무엇이 논쟁으로 이끌어 갔는지 말한 후에 그 상담자는, "이제, 저에게 이야기 전체를 이야기 하시되 천천히 이야기 하십시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 일 부를 말했을때, 상담자는 그들을 중지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논쟁의 이 시점에서 당신들 중 누가 무슨 말을 했거나 혹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신다면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답한 후에, 그 상담자는 또 묻기를 "이 시점에서, 여러분 중 누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선택을 하셨다면—다른 선택을 할 수 도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선택에 대하여 말을 들을 때 마다, 그 상담자는 다음과 같이 묻곤 하였다; " 그 선택으로 부터 어떤 결과를 보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

이 상담자는 이렇게 계속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이야기를 좀더 들려 주세요." 그러고는, 그들이 좀 더 이야기 하면, " 거기서 멈춰주세요," 그런 후 그는 그 시점에서 마을 사람들이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선택을 했는지, 혹은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긴 시간동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곤 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끝냈다. 그래서, 이 현명한 상담자는 마을 사람들의 대답을 매우 주의깊게 들었기때문에, 그는 이 논쟁을 참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었다.

오직 그 이야기 (STS) 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 이야기가 갖고있는 값진 정보들을 발견하기 원한다. 이 보화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이 현명한 상담자가 질문한 것과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역사에 지나지 않는 역사 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간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현명한 상담자가 처음 말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라"를 기억하는가? 대부분의 성경이야기와 문단들 속에도 역시 일종의 긴장과 문제가 포함되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상황 (situation)" 이라 부른다. 우리는 성경이야기를 천천히 죽 통과하여 질문을 하기전에, 우리는 먼저 이야기의 상황을 찾는다.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배*

가 고픈가 혹은 위험에 처해있는가? 그들은 두려운가, 혼돈스러운가, 혹은 의견들의 불일치가 있는가?

상황을 아는것은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닥아오게 한다.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상황을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야기속으로 들어간다.

마을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막고, 상담자는 마을사람들에게 그들이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어떤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같은 방법으로, 성경속에서 보화를 찾을 때 우리는 배경 (setting) 혹은 정황 (context) 을 찾는다.

그러나 이점을 유의하라. 비록 성경이야기의 역사적 정황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 너머로, 현명한 상담자가 했든 것 이상을 간다. 우리는 영적인 배경도 아울러 찾는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을지도 모르는 방법들을 찾는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오래동안 분투 노력해 왔는지, 혹은 하나님을 섬겨 왔었는지를 발견하려고 할것이다. 영적인 배경이나 정황을 찾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이야기의 영적인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현명한 상담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이야기 하면서, 각 부분에서 그들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질문했는지 기억하는가? **오직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동하고 있는것을 보면서, 각 부분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듣는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성경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각 사람의 행동과 말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도 포함하여 이야기의 각부분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등장 인물들이 "말하고 행동한것, 그들이 선택한 것 (혹은 선택 할 수도 있었든 것), 그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와 그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를 질문 한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이 나타 내는것을 우리는 "영적인 관찰 " 이라 부른다.

보화들을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획득할 때, 우리는 우리들 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실 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했든 것을 보게된다. 우리는 이들이 선택 했든 것이나---혹은 선택 할 수도 있었든 것---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많은 것을 배우게된다.

현명한 상담자가 질문한 것들을 넘어서, 성경 이야기들을 볼 때,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상황속에서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추구한다.

한때, 진짜 사람들이 성경이야기를 살았었다.

이야기 상황을 실제로 경험했던,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지금의 당신처럼, 이들도 느낌과 감정들을 가졌었다는 것을 주지하라.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본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혹은 무엇을 생각했

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경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 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는 있다. 그들이 "느꼈을지도 모르는" 느낌은 그들이 "느꼈어야 만" 하는 느낌일 필요는 없다.

이야기의 한 부분 부분을 통과하라. 이야기의 첫 부분을 보고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경청하면서 시작하라. 스스로 질문해 보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영적으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들은 용감해 보이는가 혹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혹은 슬퍼 보이는가 아니면 행복해 보이는가? 혹은 어떤 다른 감정들도 보는가?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는 원인을 나는 볼 수 있는가?*

각 부분마다 지나가면서 어떤 선택이 있는지도 찾아보라. 그 사람은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겠는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들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주지하라.

등장 인물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 있는 선택들을 보기 시작 할 때 당신은 진리를 발견한다. 이 선택들은 그들이 처음 마음에 결심한 것이었고, 그들은 그 선택에 의하여 행동했다는 것을 의식하라. 당신이 탐구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오직 그들이 선택한 것만 본다.

생각하기 시작하라: *보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하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아마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그들이 *선택 했을 수도 있었던 선택*에 대하여 생각해 본 후, 그들이 *선택한 선택*을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하여 영적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선택이 초라했기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당신은 부정적이거나 상처를 주는 결과를 보는지 모른다. 아마 그것이 훌륭한 선택이었다면 그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 지도 모른다. 혹은 처음에는 나쁜 결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바뀌졌는지 모른다. 당신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들어진 선택 때문에 그 부분의 이야기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그영향은 어떠하게 영향을 끼쳤 는가?*

스스로 물어보라. *이 이야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보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에서 나는 그분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여러분은 성부, 성자와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서도 같은 선택의 질문, 즉 그들은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 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인격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항상 완전한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 서 하실 수도 있었든 것과 그가 실제로 하셨던 것을 비교하여보라. 완전한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스릴 있는 일이다.

이것이 영적인 관찰들 (Spiritual Observations) 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야기 속의 각 부분마다 통과해 가면서 같은 종류의 질문들을 한다. 우리는 말들과, 행동들과 결정한 선택들, (혹은 선택 할 수 도 있었든 것들을 보고, 그 결과와 그 선택들이 타인들에게 끼친 영향들을 주목한다. 그리고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나 또는 허락하시는 어떤 것을 보았는가?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현명한 상담자의 질문이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질문들을 다음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한 보화들을 찾기 위해 질문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아래 질문의 샘플들은 이야기로 사역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자신에게 질문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스스로 물어보라:

- *이야기 속에 나를 놀라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나 사람들의 행동, 혹은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들?* 당신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을 (listen) 때," 당신을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라.

-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당신에게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이전의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하나님의 성품 즉, 인내, 인고 (longsuffering), 분노, 지식, 정의, 친절, 은혜, 자비,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존중, 혹은 사랑 등의 속성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가?*

-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들을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가?*

- *그 이야기 속에 개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나는 알 수 있는가?*

-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진실한 구도자들처럼 보이는가, 회의적인 자들처럼 보이는가, 혹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굳은 자들처럼 보이는가?*

- *이야기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인가?*

-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일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께로 갔다면,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가?*

- *그 사람은 하나님께 존경심을 갖고 접근하는가 혹은 오만함으로 접근하는가?*

- *이 접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접근하시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었나?*

-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불순종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나 태도가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 *등장 인물들 중에, 믿음이나, 사랑, 자비, 분노, 두려움, 희망, 편견, 의심, 욕심, 혼돈, 무지, 지혜, 존경, 경멸, 미신적인 행위, 혹은 다른 태도를 갖고있다는 증거가 보이는가?*

- *그 사람들의 믿음과 느낌과 말이나 행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 *이야기 속의 어떤 인물들이 행동 변화를 이르키는가?*

- *그들이 변화된 정확한 원인들은 무엇이었나?*

-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무슨일이 일어났으며 그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이야기 속에 어떤 기적들이나 초 자연적인 사건들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야기 속에서 상황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영적인 적용" (Spiritual Applications) 이라 불리는 보화들 찾는 방법

영적인 적용들 찾기. 우리들이 조심하여 이야기를 드려다 본 후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지금은 영적인 적용을 찾는 시간이다. 우리는 조금 전 조심하여 관찰한 이야기 속에 우리자신들을 둠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이야기를 보았다. 다음으로, 이야기의 안쪽에서부터, 한번에 한 부분씩 우리가 발견한 영적인 관찰을 하나씩 방문한다.

오직 그 이야기 성공의 열쇠—영적인 적용들은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영적인 관찰에 기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질문들이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멀리서 시작하여 개인적으로 천천히 닥아가는지 주목하라.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 보라:

1. *흠?.....이야기 속에서 내가 처음 본 영적인 관찰은 무엇이었지?.....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날에도 일어나는가?*

2. *만일 일어난다면,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3. *비슷한 상황이 내게도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아니면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4.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특별한 개인적인 적용들을 위하여, 영적인 관찰을 발견 할 때 도움을 받았던 같은 질문을 사용해 보라. 이런 질문들은 어떻겠는가?

- *맞아. 이런 일이 전에 내게도 일어났었어. 나는 무엇이라 말했지? 나는 어떤 행동을 했지?*
- *그때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 *나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가? 그당시 나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 *나의 선택에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 *만일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알도록 도와준 이야기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물어보라:

- *나의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혹은 이런 상황속에 있는, 내가 알고있는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그의 인격에 관하여 나는 무엇을 배웠으며, 혹은 무엇을 배웠어야 했는가?*

당신이 처음에 이야기를 읽을 때, 가끔 그 내용이 혼돈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응답하시는지 당황할 지도 모른다. 가끔 당신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것은 좋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 나는 영적인 아무것도 관찰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이점을 고려하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들이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통찰들 (insights) 이 담겨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둔 모든 정보들의 유용성에 대하여 다음 두 곳의 성경구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라. 이 통찰들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발견하려고 시도하도록 당신을 격려할 것이다. 이 구절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마다 영적인 관찰과 적용부분이 보여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디모데후서 3:16-17 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
> 고린도전서 10 장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들의 노예생활에서 구하여 내셨는지,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돌아보고 있다. 그런 후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본보기로서 기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그때나 오늘날이나 다른 사람들도 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이상으로 시험 받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다.

이 구절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야기에 있는 말씀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위하여 쓰여졌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단지 책의 분량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야기 속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 할 필요가 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자로써 또 질문을 만드는 자로써,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 진리들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하여 여러분이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우선 당신자신을 위하여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기 까지는, 당신이 경청자들을 보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이야기 하는 자로써,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에 의하여 영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서 당신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진리들을 알려 달라고 기도할 좋은 때이다. 보화들을 발견 할 수 있는 모든 안내과정을 그대로 따랐는데도 그 이야기에서 어떤 영적인 진리도 발견 할 수 없었다면,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당신이 이야기를 모두 지나간 후에, 많은 교훈들 중 얼마 (보화들)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경청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보화들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안내할 수 있는 질문들을 디자인 할 준비가 된 것이다.

질문을 해야 하는 중요성

당신이 산책을 하다가 보석을 발견 한다면, 전율을 느낄 것이다! 만일 그 보석을 취하여 당신의 친구들과 그것을 나눈다면, 그것을 받을 때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때의 행복은 당신이 그것을 발견할 때의 행복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발견의 전율은 발견 그 자체에 있다.

토론식 수업을 시작하는 동안 답하기-쉬운 질문들을 사용하라. **이것은 오직 그 이야기 의 성경공부 개념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 풍족한 영적인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가 성경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진리들을 자신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정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발견하고, 그것이 가치 있음이 증명될 때, 더 많은 답을 찾도록 격려된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 이야기 속에 있는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하여 조심하여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목적 있는 질문들은 (그것이 네, 아니오의 답이라 할지라도) 경청자들이 영적인 관찰을 하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오직 그 이야기 에서 우리는 새로운 그룹사람들을 종종 보석 바로 앞으로 인도하여 거의 그들의 손에 넘겨주듯이 인도한다. 유능한 교사들은 대답하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거의 그들

자신들이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인도한다! 그룹 사람들은 보석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발견 했음을 의식 할 때, 더 많은 보석들을 계속 찾도록 격려된다.

수준 높은 성경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보통 성경 문단들을 어떻게 분류 하거나 분석하는지는 배우지만 문단들을 하나의 이야기로써 경청하기 위한 시간은 없는듯 하다. **오직 그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로써 함께 보존하는 기술을 격려하며 또한 진리를 담고 혼자 서있는 하나의 컨테이너로써도 그것을 탐구하기를 격려한다.

궁지로 들어감. 가끔 여러분들은 성경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만큼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을 만난다! 그들을 돕기 위하여, 이런 지나친 확신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궁지 (hole) 에 들어가기를 허락하는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궁지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잘못된 개념, 거짓된 추측이지만, 이야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답이 보여지지 않는 질문, 경청을 잘 하지 못하는 자들이 틀린 정보를 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한다. 당신은 틀린 정보에 대하여, " 흠, 그것 재미있군요." 라고 반응하고는 계속한다.

질문이 계속되면서, 올바른 답이 명백해지면, 재빨리 대답한 이사람들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그들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부드럽게 드러나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만큼 잘 알고 있지 않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 예민한 덫 속으로 떨어진 놀라운 경험은 스스로 만족 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참으로 듣고 배우는 데 더욱 관심을 갖도록 격려한다.

동시에, 이들은 이야기에 대하여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냥 옳은 것일 거라고 추측만 했든), 이야기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 참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이야기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성령님 -- 위대하신 교사

신자로써,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요한복음 3:16 만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오는 구절들은 말해주지 않는가?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토론하는 일을 삼가고 있는가?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드라도—우리는 그 성경구절을 토론한다.

우리는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그 이야기**를 나누며 세계를 여행하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은, 슬프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보화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한 사람 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아직도 빈 교실 앞에 서서 기다리신다.

오직 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준비할 때, 주님께서 이야기 속에 있는 보화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발견한 보화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 하도록 도울 질문들을 만들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경청자들에게 질문 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토론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한다. 그런 후 경청자들에 의하여 보화가 발견

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방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가슴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끔, 우리는 경청자들로부터 성경 속의 다른 이야기에 있는 정보에 의하여 대답해야 할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그 답을 알고 성경의 근거를 줄 수 있다면, 그 당시에 완전한 답을 줄 것인지, 혹은 짧고 개략적인 답을 줄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다음과 같은 답을 하도록 인도될지도 모른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기다립시다. 그 뛰어난 질문을 다루는 성경의 온전한 이야기를 하도록 다른 시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경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민하라. 성령께서 혹은 어떤 사람의 영적인 굶주림이 그 예기치 않은 질문을 튀어나오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에 정보가 없는 질문이 바로 그때 밝혀져야 할 진리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질문에 답하라!.

오직 그 이야기에서 계발한 토론형식을 사용하는 이야기군들은 점진적으로 양질의 질문을 하는 기술을 배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화를 찾기 시작하면, 현명한 지도자는 뚜렷한 단서를 주는 일에서 뒤로 물러날 수 있음을 배운다. 그리고 대답하는 자들이 더욱 더 많은 발견들을 하도록 서서히 허락한다. 발견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이 각성하는 것을 보는 일은 감동 그 자체이다.

사랑을 보이라.

우리들이 이 토론-형식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고린도전서 13 장 1 절에 기록된 한가지 기본적인 열쇠를 반드시 최선을 다하여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 "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이것을 알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 한다. 그래서 당신이 이야기로 사역을 하거나 **오직 그 이야기** 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나, 사람들을 다룰 때는 매우 강한 격려가 필요하다.

가끔 당신은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을 가르칠 지도 모른다. 비록 그들이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주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들 대부분은 대중 앞에서 "수정 (corrected)" 을 받아오지 않았다 (아니면 오래, 오래 동안).

그러므로 토론을 통하여 가르칠 때, 두려워 하는 사람들과 공적으로 수정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지도자들에게 당신이 응대 할 때 특별히 민감해야 한다. 경청자로써 이야기를 되풀이 할 때나, 혹은 질문에 답할 때나, 더 나아가 그들의 관찰들을 제공할 때, 이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아무리 빈약하게 반응했다 해도, 이야기하는자/교사는 수정을 할 때 매우 부드럽고 지원적이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소로 부드럽게 수정하는 말이 엄격하게 수정되는 것 보다 쉽게 받아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이야기하는 자로써의 당신이 그룹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 당신은 선택권을 갖고 있다. 경청자들을 격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해와 생각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에게 연구와 발견의 느낌을 주든지 아니면----혹은

참여자들에게 모든 토론시간은 시험을 치르며 항상 "올바른" 답을 해야 하는 때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참여자들에게 긴장감과 좌절감을 주든지 둘 중 하나를 줄 수 있다.

거듭 강조한다; 당신이 열심히 이야기를 기억하고 당신의 질문을 질문할 때 당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당신의 마음에 최 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 기술들을 사용 할 때 보여주는 사랑이다!

기술 III : 당신의 질문을 디자인 하는 방법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후에 그 이야기에 대하여 토론하는 주된 목표와 열매는 다음 것 들이다:

- 하나님의 인격을 배운다.
-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운다.
-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진실을 보며 그것을 받아드린다.

케냐에서 있었든 **오직 그 이야기** 연수회에서, 그곳에 참석했던 교회 개척자 한 분이 현명한 관찰을 나누었다. 신학적인 훈련을 강하게 받은 이분은 사역을 위하여 그의 마을에 있는 자신의 사업체를 계속 굴러가게 했으나, 4 년 동안 시골에 있는 그의 사업체에서 거의 열매를 볼 수 없었다,

이 연수회에 오기 위하여 그는 이틀을 낙타로 왔고 하루는 "에어 버스" (지나기는 트럭을 세워 그 트럭 지붕에 타는 것)로, 그리고 하루는 버스로 왔다!. 그는 연수회에서 배운 것을 사랑했고 그는 능력을 느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 왔다; 이 훈련을 받기까지는 성경으로부터 내 스스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 나는 이제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는
사람들을 데려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

이점이 우리가 질문을 사용하는 이유이다. 처음에는 이야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그런 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질문을 통하여 그가 배운 가치 있는 진리들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

빵 부스러기 인도 (Leading with "bread crumbs") 는 **오직 그 이야기** 연수에서 가르치는 기술이다. **오직 그 이야기**를 배우기만 한 사람은 종종 하나의 "완전한" 질문만으로 사람들을 보화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런 일은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 새를 새장 안으로 달래어 넣기 위하여, 새장 앞에 한 덩이의 빵만을 놓고서 새가 새장을 찾을 거라고 기대 할 수는 없다. 대신에 많은 양의 작은 빵 부스러기를 한 줄로 놓아서 새를 새장 안으로 인도한다.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영적인 보화들을 발견하도록 질문들을 사용할 때, 거의 모든 때마다 당신은 작은 질문 시리즈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리즈 질문들은 경청자들을 쉽게 초청하여 보화들을 쉽게 발견하도록 한다.

요 주의. 다음에 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와 본 핸드북의 뒷부분에 있는 몇 개의 다른 이야기들 속에는 당신을 위하여 많은 영적인 관찰들과, 적용들과, 질문들이 적혀있다. 그러나 **오직 그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질문을 **결코** 기록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당신은 질문들을 기록 할 필요가 없다. 미리 기록된 질문들은 사실상 만남을 더욱 방해할 뿐이다. 때에 맞춰서, 현명한 상담자의 기본적인 질문들로 시작하여 노트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늘어날 것이고 질문들을 생각하는 기술을 습득할 것이다.

본 핸드북에서는 **오직 그 이야기** 연수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분들과 연수회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질문들을 기록해 놓았다. 이 기록된 질문들은 **오직 그 이야기**의 준비와 가르치는 과정을 지적으로 통과 하면서 지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제시한 본보기들이다.

이야기하는 자로써, 당신이 사역지에서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관찰들과 적용들을 당신의 학생들이, 당신이 질문하기전에 먼저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학습자들이 보화를 일찍 발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깊이 보며 스스로 보화들을 찾을 수 있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화들을 발견하도록 질문들을 발전시키기.

당신이 발견한 보화들을 다른 사람들도 발견하도록 돕는 질문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라. 당신이 발견한 **영적인 관찰**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야기 속을 걸어가라. 각 이야기의 부분마다 많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현명한 상담자가 어떻게 보여주었는가를 기억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영적인 관찰을 발견해 내는 방법이다.

같은 방법으로, 당신이 발견했든 것들을 경청자들이 발견하도록 현명한 상담자 질문 시리즈의 질문들을 당신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당신의 관찰을 발견하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에게 사용했든 질문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종종 같은 질문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사라 이야기를 준비할 때, 당신은 많은 진리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 이다; 첫 부분만 해도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창세기 12:10-13, 대화 부분).

>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임시로 머물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인 사라에게, "내가 알기로 그대는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오. 그것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이 사람은 그의 아내이다.' 라고 말하고 나를 죽일 것이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살려 둘 것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의 동생이라고 말해줄 것을 간절히 청하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나에 대한 일이 잘 될 것이오. 그리고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살게 될 것이오."

이 이야기를 배울 때, 당신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선택을 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신 두려움을 보였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고, 이집트로 갔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라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요구했다. (어떤 분들은 이집트로 가는 것은 틀렸다는 관찰에 대하여 모순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집트에 가게 된다. 그러나 물론, 야곱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인도되어" 라는 말은 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많은 다른 발견들 후에, 다시 처음 부분으로 가서 이런 관찰들을 기초로 하여 어

떤 영적인 적용들을 만들어 낸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경에 순종하려고 하며, 또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기초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후 당신은, 우리들이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나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대신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세상으로 가는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죄의 음모를 꾸미거나 거짓말을 하여 죄를 짓거나 혹은 그 이상의 짓 즉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짓는 죄에 참여시키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관찰을 질문으로 바꾸기

질문들을 이야기 속에 묶어두라. 당신이 발견한 보화들을 경청자들이 발견 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질문들을 발전시킬 때, 질문들을 이야기 속에 있도록 묶어두라.

조금 전에 언급한 영적인 관찰들에 기초하여 많은 발견들을 열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1.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이야기의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2. *우리는 기근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식량을 구하기 어려웠을 때 그 땅을 떠나는 것 대신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 는 없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지요?*

3.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한 말을 통하여 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4. *이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에 관하여 우리가 서로 이야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용감하고 두려워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 기억합니까? 만일 기억하신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신뢰를 어디에 두어야 했을지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 *아브라함과 가까운 사람이 아브라함의 신뢰의 부족이 낳은 결과를 경험 하였습니까? 거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6. *아브라함의 결정에 의하여 이 이야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토론을 통하여 경청자들이 방금 발견한 영적인 관찰들을 기초로 하여, 영적인 적용들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다음의 몇 가지 본보기 질문들을 보라.

1.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장소에 관한 지시를 주셨다. 그러나 상황들이 나빠지자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떠났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장소나 혹은 위치로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 되었다가, 상황들이 나빠지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잊을 수 있는가? 어떠한 모양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당신에게나 혹은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누구에게 일어났었는가?

2.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에서 살고 있었지만, 삶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났음을 보았다. 오늘 날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삶을 위협하는 일들을 만나는가? 어떤 종류의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가? 당신이나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구인가가 삶을 위협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난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것을 아브라함의 결정 속에서 보았는가?*

3. *아브라함은 그의 감정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감정을 방치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다. 오늘 날에도 감정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때에 이 이야기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보다 조심스럽게 생각하도록 도움을 주는가?*

4. *일들이 나빠 보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셨던 장소를 떠났다. 오늘 날에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장소를 떠나려 하는 시험을 일으키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런 일이 당신에게나 혹은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났는가?*

5. *우리의 삶 속에서 만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서 본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주는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6. *오늘 날 우리들도, 잘못된 반응, 감정들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가? 사람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들어올 때 종종 어떤 종류의 감정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가? 당신이나 혹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감정에 이끌리어 건강하지 못한 결정을 한적이 있는가? 그 경험들을 나눌 수 있겠는가?*

7.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신뢰심이 그와 가까운 사람들과 주위의 방관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았다.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부족한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 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당신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는가?*

이상의 관찰과 적용 질문은 창세기의 이 이야기 첫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다.

유의 점. 이야기 속에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이나, 선택한 것이나 선택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당신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다고 하여도, 당신의 경청자들의 질문들과, 관찰들과, 대답들에 대하여 당신은 항상 반응을 보여야 한다. 경청자들은 당신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 부분에서 다른 보화들을 보았거나 질문들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현명한 상담자의 질문에 기초하여 질문들을 하라. 그러나 만일 당신의 학생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다른 보화들을 보거든, 그것에 대하여 토론하게 하라.
이때는 가르치고 있는 당신 자신의 질문들이나 발견된 관찰들은 한쪽으로 제켜 두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다른 보화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
성령께서 경청자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를 위하여 소개말을 준비하는 방법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보화들을 찾는 일을 끝냈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소개말이 필요할지 아니할지를 결정할 때이다. 우리는 관찰과 적용들을 모두 발견 한 후에 소개부분을 준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공부를 모두 끝내기까지는 소개부분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개부분은 경청자들이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의 무대와 배경을 제공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의 이야기가 있기까지의 배경 속에서 경청자들이 이야기를 받도록 준비시킨다.

소개부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1. 만일 소개가 필요하다면, 짧게 하라. 이상적으로는 오직 몇 마디만 한다. 만일 경청자들이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이야기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좀더 긴 소개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소개부분은 성질상 문서적이기 때문에 이야기 보다는 경청자들의 관심을 오랫동안 갖게 할 수 없다. 문서적인 양식에 담겨있는 정보가 이야기 속에 담겨진 정보 보다 기억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짧은 소개가 최선이다. 소개부분을 사용해야 할 세가지 이유는:

    a.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장소가 필요하거나 상황적인 배경이 필요할 때 이야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개부분을 사용하라. 당신이 선택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지 확인하라.

    b. 때때로 이야기 속에는 경청자들에게 새로운 용어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나온다. 그러한 용어들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 부분에서 뜻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단어나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것 들을 예로 들면, "회당 (Synagogue) ," "인자 (Son of Man)", 혹은 " 선지자의 아들들 (Sons of the Prophet)" 같은 것이 있다.

    c. 질문을 할 때, 당신은 경청자들이 구약에 있는 정보의 한 부분에 의지하여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는 요한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일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소개 부분에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희생 제물로 가져 오도록 여러 번 지시하셨다는 것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신의 경청자들이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혹은 이야기 뒤에 있을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당신이 느끼면, 어떠한 정보라도 소개부문에 포함시켜라.

3. 어떤 경우에는 소개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는 때도 있다는 것은 명심하라.

4. **오직 그 이야기**에서는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정보만 사용한다. 우리는 성경 외의--성경적인 정보 (extra-biblical information) 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단어 정의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정의는 몇몇 선택된 사람들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을 나누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우는 자들에게,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을--말씀으로부터 어떻게 깊이 발견 할 수 있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신뢰하도록 가르치라.

5. 소개 부분은 당신이 편집한 성경의 정보이다. 당신이 편집한 소개부분이 끝나면, " 자 이제

이야기…" 혹은 "이것은 성경 이야기 입니다" 등으로 소개 부분은 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 (다른 교육 방법으로 당신은 "이 이야기는 …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 다음 설명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직 그 이야기**에서는 이야기 자체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말하게 한다.)

제 5 장: 준비하고 실습하는 우리의 기술을 시도해 보기

첫째, 아래의 표본 이야기를 배우라.

본 성경 이야기 (눅 10: 38 – 42 대화체) 를 배우기 위하여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술 1 을 복습하고 그 정보들을 사용하라.

>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여행 중에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 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 역시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섬기는 일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치 않으십니까? 그녀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
> 주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인하여 걱정하고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러나 몇 가지나 혹은 한가지 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준비 : 영적인 보화 찾기

보화 채취 1 – 영적 인 관찰 찾기.

이야기를 공부하는 동안, 당신은 아마 얼마간의 값진 보화들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지금은 이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에 한 부분씩, 현명한 상담자의 질문들을 사용하라. 보다 더 많은 보화를 찾게 될 것이다.

현명한 상담자의 질문을 하나씩 시도하라: *본 이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내가 본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일이 이 이야기 이전에 성경에서 일어났는가 (역사적으로 혹은/그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선택들이 있는가? 그 선택들이 아닌 어떤 다른 선택들도 가능 했든가? 그 선택의 결과 어떤 결과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상담자가 사용한 도구들----많은 질문들을 사용하라. 그리고 또한 상담자가 질문한 것들을 넘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어디서 보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어디서 보는가?*

이 모든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관찰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 마르다는 해야 할 모든 봉사를 혼자서만은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어떤 불합리한 결정을 한다. 마르다는 자신이 초청을 하고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나무란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상관치 않는다고 그분을 비난하고 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데 실패하고 있다.

2.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마치 그녀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3.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존경을 보이지 않았으나,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시지 않으신다.

4.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사랑스럽게 고치신다.

5. 마르다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필요한 한가지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

6. 마르다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7. 마리아는 예수를 선택하여 그녀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8.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선택한 것을 빼앗기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보화 채취 2—영적인 적용 찾기

이제, 위에 있는 것들과 당신이 막 발견한 영적인 관찰에 기초하여,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적용을 찾도록 하라.

첫째, 당신이 발견한 영적인 관찰을 회상한 후, 몇 가지 요점적인 질문을 하라; 예를 들면, *오늘 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어떠한 모양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나에게나 혹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적이 있는가?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움을 위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위의 질문들로 당신이 발견 할 수 있을 영적인 적용들이 여기 몇 가지 있다.

1.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시간을 잃을 만큼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2.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무관심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 틀림없다.

3.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로 우리가 선택해 놓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4.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을 알려드려야 하는가?

5. 우리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 보다 더 많은 일을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6.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의심한다.

7. 예수께서 마르다를 바르게 하셨을 때 그는 인내하셨고 오랜 고난을 경험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할 때도, 아주 번번히 그분은 오랜 고난을 견디시며 우리들에게 친절히 말씀하신다.

8. 예수님의 마르다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마르다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9.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봉사를 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역을 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10. 마르다의 행동에 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필요한 한가지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신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마르다는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와서 봉사하는 일을 돕기를 원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결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필요한 한가지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실 지도 모른다.

11. 가끔 우리는 상황을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지 여쭈어보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도록 부르신 일로부터 그들을 끌어낼 것을 결정하기도 하는지 모른다!

12.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빼앗기지 않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결정한 얼마간의 일들은 좋은 선택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다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13.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화와, 가족과 사람들의 기대를 거슬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위해 보화들을 발견했고, 지금은 경청자들이 그 보화들을 자신들을 위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만들기 시작해야 할 시간 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만들었을 지도 모르는 얼마간의 질문 을 사용하여 오직 그 이야기를 실행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때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지금 복습해 보자...

실행 첫 단계: 이야기를 3 번 하기

경청자들이 질문에 정확히 응답할 만큼 이야기에 익숙하도록 3 번에 걸쳐서 이야기 한다.

1. **당신이 이야기 한다.**

2. **지원자가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한다.**

3. **이야기 전체를 인도한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는 당신이 이야기를 다시 하지만, 당신이 이야기 할 때 경청자들이 참여하여 당신을 돕도록 한다.)

첫 번째 – 당신이 이야기 한다.

이야기를 최대한 정확하게 재미있게 한다. 당신이 이야기 할 때 이야기를 반영하는 몸짓과 제스처를 최대한 활용하라.

두 번째 – 지원자가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한다.

지원자에게 요청하는 **주된 목적은** 그룹에서 사람들이 소리 내어 말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 지원자의 시간은 그룹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참여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지원자가 친절함과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보이게 될 때,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지원자만 소리 내어 말하고 질문에 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룹의 다른 사람들도 친절한 대우를 목격했다. 그 친절은 소리 내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한 느낌을 보다 더 느끼게 된다.

오직 그 이야기 과정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배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후에 따라온다.

만일 진행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 두 번째 이야기 부분은 (지원자 부분)은 뛰어넘고, 세 번째로 곧바로 가라.

지원자를 모집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제 1 선택. "옆 사람과 마주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원자들이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람들이 말을 소리 내어 하도록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적으로 말하기를 망설이기 때문에, 이 선택은 지원자 주의 (Volunteerism) 를 격려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일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아는 사람 곁에 앉기 때문에, 거의 모든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용기는 충분하다. 그래서 한 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서도 대부분의 가르치는 방법은 강연 스타일이기 때문에 배우는 방법을 확장하도록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소리 내어 말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그룹에게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다면,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요청하는 것이 지원자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팁! 만일 당신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의 정확성을 위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점검할 시간을 당신에게 주기 위하여 이 첫 선택을 하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 할 동안 당신은 성경 이야기를 보든지 (듣든지) 할 수 있다. 그룹원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데 분주하여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결코 눈치채지 못할것이다!

선택 2. 만일 당신이 같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 한다면, 이 두 번째 선택을 권한다 (첫 번째 선택을 사용한 후에). 사람들은 이미 오직 그 이야기방식으로 함께 지원자로써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좀더 용기가 있을 것이다.

누가 자원하여 전체 그룹에게 이야기 할 지 물어보라. 그런 후에 재빨리 " 기억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라고 덧붙여 말하라. 그룹에게 미소하며 계속 격려하라. 뒤로 물러나 옆으로 서서 지원자가 당신의 자리에 오도록 제스처를 하라.

지원자를 찾았을 때, 마침내 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을 향해 손벽을 치거나 기쁘게 칭찬 해주라. 거듭 미소로 지원자에게, "소개 부분은 말고, 오직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이야기 어떤 곳을 잊어버려도 걱정 마십시오. 이야기를 한 번 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야기의 첫줄을 말해 주면서, "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냥 시작하십시오." 라고 격려하라.

지원자와 약 10 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계속 서 있으라. 지원자 바로 곁에 있으면, 지원자는 그룹에게 이야기 하는 대신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만 쳐다보고 이야기 할 지 모른다. 만일 당신이 너무 멀리 있으면, 지원자는 혼자 내버려졌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한 쪽에 서있다 할지 라도, 지원자가 이야기 할 동안, 당신의 얼굴 표정과 몸짓이, 관심과 인정을 보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

당신의 관심을 지원자에게 계속 집중시켜라. 오직 그 이야기의 이 발표 몇 분간을 방해 받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그 지원자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참으로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신뢰를 획득하라.

만일 이야기가 잘 말해 졌다면, 당신의 말과 표정으로써, 다시 말해진 그 이야기에 당신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지원자가 알도록 하라. 그 지원자가 특별히 한 것; 제스처나 언어로 극적인 표현을 한 것 등을 칭찬함으로써 당신이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라.

종종, 이야기를 다시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하든지 매우 빈약하게 이야기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다른 경청자들에게 바르게 고치도록 요청하지 말라. 만일 그룹사람들이나 당신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지원자의 이야기를 바르게 고친다면, 그 지원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또한, 틀린 곳이 많은 이야기를 수선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배우는 사람들을 매우 혼돈스럽게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는 그들이 잘한 어떤 것을 찾아 말해 줌으로써 격려만 하는 것이 최상이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 드립니다." "문둥병에 걸린 남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잘 말씀 하셨습니다." "인용부분을 극화하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등등 어떤 특별한 것을 들어 격려의 말을 하도록 하라.

만일 이야기가 길거나 혹은 무슨 이유든 간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 번에 걸친 초청을 하고 앞에 나설 용기를 불러 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방법이 있다.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중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한 후 다른 한 사람이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야기가 모두 끝날 때 까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도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기억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 하면 됩니다." 라
고 말하라. 여러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면 용기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

25 개국에서 이야기한 나의 경험에 의하면, 항상 지원자는 있었다. 만일 지원자가 아무
도 없다면, 나는 "내 탓으로 돌릴" 준비를 하면서, "저 말이지요, 우리가 이야기에 대하여
보다 편안해 지도록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말을
준비한다. 그런 후 전체를 인도하는 세 번째로의 이야기 (Lead Through) 를 하고 계
속 진행할 일이다.

만일 당신의 지원자가 정보를 더하거나 이야기를 수식한다면, 그 더한 것을 언급할 필요
가 있다. 경청자들은 덧붙인 것을 알 것이고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수식한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덧붙인
것은 허락될 수 없다고 (물론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당신은 그 회피
를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회피의 결과. 성경 순수주의자들 (Bible purists) 이 **오직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실망할 것을 생각해 보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이야기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첨가할 수 있다고 추측할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첨가한 것에 대하여 친절하게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친절한
미소와 열정으로, "무척 열정적이셔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야기에는 없는 정보까지도 나
누어 주셨어요! 성경 이야기속에 있는 것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적인
과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이야기하는 사람 (reteller)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칭찬 할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지원자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말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완전하게 할 만큼 이야기를 충
분히 알고 있으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배우는 방법으로써, 지원자들이 연이어 다시-이야기하기를 계속 하는 것을 추
천하지 않는다. 참석자들이 그 이야기를 몇 번씩 듣는다 해도, 첫 지원자는 어떤 실수
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 후 더 많은 지원자들이 이야기 할 때,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수한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지원자
들이 한 실수들을 공적인 석상에서 교정함으로써, 지원자들이 이야기하는 방법
의 약점을 계속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확신을 쌓아가려고 하는 목표가 상실될
것이다. 오직 가장 용감한 사람만이 시도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받는 수치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설 것이다.

이야기의 정확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이야기 하는 사람은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
있으나, 성경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비록 이야기하는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거듭 거듭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야기를
배우는 가장 신나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기계적인 학습방법, 같은 정보를 거듭 반복
하면서 배우는 것은, 흥미를 자아내지 못하고, 일처럼 느낄수 있고, 또 지루해 질수 있다.

오직 그 이야기의 과정에서 이 처음 부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토론할 정도로만 충분히 배울 수 있다면 족하다. 사람들이 토론 할 때 이해가 되고, 이야기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완전히 아는 것은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그 이야기** 제시 (STS Presentation) 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이야기를 간략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이상적인 때가 온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인 강화 (creative reinforcement)" 라고 칭한다. 자세한 것은 본 장에서 나중에 다룰 것이다.

오직 그 이야기 제시부분에서, 이야기가 처음 행하여진 후에, 다음 두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배우기 위한 대부분의 도전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지원자의 이야기 후에 지도자가 인도하는 이야기 전체를 다시하는 단계 (Lead Through) 에서는 종종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다. 더구나 이야기에 관한 관찰 질문을 할 때, 이야기의 각 부분마다 (each section) 이야기를 재 점검하면서 그 부분마다 관찰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이야기의 희미한 부분들이 정착을 하게된다. 이렇게하여 경청자들은 부분 부분, 차례대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강화시킨다.

우리가 워크샵을 인도하기 위해 세계의 어떤 새로운 곳을 갔을 때, 종종, 지역 지도자들은 우리를 한쪽 옆으로 구별해 놓는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을 실망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순수하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볼 것입니다."

모든 경우, 모든 곳에서 (모든 지도자들은 많이 놀란다) 사람들은 질문에 답하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하며 끝을 맺는다. 참석자들의 자원적인 반응은, **오직 그 이야기**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조건들을 천천히 설정하고 격려하는 일을 할 때 생산된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에 소리를 내어 대답하기 위한 충분한 용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기독교를 가르치는 환경 속에서 는 소리를 내어 말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단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 까봐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생각이 타인에게 공헌을 한다고 믿지를 못한다. 실제로, 우리들은 예전에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견해를 깊이 생각해보거나, 고려해 보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져 한다.!

상황이 깨어진 예들.

오직 그 이야기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첫째 날 늦게, 70 대의 높은 교육수준의 한 남성이, " 나는 이것을 40 년 전에 알았어야 했다. 우리 중국사람들은 토론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명령 받는다. 이것은 굉장하다.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는 일은 처음이다." 라고 말했다.

네팔 (Nepal) 에서 한 워크샵을 할 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시골 사람들이 질문에 답하기를 망설였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인정되었을 때, 그들은 참여하게 되었다.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생기 있게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문맹자들 중 한 사람이 그곳에

서, " 나는 하나님께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말씀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했다.

타이 (Thailand) 의 한 마을에서 워크샵을 끝낸 후 한 타이 강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해 왔다. "처음에 여자들은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해도 된다는 것과, 그들이 말 해야 했든 것들은 값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까지는 몇 일이 걸렸다. 그 후 그들이 모두를 답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중단시킬 수 없었다! "

세 번째 --이야기 전체를 인도하기 (Lead Through the Story)

다시 본 과정으로 돌아가자. 당신이 이야기 했고, 지원자가 다시 이야기 했다. 이제는 세 번째의 이야기 차례인데, 경청자들이 참여할 것이다.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통과하기를 요청한다. 이 이야기 방법은 머뭇거리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이야기 하는 당신은, 이야기의 세밀한 부분을 기억하거나 떠올리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경청자들의 이야기 기억하는 능력이 엄격하게 시험된다는 느낌을 갖게하지 않도록 한다. 대신에, 당신은 경청자들이 당신이 말하고 난 다음의 몇 마디 말이나 문장을 말해주기를 희망하면서, 경청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번은 경청자들이 전체 이야기를 두 번째 듣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 부분을 일방적으로 복습해서는 아니 된다. 당신은 모든 참석자들이 이야기전체를—정밀하고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 하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체 인도 (Lead Through) 에서, 사람들을 참여 시키는 일 외에, 당신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라. 각 문구나, 문장 (혹은 새로운 생각) 에서 시작하라---그러고는 나머지 정보를 경청자들이 채워 넣도록 초청하면서, 머뭇거려라.

예를 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수께서 어떤 시로 가셨는데 그 분 혼자 가셨는지 혹은....음?" 그런 후에 사람들이 다음 말을 채우기를 기다리면서, 망설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듯 보이면서 기대감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들이 말한 후에, 당신은 "네!" 혹은 "훌륭합니다." 라고 답한다. 그런 후 당신은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 전체를 계속 이끌어 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름과 수량을 기억하기가 가장 어렵다. 전체 인도 (Lead Through) 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언제 이름을 기억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경청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쉽게 기억해 낼 수 있다. 경청자들이 용감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쉬운 질문을 하라. 그런 후, 나중에, 이야기를 토론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질문에 더욱 자유롭게 반응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네", "아니오" 나 혹은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거의 모두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청자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들에게 당신은 언어로 구사하는 답변을 원하며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질문하라, "그래서 마르다는 누구를 초청하여 무엇을 하도록 했나요?"

경청자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녀의 집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 라고 답한 후 "훌륭합니다" 라고 당신은 답한다.

가끔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이야기 안에서 멈추고, "자,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친척이 있다고 언급되어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관계의 누구이며 그녀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듣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경청자들이 말하게 한다. 그들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자형제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 맞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써 당신은, "맞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 역시 듣는다" 라는 부분을 넣어서 바로잡는다.

당신은 특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르다는 문제를 갖습니다---혹은 그녀가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이야기를 통과하며 인도해 갈 때 경청자들에게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머뭇거리고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룹 사람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괄호 넣기 방법 (fill-in-the-gaps) 이나 혹은 다음 부분을 이야기 하는 방법 (tell-the-next-part) 을 사용한다.

만일 경청자들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의 괄호 넣기를 위해 여러분의 망설임 뒤를 이어서 따라 올 수 없는 경우, 그 답을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기억 할 기회를 주어서 문장이나 생각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도록 하라.

질문을 할 때 답변의 키 워드 (key words) 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다음 부분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질문에 그 키 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키워드들이 실마리가 되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어떤 정보의 빠뜨림 없이 경청자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없이. 예를 들면, 당신이 이야기를 복습할 때, 만일, " 그리고 마르다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 라고 질문했다고 하자. 한 경청자는, " 마르다는, ' 나의 동생에게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마르다가 "나의 동생에게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은 맞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마르다가 "나의 동생에게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마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 일 모두를 하게 두고 떠나버린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복습 질문이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경청자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먼 앞 부분으로 가게 하였다.

키워드와 함께. 이야기의 내용을 기억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하여서 경청자들이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머물 수 있도록 도우라. 예를 들면, "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 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이라는 말을 당신의 질문에 사용함으로써, 경청자들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질문형식으로 했든 말을 기억하도록 지혜롭게 인도하게 된다.

당신의 경청자들이 더 많은 해답을 찾도록 돕기 위하여, 돌아가면서 그들이 보다 자유롭게 말 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답하는 사람이 비록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하드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 해 보라: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타이틀을 사용합니까? " 경청자들은" 선생" 혹은 "주" 라고 대답할 지 모른다. 만약 그들이 "주" 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맞다"고 말한다. 만일 그들이 "선생"이라고 말했다 하자, 여러분은 "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 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답 할 수 있다. 비록 경청자의 "선생" 이라는 답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지라도, 답한 자가 바른 개념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은 대답을 격려하고, 동시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드럽게 정확한 답을 준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 하도록 인도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예*
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는가? 이야기 중에서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르다는 무슨 일로 분주한가? 그런 후 문제가 발전된다. 문제를 설명해 보라. 마르다는 언제 예수님께 말을 하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호칭하는가? 그런 후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묻고 있는가? 마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마르다가 너무 많은 것을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리아야 지금 곧 이 방을 떠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녀의 선택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요?

우리들이 조금 전에, 내용과 명백히 틀린 것에 대해 제안한 점을 주목하라. 만일 당신이 순진하게 명백하게 틀린 어떤 것을 말한다면, 실수한 것처럼, 사람들은 당신을 돕기를 원할 것이고 이야기를 바르게 할 것이다. 어떤 것을 틀리게 말하여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이 방법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을 아끼며 사용해야 한다. 이야기 전체통과하기를 할 때 오직 한번 정도가 좋을 것이다.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야기는 경청자들의 마음속에 잠겨질 것이다. 덧붙인다면, 매우 쉬운 질문들 (이야기 내용을 그냥 복습한 것) 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질문에 소리를 내어 답하도록 격려한다. 위에서 말한대로, 사람들이 이런 쉬운 질문에 답한 후에 인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 자신감은 약간 좀더 도전이 되는 **오직 그 이야기**의 다음 두 부분에서 필요 된다. 토론을 통하여, 경청자들은 이야기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도록 요청되며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소리 내어 보고하도록 요청된다.

몸짓을 사용하라. 당신이 처음에 이야기 했을 때 몸짓들을 사용했기를 바란다. 이야기 전체 인도 과정 (Lead Through) 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질문으로 생각을 촉진시킬 때,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은 몸짓을 하라. 그 행동들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준비가 되었는가? 이야기를 제시할 때 우리의 기술들을 사용해 보자.

실행 둘째 단계 : 영적인 관찰들에 대한 토론

영적인 관찰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준비할 때, 많은 영적인 보화와 영적인 적용을 발견했다. 이 발견한 것들의 일부나 혹은 전체를 당신이 이 이야기를 가르칠 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사역속에서 이야기를 제시할 때, 이야기 전체 인도 (Lead Through) 를 한 후에 , 당신이 토론할 이야기 부분을 먼저 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 이야기의 이 첫 부분에서..." 라고 시작하여 부분 전체를 말한다. 이야기에서 일곱 구절로 부터 열네 구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보통 셋 혹은 네 부분으로 되어있다. 이야기의 행동이나 혹은 정보의 나누어 지는 자연스러운 곳에서 나누도록 하라. 이때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형태로 말하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몸짓은 하지 말라.

부분을 나누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말 함으로써, 경청자들은 당신이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이야기가 네 번째로 이야기 되어져도, 기계적인 암기를 하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부분을 나누는 것은 또한 사람들이 토론시간에 이야기의 이 부분에 대하여만 이야기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에 도움을 준다.

아래의 본보기 질문들은 당신이 발견한 많은 보화들 중에서 얼마간을 찾도록 인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며 워크샵을 할 때 <*마르다와-마리아*> 이야기에서 발견되어온 보화들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야기에 맞춰서 관찰이 토론되어진다.

[아래의 아라비아 숫자에서 관찰된 부분들 중에 있는 이테릭체 글로 된 부분은 이야기하는자가 경청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테릭체가 아닌 부분들은 경청자들이 발견하여 말 할 수 있는 답변이나 혹은 보화일 수 있고, 혹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경청자들의 통찰부분을 지지하는 말일 수도 있다.]

1. [질문 1 과 2 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있는 상황을 보도록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감정을 갖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지만, 마르다의 행동은 비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기다린다.] *자, 저는 혼돈스럽네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요? [*대답을 기다린다.] *손님을 위하여 가정-요리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행위가 아닙니까? [*답을 기다린다.] 그래서, 나의 호기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는 행복해 하시고 마르다는 칭찬하시지 않는점

2. *이외에, 만일 우리가 이 이야기는 성경 공부가 요리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단정한다면, 당신의 음식은 누가 요리할 것입니까, 남자분들?* [대답을 기다린다.] *남자분들 역시, 당신의 아내들에게, 성경공부의 기회를 놓치고 부엌에 가서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것 즉 아내들은 가치가 적은 것을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대답을 기다린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다시 보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3.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집으로 초대한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것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까*?
[대답을 기다린다.]

경청자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집으로 초대했다는 점, 마르다가 예수를 "주 (Lord)" 라고 부른 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점, 혹은 마르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두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예수를 일반 분 보다 더 위에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답변들이다.

4. *우리는 이야기에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서 (sitting at his feet)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있다"는 묘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요?* [대답을 기다린다. 그렇다. 어떤 사람의 발아래 앉아있다는 것은 학생과/선생 사이의헌신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한 데로 그것은 헌신과 정체성을 보여준다.

5. *마르다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답을 기다린다.] "*주"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나는 높은 신분을 가리키기 위하여 손을 높이 드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을 신으로 알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안다. [답을 기다린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답을 기다린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은 특별하고 뛰어난 자로써 그녀가 우러러봐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 그녀는 "그는 주 " 라고 말하지만, 그와 함께 있거나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지는 않다. *이 이야기의 여기까지에서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을 기다린다]

6. *마르다는 일로 지나친 부담을 갖고 있고 또 혼자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말한다.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마르다가 어떤 규모의 식사를 준비하며 얼마나 정성을 드려 준비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겠는가요*? [대답을 기다린다.] *우리는 그녀가 그녀의 손님들에게 접대할 간단한 음식, 즉 과일이나 혹은 차와 과자를 준비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예수를 집으로 초대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요?* [답을 기다린다]

나는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 만일 마르다가 예수께서 가르치실 값진 것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가 그렇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하려고 선택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닌지요? 그녀의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기다린다.] *우리는 마르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것을봅니다. . 그러나 그녀의 모든 시간을 요리하는데 다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답을 기다린다]

7. *네?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확히 무엇이라고 질문하였습니까? (* 답을 기다렸다가 누군가가 답을 하면, 그 사람을 놀란 듯 바라본다) *그녀는 누구에게 무엇이라고요?* ("상관치 않으십니까?") *저는 당황스럽네요. 마르다의 이 말은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대답을 기다린다.]

8. 자신의 문제에 대한 마르다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를 도우라고 하세요!" [답을 기다린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주로써?* [대답을 기다린다] 저도 동의 합니다. 그녀는 예수의 상관처럼 예수님은 그녀의 종처럼 행동하군요!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답을 기다린다.]

9. *우리가 마르다가 한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주목할 때, 예수께서 왜 마르다를 바로잡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직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기다린다.]

10.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된데 대하여 두 사람을 비난하였는데,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을 기다린다] *네, 마리아와 예수님! 마르다가 그들을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마르다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까?" 또한 마르다는 마리아를 지적하여, 마리아가 모든일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를 떠나버렸다고 한 것을 주목하십시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요, *초대를 누가했니까*? [답을 기다린다.] *접대상을 크게 준비할 것은 누가 선택하였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압도당한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가요? [대답을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마르다는 어느 한 부분에서도 자신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11.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일에서 떠날 결정을 한 것은 마르다였음을 기억하십시요. 그러나 *마르다의 문제 해결이 (마르다가 만든 것)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을 떠나야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을 기다린다]

12. *마르다는 어떤 종류의 존경심을 예수님께 보였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 방법은 존경심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께서 자신의 문제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의 종이라도 되는 듯이 말합니다!

13.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응답하시면서 어떠한 감정을 보이셨습니까?* [대답을 기다린다] *흥미롭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마르다의 비난과 예수님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한 그녀를 향하여 어떤 다른 반응을 하실 수도 있었는가?* [답을 기다린다.] 나도 역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태도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화를 내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너무 창피하여 방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묘사해 보십시요.* [답을 기다린다.] 그는 마르다에게 그녀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며, 마리아의 선택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친절히 설명십니다.

14. *마르다는 또 예수님께 어떻게 불경을 했다고 봅니까?* [답을 기다린다.] 예수님은 존경 받는 교사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비판했을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 앞에서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르다는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 전혀 존경심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보인 반응에서 자만심이나 자기비하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기다린다.]

15. *예수께서 마르다를 부르신 것에서, 그리고 그녀의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녀를 알고 계셨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모르고 계셨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그녀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사용하십니다!

16.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정보에 의하면, 마르다의 염려가 어떤 새로운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녀가 가진 습관으로 보입니까*? [답을 기다린다.]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매우 많은 것들에 관하여 염려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의 습관인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17.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가 부엌에 머물면서 식사를 준비하든지 혹은 예수님의 발아래서 가르침을 받던 지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마르다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 마르다의 선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보십니까?* [답을 기다린다.]

18. 예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가지 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선택과 태도를 마리아아의 선택과 비교하심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답을 기다린다.]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자신이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우선 순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리아의 선택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 마르다는 자신이 선택한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까? [답을 기다린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기다린다.] 먹는 것은 필요합니까? [답을 기다린다.] 이점을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필요 없다 하십니까?

20.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문화 속에서 마리아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기다린다.] 마리아는 어려운 결단을 하였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항거할 것을 선택해야만 했는지요? [답을 기다린다.] 아, 그렇습니다. 그녀의 문화와 가족의 기대입니다.

21. 우리는 마르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압도되어 자신의 일을 끝낼 수 없을 때 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자신의 짐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었을 때,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까요?* [답들을 기다린다]. 마르다가 할 수 있었든 다른 선택들이 제공될 것이다. [마르다가 자신의 일을 완성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마르다가 할 수 있었든 모든 가능성들을 말해보도록 격려하라.]

22. *마르다에게는 어떤 가능한 자원들이 있었을까요?* [답을 기다린다.] *마르다는 도움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누구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답을 기다린다] 우리가 종종 이 이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토론할 때, 사람들이 아주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가능성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저는 이 모든 음식 준비와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 라고 여쭈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3. *마르다는 너무 수줍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가요?* [답변을 기다린다]. *마르다의 태도를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그녀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를 비교해 보십시요.

24. *마르다의 선택과 마리아의 선택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종류의 선택입니까? 다른 종류의 선택입니까?* [답을 기다린다.] *어떤 여성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으며, 어떤 여성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요*? [답을 기다린다.] *어떤 행동을 예수님께서 가장 값지다 하셨는가?* [답을 기다린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보여주는가?* [답을 기다린다.]

우리는 경청자들이,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는 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하는 일이, 최소한 이때나 혹은 이런 방법으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신다. 이점은 일 (works) 과 은혜 (grace) 에 대한 훌륭한 토론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

당신의 질문들은 당신의 교수방법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당신이 발견한 놀라운 관찰들을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돕기 위하여 얼마간의 질문들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교사들이 사용하는 얼마간의 양식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질문방식에 따라, 경청자들이 이야기하는 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이미지를 쌓아 올려 갈 것이다. 이야기하는 자의 목소리 억양, 표현, 몸짓과 질문들의 구성에 의하여, 다양한 인물 모습들, 즉 엄격한 교장선생님 모습, 인정 많은 교수, 혹은 동료 등산가 등의 모습을 볼 것이다.

엄격한 교장선생님 모습은 오직 그 이야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엄격함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의 정답이 있다. 만일 내가 정답을 말하지못하면, 공적으로 창피를 당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하기를 두려워하고 답변을 많이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은 영적인 정보들을 추론하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기를 격려한다; 우리는 엄격한 교장 선생님처럼 행동하기를 원치 **않는다!**

인정 많은 교수 스타일은 친절하고 미소 짓는다. 그러나 질문 속에 내포된 말들은, 정답은 이미 알려져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이런 교수형 이야기군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인지한다; "나는 지식의 산 꼭대기에 서있다. 당신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당신도 획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꼭대기에 올라오기에 충분할 만큼 스마트할 것인가? "

학습자들은 토론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 그러나 당신이 조심스럽게 주목한다면, 답을 하는 적은 숫자들은 재빠르고 바른 답을 하기에 익숙해 있는 참여자들인 것을 알게 될것이다. 선택된 이 몇 사람들은 이런 양식의 이야기하는 자를 좋아한다. 이들에게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아는 엘리트집단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즐길 만한 일이다.

불행하게도, 엘리트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참여자들의 복지에 대하여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뒤쳐진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스마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감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지않는다.

그러나, 함께-오르는 이야기 군들 (fellow-climber storytellers) 은, 모든 경청자들이 함께 산을 오르며, 함께 정보를 발견한다고 느끼도록 능숙하게 이들을 돕는다.

함께 오르는 사람 (fellow-climber) 의 역할은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써 갖추어야 할 가장 도전적인 개성이다. 그러나 이 역할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대가가 있는 선택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자연스럽게 초청하고 참여자들과 이야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회를 극소화 시킨다.

어떤 워크샵의 아침식사 시간에, 한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자들이 동료 등산가가 되는 가치에 대하여 확인시켜주었다. 이 숙녀는, "나는 당신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로, "무엇인데요?" 라고 답했다.

"당신은 답을 모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답을 찾도록 한 그 모든 시간들이요."

"오! " 나는 설명했다. " 좋군요. 저는 **오직 그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것의 모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세계를 다니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답의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기 원했어요. 그래서 답을 말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몰라서 우리에게 답을 발견하라고 했던 그 모든 곳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을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좋았어요. "

음?----나는 생각했다. 내가 할 일을 했구나. 우리가 탐색해 내고 그룹이 발견했었든 대 부분의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계속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녀와 다른 참여자들은 전심으로 참여했었다. 그들은 생각하며 탐색할 "승인" 과 자유를 느꼈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함께 등반하였었다.

내가 내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들을 제시할 때 마다, 참여자들은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영적인 관찰과 영적인 적용들--- 을 계속 발견 한다는 것을 주지해 주기 바란다. 이 새로운 "발견들"은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때는 매우 드물다. 이 보화들은 생기 발랄한 토론과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통찰을 주시는 성령님의 친절한 방법에 의하여 발견되어진다. **오직 그 이야기** 포럼은 개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들을 발견하도록 불을 붙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방금 이해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동반 등반자 (Fellow Climber) 가 되는 방법

어떤 말을 사용하여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참여자들을 격려하든지 혹은 실망시키든지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만일, "자 아브라함은 몇 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왔지요? " 라고 질문 한다면, 경청자들은 정확한 답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나는 정확한 답을 말해야 해.* 라고 스스로 생각 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질문은 대부분의 토론하는 학급 분위기를 차단시킨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대신에, 당신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그래서, 몇 마리나 되는 낙타를 아브라함이 가져오게 됐더라?..." 라고 질문한다. 당신의 몸짓, 얼굴표정, 그리고 목소리도 함께, 스스로 숫자를 기억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원하여 도우려는 마음을 격려한다. 만일 누가 " 12 " 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 글쎄, 어디... 12 혹은 약간 더 많은지?"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 14 마리 였어" 라고 말하면, "아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14 마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했습니다." 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더욱 자유롭게 응답 할 것이다. 전체 인도하기 (Lead Through) 부분이나, 관찰 혹은, 적용 부분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완전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려 하기보다는, 돕고 싶다는 느낌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들의 생각을 제시하기에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사용하는 질문의 형태에 따라 사람들을 위한 분위기가 창조된다.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강의 할 때, 듣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인지한다.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론을 배우는 한 방법으로써 경험한 적이 많이 없었다. 이야기 하는 자는 비평적인 사고 형태의 질문들 (critical-thinking-type questions) 에 답하는 새로운 경험을 이 참석자들이 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옳은" 답을 기대하는 교장선생님 모습을 적게 보여줌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다.

비록, 정보가 밖으로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하는 자는 경이로운과 기쁨 (wonder and delight) 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오, 나는 그것이 좋아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당신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 정말 훌륭한 생각 같은데요." 등등.

가끔, 사람들은 이야기에 정답이 아니거나, 이야기에는 맞지 않는 생각들을 나눌 것이다. 동반 등반자로써,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다시 부드럽게 유도하여 (redirect) 확인 질문 (clarification) 을 함으로써 교정한다. 이 유도 (redirection) 는 대답하는 공로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한뒤에,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이야기에 없다고 당신은 확신한다. 당신은, " 아, 저를 좀 도와 주세요. 그것이 이야기 어디에 있나요? " 라고 말 할 수 있다. 비록 그 사람 말이 이야기에서 합리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도, 당신의 부드러운 반응은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 줄 것이고 공적으로 지나치게 교정되지 않도록 한다. 그 사람은 계속 자유를 느낄 것이고 계속 탐구하도록 격려될 것이다.

만일 어떤 아이디어가 나누어지고, 그것이 당신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되거나 의문이 된다면, 이점을 말할 수 있는 다른 부드러운 방법은 그룹에게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 음, 흥미롭군요. 그 점에 대하여 다른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들은 이야기에서 이점을 어떻게 보는지요? "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그룹회원들과 함께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당신은 학교교장 선생님이나 교수님 자리에 자신을 거듭하여 올려놓지 않게된다. 성령님께서 교장선생님이 되도록 허락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당신이 어떤 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 할 수록, 사람들은 더욱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이점이 당신이 질문을 하고 토론을 이끌 때 보이려고 하는 개성이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질문에 답하기를 훨씬 더 많이 망설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틀린 답을 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학급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답이 불확실하여, 정답을 추구하는 종류의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동료 발견자 (the fellow discoverer)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도움을 준다. 조건적인 단어를 질문의 서두에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 혹시, 만일에..... ? (I wonder if .....?)", ".....일 수 있을지? (Could it be.....?)", "혹시 이런 가능성일 수도.....?(Does this seem like a possibility.....?), "이것은 마치....처럼 보이는지....? (Does this look like.....?)" " 무엇을 보시는지요.....? (What do you see....?), " "이것은 무엇을 뜻 할까요? (What does this mean...?)"

오직 그 이야기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아마, *어떻게 질문 할 것인가* 일 것이다. 당신이 무지하게 보이거나, 실지로는 아는데, 아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동료 학습자로써,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이 아는 것에 흥미를 갖고있는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질문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실행 둘째 단계 : 영적인 적용들에 대한 토론

영적인 적용. 앞에서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보았을 때 놀라운 영적인 적용 몇 가지를 발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발견들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실지를 생각해 보았다.

오직 그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경청자들이 우리들이 발견한 영적인 적용을 토론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이야기하는 자에게 도전이 되지만 큰 상급을 안겨준다. 당신은 당신이 발견했던 보화들을 경청자들에게 그냥 바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시험을 저항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 당신은 이야기 속에 있는 보화들을 경청자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을 디자인 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래의 몇 가지 샘플 질문들은, 그 중 어느 것이든지 사용하여 **마르다 - 마리아** 이야기 에 있는 영적인 적용의 얼마를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돕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영적인 적용을 할 때도,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한다. 질문을 하기 전에 매번 마다, 이미 발견된 영적인 관찰을 포함한, 이야기의 작은 부분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후 질문은,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경청자들의 개인적인 적용으로 조금씩 가까워 지면서 구체적인 개인적인 적용이 되도록 움직여 가야 한다.

1. 이야기에서, 마리아는 봉사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아래 앉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청자들이 다음과 같은 적용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아래 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중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

2.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기다린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목회사역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선택합니까? 이런 현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어납니까?* [답을 기다린다.] *오늘 날, 목회사역 (혹은 우리가 하려고 선택한 다른 일) 에서 우리가 탈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시간이 빼앗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반사적인 상태나 행동은 어떠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3. *마르다는 선한 일을 할 것을 선택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종류의 선한 일을 선택할 여지들이 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기에 선해 보이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의 일이라 할 지라도, 선택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요청하시거나 하기를 원하기 조차 하시지 않는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까? 당신 자신이 그렇게 했거나 혹은 그런 일을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한 선택들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어떻게 우리를 잡아당깁니까? [답을 기다린다.] *만일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사역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을 그 일로 인한 분주함 때문에 빼앗기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4. *마르다는 그날의 계획이 자신의 것이었고, 예수께서 마리아가 봉사하지 않을 것을 허락하고 계셨는데도, 마리아가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돕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취하여 놓고 그들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책임이 지나치게 많다고 쉽게 추측해 버리는지, 아니면 그 책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 하는지 입니다. 어떤 것들을 당신은 관찰했습니까?*

5.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돌보지 않는다고 담대히 예수님을 비난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떤 우연한 상황에 대하여서나, 혹은 심지어는 자신들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까*? [답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비난할 만큼 가 놓고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합니까?* [답을 기다린다.]

6.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은 교사시며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주 (Lord)" 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예수를 그녀의 인도자로써, 그녀보다 뛰어난 자로써 그를 우러러 본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다음, 그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날에도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자신들이 만든 문제 인 데도), 우주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 드리는지요? [답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답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불러 놓고는 우리들 스스로가 만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분에게 말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기다린다]

7. *비난에 관하여----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 할 수 있는 일 보다 더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상관치 않으십니까? " 라고 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8. *우리는 마리아가 선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의 그 결정을 비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선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존중 받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정, 일터, 학교, 사역지,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 납니까*? [답을 기다린다.]

9. *좋은 선택을 하고도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의 느낌은 어떠하겠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무례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0. *마르다처럼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묘사해 보십시오.* [답을 기다린다.]

11. *한편, 마리아처럼,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은 일할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이런 모습을 당신 (이나 혹은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 에게서 발견 한 적이 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12. *나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다른 것들, 아마도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까? [잠깐 숨을 돌린 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비추어볼 때, 이 정신적인 방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을 기다린다.]

*13.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학습장을 떠나서 봉사를 돕기 위하여 나가도록 말하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가족이나 문화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난하는 결정들이, 예를 들면---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 혹은 보다 깊은 믿음의 헌신, 혹은 풀타임 사역 속으로 들어가려는 선택 등— 오늘 날에도 행하여 집니까? [*답을 기다린다.] *어떠한 결정들이 이러한 갈등을 일으킵니까?* [답을 기다린다.]

14.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한 선택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선택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녀의 선택을 방해 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며 무엇을 하지 않으실 것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 의미가 있다면, 어떠한 의미들이 있습니까*? [답을 기다린다.]

15. *어떤 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쉰 후에] 그 종교에서,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신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든지 혹은 신성으로 감명을 주기 위함이든지 간에, 그 신성이나 신성들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 신성으로부터 신성을 무료로 받는 종교인가요? 어떤 행동을 예수께서는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서는, 이야기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답을 기다린다.]

16. *우리가 보았듯이, 마르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자, 그녀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탓했고 자신은 제외시켰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든 일을 자신이 완수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예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자원을 못보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과잉 충성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에*

대하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답을 기다린다.]

17.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선택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의 문화와 그녀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우리는 문화나 혹은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제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 를 사용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성경 이야기의 제시를 끝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해 오든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역의 시간을 끝낼 수 있다. 기도로 끝낼 수도 있고, 창조적인 지원 (아래와 같은) 이나, 혹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질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 이번 한 주간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부록 B : 표본 이야기를 통한 여정, 더 많은 연습을 제공한다.

창조적인 강화 (Creative Reinforcement).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부산물로써, 사람들은 배운 이야기를 잘 소유 할 것이다. 이야기를 완전히 탐구하고 적용한 후에, 이야기군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화되도록 도울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5 일 동안의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은 21 개의 성경 이야기를 깊게 접하게 된다. 그 후 사람들은 배운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복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그들의 기억 속에 담아두기 위하여 연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참석자들에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이야기를 서로에게 다시 해 보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노래나 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말로 하는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구상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 창조적인 강화는 특별히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과 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이야기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문맹자들과 기록된 성경이나 혹은 기록된 성경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 않은 언어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

재미있게도, 해결 방법들은 항상 쉽다 ---그 방법들을 발견한 후에는! 이 딜레마 속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해결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만일 기록된 성경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워크샵 동안 그들의 모국어로 이야기를 한다...이것은 워크샵

동안 사람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워크샵을 하는 동안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오직 그 이야기에서 몇 년이 지난 후, 우리는 "가슴 포켓 (Heart Pocket)" 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한 이야기를 배우면, 그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포켓 에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말했다.

후에, 우리는 몇 백개의 이야기를 배운 문맹자들 가운데서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의 목록들을 기록 할 수 없었기 때문에—그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슴 포켓 책 (Heart Pocket Books) 을 발전시키도록 자극했다. 명함 크기만한 각 페이지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마음에 즉각 기억시킬 수 있는 기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암기해야 할 성화들이 아닌; 그 이야기에 특별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선으로 그려진 그림들이다. 그 "페이지들"은 라미네이트 되어 큰 열쇠고리에 끼어져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가슴 포켓 책이 된다. (많은 이야기를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생산적인 해결책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

제 6 장: 토론을 인도할 때의 일반적인 유의 사항

토론이 진행될 때, 질문을 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험과 성경지식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무엇이 토론되어야 할 것인지 아시고 당신이 가르칠 때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당신께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이야기들을 토론 할 때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듣기와 응답 (Listening and Responding**) 이다. 이야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사람으로써,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적용들에 대하여 당신은 응답해야 한다. 그처럼, 토론시간에 당신은 듣고 응답한다.---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응답한다.

가장 사랑하는 장로님

어느 날, 어떤 특별한 한 마을에서 여러 종류의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혜로운 정보들을 말하는 장로님의 주위에 가까이 앉는 것을 선택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해야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앉아서 듣는다고 알려진 장로님께로 가서 앉기를 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한 특별한 장로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가장 사랑하는 장로님" 이라고 불렀다.

비록 이 가장 사랑하는 장로님이 많은 지혜로운 정보를 말 하지만, 그는 역시 잘 듣는다. 그러나 이 기술을 너머서, 이 가장 사랑 받는 장로는 첨가된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발견할 시간을 줌으로써, 그의 지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 비록 그는 이 동네사람들 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으나, 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들을 나누고 제공하기를 격려한다. 그는 종종 말을 하지 않는다---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그에게 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가장 사랑하는 장로님은 그의 아들들을----그의 아내와 딸들까지도 그들의 생각을 말로 하도록 격려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 하도록 하는데 있어 두려움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위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인도하는 사람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면 줄 수록,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지도력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지도 방식을 본따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발견하도록 격려 한다. 이 장로님의 자녀들은 현명하고 확신있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그들의 아버지의 길을 걷고있다.

성경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그의 사역 초기에 5,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에게로 왔든것을 이야기 하고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음식이 필요했었다. 예수께서는 처음에 빌립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물으시고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할 만큼 성숙함을 보이지 못 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답을 주셨는데 한 소년이 제공한 음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음식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듭 거듭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견해를 사용하셔서 그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셔서 생각하고 답할 기회를 주셨다. 삼년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믿어서, 지혜를 적용하도록 격려하심으로써 계속하여 훈련 받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인도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

오늘날, 성경 말씀들이 **오직 그 이야기** 방식으로 토론 될 때,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와 사역지의 지도자 들이다. 거의 대부분 그들은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거나 인도 받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들 보다도 지식이 더 많다. 이 지도자들이 토론을 하는 동안 이들이 항상 먼저 답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대하여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정보를 나누기 위해 현명하게 기다린다.

이 현명하고 자신감 있는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답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본다. 가장 사랑 받는 장로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지도자 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확신감에 영감을 주는 방법을 알고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언제 그들의 깊은 지혜가 필요하며 언제가 그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어야하는 적기 인가를 안다.

듣고 응답하는데 대한 도전들

당신이 **오직 그 이야기**에 포함된 기술을 익히기를 처음 시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오직 그 이야기**에 새로운 사람들은, 오직 그 이야기 제시; 이야기 하기, 과정을 지나는 순서와 질문하는 일에 대하여 강하게 집중한다. 재미있게도, 이 새로운 제시자들은 종종 가장 중요한 것---**사람!** 을 빠뜨린 채 과정에 매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직무는 성경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고 질문하는 것을 잘 듣지 않고, 그들의 조력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토론도 없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역할은 단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새로운 모험은 편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많은 값진 보화들을 발견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에, 그 이야기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당신의** "제시 (presentation)" 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당신**이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말 **대신에**, 질문들을 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라. 이야기에 **대하여** 그들과 말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동안, 이야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당신은 대화를 촉진 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준비한 질문들을 얼마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준비하면서 발견했든 보화들을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질문을 통하여 얼마간 발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원고 없이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흥미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이야기에 대하여는 긴장을 풀고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가? 듣기와 응답이 (Listening and Responding)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의 정의 (definition) 는" 듣기와 응답" 이라고 말한다.

행동으로 듣기와 응답하기

오직 그 이야기에서 탐구한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는 시편 23 편이다. 성경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이들 까지도, 이 성경부분에 친숙하다. 그러나 천천히 이 시편 속을 통과 하면서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깊이 듣도록 돕는 질문들을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불교권의 우리 책임자인 라메쉬 (Ramesh) 가 시편 23 편을 **오직 그 이야기**방식으로 가르쳐 왔었다고 말했다. (지금 네팔에 살고 있는 이분을 내가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는 시편을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이 재미있는 착상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게 가르쳐 보겠습니까? " 라고 요청했다. 그날은 내가 결코 잊지 말기를 바라는 날이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내가 이야기와 이야기 하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느리게 듣는지 보라. 또 라메쉬가 나를 보화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실마리인 빵 가루를 계속 놓다가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내가 보화를 발견 하도록 하는 것을 보라. 그는 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그는 이야기 전체에 대하여 질문들을 했다. 그러나 라메쉬가 가르침을 따라 실행한 정보의 한가지 특별한 요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뛰어나다. 그가 전체 이야기를 발전시킨 많은 질문들을 여기서는 생략하고 한가지 특징만 말하겠다.

라메쉬는, "처음에, 양은 목자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나는 수년 전에 배웠든 답을 했다. "나의 목자. 이것은 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라메쉬는 내가 그렇게 앞서 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조심하여 듣는다. 오직 그렇게 한 후에야 얻은 정보를 우리에게 적용한다.

라메쉬는 나를 천천히 가면서 이 익숙한 구절을 더욱 자세히 보도록 강요했다. 그는 계속하여 내가 이야기를 듣도록 만들었다.

나는 그의 기술을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듣겠다고 했다. 솔직히, 나는 나의 학생이, 내가 잘 알고, 많이 가르쳤으며, 심지어 기사들에서도 썼든 이 구절에서 내게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라메쉬는 "이것은 양이 하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라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양은 목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양은 목자를 어떤 관계에서 말합니까? "

"당신의 뜻은 양이 목자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he)'?
라고 나는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라메쉬는 응답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어디에서 보는지 보이지 않습니 까? "

"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양은 목자와의 관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보십니까? 라미쉬는 내가 아직 발견 하지 못한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듯이, 나를 강하게 눌렀다. (**오직 그 이야기** 에서는 우리가 발견했던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하여 강요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던 사람으로써, 그는 나와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특별한 듣기와 응답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라메쉬는 천천히 가면서 이야기에 관하여 생각하도록 나를 계속 압박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음..., 만일 양이 인도 되었다면, 목자는 양의 앞에 있다고 추측이 가는데요? "

"네! 맞습니다. 라미쉬는 말했다. " 자 이제 이야기 속에 있는 죽음의 골짜기 부분으로 계속 가 보세요. 양은 목자를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그 (He)? " 나는 답했다.

"오! 다시 보세요," 라미쉬는 나를 재촉했다. "이야기는 말하기를 '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두려워 하지 않겠다고? 양은 목자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양은 목자 와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

"잠깐," "그것은 '당신 (Thou)! 와우. 변화가 있군요! 나는 이전에 결코 이점을 의식한 적이 없었어요. (영어와 원어에는 이인칭, 당신으로 되어있음: 역자주) 이제 양은 목자에게 말을 하고있는 중이네요. 목자에 관하여가 아니라! 이것은 풍성합니다".
나는 부지중에 말했다.

"네. 계속 보십시오. 목자가 어디 있는지 보입니까? 무엇이 변하였지요? 그것을 보십시오!"

"무엇을 보라고요?" 나는 물었다.

"어떤 또 다른 것이 변하였는지 보십시오. 그것을 보십시오. " 전에는 목자가 양의 앞에 있었지요. 지금은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케이, 이제 보이네요," 나는 불쑥 말했다. "처음에는 목자가 양의 앞에 있더니, 지금 은 양과 함께 있군요. "

"네! 처음에 그는 앞에 있었고, 지금은 곁에 있습니다," 라미쉬가 말했다. " 그러나 그것 이 모두가 아닙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야기는 다시 " 당신" 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당 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 라고 말합니다. 만일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 을 부으려면 목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봅니다! 양의 머리 위에! 목자는 양 위에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라미쉬는 격려했다. "이야기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영 나

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임재가 또 다른 어디에 있을 것이라 느끼는지요? 그것을 봅니까?

"네, 봅니다. 놀랍습니다. "

지금은 라미쉬가 말한다. "목자는 앞과 곁, 위에 그리고 뒤에 있습니다. 그는 양의 모든 주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적용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둘이서 이야기에서 함께 보아 왔든 것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적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 모든 새로운 발견의 요소에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곁에서, 위에서, 뒤에서 존재하고 계시는지가 우리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자각의 시간이었는지!

후기. 후에,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늦게 남아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에게 얼마나 거듭 자비를 보여주시고 도와주셨는지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등들을 소유하고 계셔요! 매일 우리가 만나는 도전들을 말할 때 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지원 하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나가고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아무도 너의 등 뒤에서 너를 해치지 않음을 알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 라고 말했다.

그런 후 그 시편 이야기가 나에게 돌아왔다. "와!, 그것은 시편 23 편이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등을 막아주셨어.' 라고 표현되는거야!

흠... 교사가 학생에게서 배운다? ---둘 다 익숙한 성경구절을 듣는다.

이러한 교환, 토착인 신자들이 유럽과 서부에서 간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도 (India), 토고 (Togo), 모잠비크 (Mozambiqe), 니제르 (Niger), 그리고 필리핀 군도 (the Philipppines) 등과 같은 여러 나라의 서양인 선교사들이 토착인 강사들에게서 훈련 받는다.

결국은, **오직 그 이야기**는 사람이 한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전하는 일은 오직 지적으로 상류층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맺게 한다. 실제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 토착인 강사들은 오직 그 이야기의 3 대째와 4 대째 학생들이다.!

성공으로 이끄는 세부상항들.

우리는 이 보고사항들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어서 **오직 그 이야기**에 관하여 계속 배우고 **오직 그 이야기**의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돕기를 희망한다. 글을 아는 학생들에게 닥아가는 부분을 시작해보자. 비록 당신이 질문들을 기록하지 않고는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이야기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원하는 질문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 자체가 당신에게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하여 당신이 얼마간의 현명한 상담자 모형의 질문 (Wise

Counsellor-type) 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이야기 전체를 통과하라. 이야기 자체가 기억할 방법이 된다; **이야기가 당신의 노트가 된다!**

소개 부분을 다시 생각하기. 이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화들을 발견하여서, 당신이 준비한 소개부분에 정보를 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소개 부분에 있는 정보가 이야기 내용 속에 실제로 있다면, 소개 부분에서 그 사실들을 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창세기 12:1-9 까지의 이야기 소개부분을 처음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자기 친족과 그의 나라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준비를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보화를 찾을 때 그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당신은 소개부분에서 그 정보를 빼 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 이 이야기에 관하여 아주 작은 정보를 첨가한다면 그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통찰이 생긴다면, 소개 부분에서 그 정보를 말하라.

또 다른 예는 **마르다-마리아** 이야기의 소개이다.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많은 보화 중 하나는 많은 손님들을 위한 정교한 식사를 준비하기로 한 마르다의 선택에 기초한다. 또 하나의 보화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주인 노릇을 함으로써 불경스러움을 보이는 충격이다.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는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말만 듣는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이야기에서 말하여 지지 않는다.

토론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수께서 땅 위에 사셨을 때, 그와 함께 다니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불려 졌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떠나셨다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들만 데리고 가셨다고 말하여 지지 않는 한,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경청자들이 알도록 도움을 준다.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써, 당신은 한 사람이나 혹은 더 많은 사람이 출석했어도 그들은 당신 이야기에서 듣고 소개시간에 들은 것 외에는 성경지식이 없다고 추측해야 한다. 그래서 성공적인 **오직 그 이야기**토론을 하기 위하여는, 당신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정보가 당신이 말한 소개부분이나 혹은 이야기 속에 항상 마련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이야기하는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이야기들을 가르쳐 왔다면, 이전 시간에 함께 들었든 이야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에서 질문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안에 핵심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잘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 속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가끔, 성경에서 따온 정보, 예를 들면, 문둥병과 관련된 하나님의 법칙들, 안식일, 먹는 것, 혹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는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면 이야기 속의 사건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어쨌든, 소개에 들어가는 어떤 것도 성경에서 와야지 성경 밖의 자료에서 갖고 와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성경만이 유일한 불변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원임을 안다. 나아가 성경 밖의 자원들을 사용함으로써, 신학교육이나 주석책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거나 훈련하

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나눌 수 없다고 느끼게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당신은 이야기 토론을 완전히 마친 후에, 이야기 속에서 확실한 상징이나 중요한 예언적 형태가 있으면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경청자들에게 그것을 말하되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로 말하여서 그들 자신이 그 뜻을 발견하도록 도우라. 당신은 그들을 다른 이야기나 혹은 성경 속의 다른 부분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렇게 하라. 그것을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말하라. 만일 당신의 경청자들이 당신이 제시하는 처음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보다 깊은 영적인 부분들을 붙잡았거나, 아니면 단지 성령께서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라!.

이야기에 대하여 첨가된 정보는 경청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오래 후에 생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든가 혹은 이와 비슷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당신은 어떤 예언적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포 함되어 있는 부분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두번째 이야기는 신약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4-9 에 있는 **모세와 구리 뱀** 이야기를 당신이 하고 그룹원들은 발견과 영적 적용을 다 했다고 하자,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토론 하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성경에서 훨씬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발견은 **모세와 놋 뱀의** 이야기에 있는 것 보다 더욱 많은 도움을 줄 것 입니다. " [시간이 되면 짧은 소개를 한 후에 요한복음 3:1-16 을 말하라. 만일 시간이 촉박하면, 주된 부분인 1 절-13 절을 소개와 함께 하고 14 절-16 절에 있는 예수께서 종교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짧은 "이야기"를 하라. 이것을 오직 그 이야기식, 즉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나 대화체로 말하라.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4-16)

이야기 듣는자들의 응답을 듣기. 사람들의 응답에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개인적인 질문을 듣는다. 여기서 얻은 당신의 통찰력은 계속하여 기본 질문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을 "순간에서 오는 교훈 (teaching from the moment)" 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질문들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것 이라야 한다.
이 질문들은 경청자들이 영적인 발견을 향하여 움직이게 한다. 각 인물들의 행동과 한 말들을 다시 보라. "왜 (why) "라는 질문을 조심하라. 이 질문들은 성경으로 뒷받침 할 수 없는 공론과 추측을 갖고 올 수 있다. " 무엇 (what)" 이라는 질문이 보통 최상의 질문 이다. 흥미 있게도, 몇 가지의 "무엇"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소리 없는 질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관찰 질문들을 하라. 이야기의 첫 작은 부분을 시작한 후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이 첫 부분에 있는 어떤 것이 이사람 (이야기의 이 부분에 있는 인물을 선택한다.)의 믿음에 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는 이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부분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라고 말 하

든지 혹은 "이곳에서 우리는 성실함을 봅니까?" 라고 질문하라. 이야기의 각 부분을 탐색하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들을 통하여, 무례함, 두려움, 혼돈, 탐심, 친절, 용기, 신뢰, 혹은 지혜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지 주목하라.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방금 말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정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라.

"예", 혹은 "아니오"의 응답을 요하는 어떤 질문에서든지, "예" 라는 대답에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그것을 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마무리한다.

점차적으로 이야기에 있는 진리들을 경청자들이 적용하도록 한다. 영적인 적용을 위하여 탐색한 보화에서 토론을 계속하는 동안,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이들이나 혹은 이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야기에서 보는 사람들과 같은 느낌이나 반응 (의심, 두려움, 믿음, 희망, 혼돈 등등)을 했든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라.
"예" 라는 소리를 듣거나 혹은 "예"를 표현하는 몸짓을 보거든 " 어떤 분이든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 라고 물을 좋은 기회이다.

개인적인 적용을 나눈다. 적용토론이 끝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나누어도 좋다. 혹은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질문의 기본 요소.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그 이야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야기 밖의 정보. 만일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이나 혹은 적용부분이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야기 밖의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야기를 소개할 때 그 성경적인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첨가된 성경부분은, 제시된 성경이야기 속에서 증명이 된 모든 적용들이 말하여진 후에 어디에 있는지 알려질 수.

이것은 오직 드물게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야기 밖의 성경을 사용하면 경청자들이 이야기만을 경청하는 대신에 이야기 하는 사람의 연구를 의존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질문은 앞에서 한 이야기 속에서 경청자들이 들어서 알고 쌓아둔 성경 정보들 위에서 질문해야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훌륭한 답변들. 경청자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 답변을 했을 때, 그들을 격려하라. 예를 들어서, "훌륭한 답변입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요." "이해가 가는데요." 등등.

별로 좋지 않은 답변들. 경청자들의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틀렸다면, 잘못을 당신에게로 돌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군요. "혹은 "아마도 제 질문이 잘 표현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등으로 말 할 수 있다.

만일 경청자들의 답변이나 질문이 주제와 아주 동떨어져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들이 다음에

다룰 수 있는 주제이군요." 혹은 " 아마도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어떤 질문들은, 만일 당신이 답하게 되면, 방향을 잃고 그룹원들이 주된 길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룹이 크거나 혹은 시간이 짧다면. 질문을 하고 경청자들의 답변에 응답하는 것이 **오직 그 이야기**를 사용하는 표준 방법이다. 만일 시간은 허락되지만, 답변을 주고 받기가 난처하거나 상황이나 그룹크기가 답변하기가 어렵게 되면, 다른 선택이 있다. **오직 그 이야기**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수사학적인 질문방법 (rhetorical questions) 을 활용할 수 있다. (수사적인 질문 형태의 질문이 주어지면, 경청자들은 소리 내어 답변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그러나 질문은 경청자들이 답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하거나 그들의 생각이나 믿음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교사들은 경청자들이 두뇌에서 반응에 필요한 시간, 약 3-4 초가량,을 주기 위하여 말하기를 중지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빈 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경청자들은 정신적으로 합류하기가 어렵고 수동적인 경청자들로 취급되어진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졸게 할 수 도 있다)

큰 그룹의 본보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치심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산상 수훈으로 알려진 강연이 있다. 마태가 기록한 이 강연은 5 장에서 7 장에 이른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 예수께서는 언덕에 오르셔서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앉으셨다. 완전한 전달자 이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잘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강연속에서 그가 가르치시는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익숙한 것과 비교하시는, 언어로 그림 그리는 방법 (word picture) 을 사용하셨다. 그는 또한 비유를 사용하셨고, 실제로 그 중에서 열여섯 번의 수사적인 질문을 하셨다! 예수께서는 경청자들이 질문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의 본보기를 왜 닮지 못하겠는가?

정확성 유지 ; 복습의 가치

오직 그 이야기 형태로 토론하는 유익중 한가지는 "복습" 이라는 강한 도구이다.

성경 이야기가 순서대로 제시될 때 오직 그 이야기에 있는 복습은 가장 가치가 있다. 이야기가 시작 되기 전에 교사가 소개를 하는 대신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그전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와 발견한 것에 대하여 간단한 복습을 시킬 수 있다.

수업시간에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거나, 혹은 고정 회원이라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지난 이야기를 복습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참여치 못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 복습에 대한 책임을 학습자들에게 주는 것은 기억에서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회원들에게는 전에 발견한 보화들과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복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보가 견고해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복습장은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반원들에게 지난번에 모였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나누는 기회가 주어지면, 교사는 지난번 이야기와 보화가 정확하고 잘 이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지난 시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확실치 않고 이야기를 말 할 수 없다면, 교사가 모든 반원들을 위하여 복습할 신호가 된다. 앞 이야기가 그것을 토론했든 사람들

에 의하여 잘 이해되기까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다.

제 7 장 : 정확한 적용 – 코끼리 찾기

이야기 하는자들의 탐색 기술이 증가하면, 그들이 공부하는 성경부분의 앞부분에서 작은 것들을 놓쳤다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발견이 주는 감동이란! 그러나 그 작은 부분들이 발견될 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안목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 하는자들은 성경이 역사서 이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야기 하는자들은 영적인 메시지나 이야기가 갖고 오는 작은 부분의 영적 메시지라도 놓쳐서는 않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은 다윗은 훌륭한 양치는 기술을 가진 어린 소년이었다고 설교한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다윗은 더 나아가 거인을 상대하고 정복하기에 충분한 용기와 확신이 있었다. 그러고서 우리는, "당신은 다윗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승부를 두고 용감해야 합니다." 라고 적용한다.

확실히 좋은 메시지이다. 그러나 이야기에 있는 가르침이 이것이 모두일까?

비록 이야기에서 위에처럼 설교 한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해도, 이야기에 있는 보다 더 큰 영적인 메시지를 지나쳐버렸다. 이야기에 의하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은 거인을 패배 시키고 거짓 신들을 믿는 팔레스타인 군대를 대항 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의 왕 사울은 거인과 거짓 신들을 패배시킬 한 분 참된 신을 모두가 의지해 왔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그들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들의 거인과 그들의 거짓 신들은 모두 패배하였다.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많은 가치 있는, 작은 진리들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 참으로 들어있는 최우선적인 영적인 진리들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당신은 이야기 전체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라. 우리는 그 작업을 "코끼리 원리 찾기 (finding-the-elephant principle)" 라고 부른다. 아래의 우화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로써, 이야기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붙잡을 때 이야기의 전체적인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 각자를 일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코끼리를 놓친** 경우:

아마 당신은 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전에 한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소경 다섯 명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와, 당신들은 코끼리 곁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해 주십시오." 즉각, 그 네 사람은 그들의 손에 먼저 닫는 코끼리의 부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꼬리를 만져서 코끼리는, "한 작은 나무 가지."라고 묘사했다."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잡고 돌린 후, "코끼리는 나무의 큰 잎새임에 틀림없어", 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진 후 등에 올라타면서, "그것은 긴 뱀이야! "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배 둘레에 손을 뻗치려 노력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설명했다, "코끼리는 큰 둥근 바위야.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는 바위처럼 단단하지 않아---그리고 그것은 움직여!"

다섯 번째 소경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오, 나는 코끼리를 묘사하기 위하여 만져 볼 필요가 없어. 나는 코끼리의 큰 트럼펫 소리를 여러 번 씩 들어왔지. 모든 사람들은 코끼리는 하나의 큰 음악 기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은 코끼리의 한 부분씩 묘사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맞추어져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전체를 놓쳤다. 그들은 코끼리를 놓쳤다.

우리는 성경이야기 속에서 보화를 찾을 때, 모든 각각의 이야기에는 전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전체를 "코끼리"라 부른다. 이야기가 길 때는, 종종 그 안에 몇 개의 부분이 있는데 연극에서 일 막 이상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긴 이야기 에서는, 각 막 혹은 각장 마다 그 자체가 진리인 코끼리를 갖는다.

가끔, 우리는 익숙한 이야기를 읽어 갈 때, 그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잘 듣는데 실패하고 만다. 소경 가운데 한 사람은 코끼리가 악기라고 너무 확신 한 나머지 코끼리에 대하여 조사해 볼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았든 것을 기억하는가? 우리 역시 성경 내용에 대하여 이미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몽땅 놓치고 만다.

우리들이 전체 이야기를 정확하게 붙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심하여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코끼리 발견하는 실례.

다음 이야기를 먼저 읽는다. (막 1: 40-45, 대화체). 그런 후 코끼리를 찾기 위하여 시간을 갖는다.

> 그리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그에게 빌면서, "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손을 내 미셨고, 그에게 손을 대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원한다. 깨끗해 지거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마자, 즉각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 문둥병 환자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후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그를 곧 떠나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너를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너의 깨끗함에 대한 제물을 드려라. 제사장들에게 너의 간증으로 이것을 하여라. "
>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 사건에 대하여 소문을 사방에 퍼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시내에 공공연히 들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주 외딴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경이롭고 중요한 보화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코끼리를 보는가? 종종 교사들은 이것을 놓친다.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본다:

1.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었든 그 사람의 믿음.
2.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자원하신 마음
3. 예수님의 치료 능력.
4. 예수님의 동정심과 부드러움.
5.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 그의 사랑을 보여주심.
6.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예수의 정체.

그러나 그리고서, 교사들은 이외에 다른 관찰도 더한다:

1.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치료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대신에 그를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다.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을 자신 속에 간직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료에 대하여 나누고,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간증을 하였다. 그러고서 기쁨과 감사에 대한 설교로서 적용이 된다.

2. 치료된 사람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비록 말 하지 말아야 했으나, 그가 느낀 기쁨 때문에 그는 증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용은 증거의 중요성에 관하여 만들어 진다.

3. 이 사람의 자신의 치료에 대한 복받치는 감격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예수께서는 시가지 밖으로 나가셔야 했고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로 왔다." 이 사람이 소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하여 올 수가 있었다. 이 적용은 하나님의 섭리가 치료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 질것이다라고 만들어 진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많은 보화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지 살펴보자.

위에 나열해 놓은 아홉 가지의 보화가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개요인지, 아니면 이야기의 깊은 부분이 빠져있는지? 코끼리의 절반만 발견될 수도 있을까? 이야기의 많은 보화들을 토론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치료와 깨끗하게 되기 위한 문둥병자의 믿음 등.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에서 무엇을 지나가버린다거나, 혹은 이야기에 없는 것을 가르치면, 우리는 영적인 완전성을 잃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중요한 구절들을 듣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용감한 증거에 대한 생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여진 사람의 행동을 선하게 생각한다. 결국----그 사람은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게서 행하신 것을 이야기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것을 각색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무엇을 더 발견 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을 천천히 지나가 보자.

예수께서는 치료받은 나환자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는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제 막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지시는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는가?

아니다. 실지로는,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막 깨끗하게 된 상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 하셨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정결하게하는 선포를 받는 규례를 지켜야 했고 제물을 드려야 했다, 이 모든 것을 제사장들에게 간증으로써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되지 못한 기쁨이나, 증거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사용할 때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가? 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글 중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코끼리를 잃어버린다.!

잘 준비된 이야기-교사들은 (storyteller-teachers)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본다. 실제로, 이 이야기 바로 전 부분에서 예수님의 의향에 대한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 예수께서는, "다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역시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내가 온 이유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다음 마을들로 가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문둥병자가 제사장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기 원하셨는가?.....이야기에서는, 예수께서 깨끗게 된 문둥병자에게 그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들에게 간증으로써 모세가 명령했든 것들에 의하여 제물을 드리라고 엄격히 명령하셨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치료된 문둥병 환자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치료된 문둥병자에 의하여 무시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법에 의하여, 그 문둥병자는 "법"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었다.

또한, 문둥병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강한 지시, 즉 제사장들에게 간증으로써 자신을 보이라는 지시가 순종 되지 않았음을 본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이 깨끗함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치료 후,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마을에 들어나게 들어가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치료된 사람은 누구에게 존경을 보였는가? 예수님?.....제사장들?.....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들?..... 그렇다 나도 동의한다. 그 사람은 오직 자신에게만, 자신의 뜻에 만 존경을 보였다!

우리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신중히 취하듯이, 우리는 깨끗이 된 문둥병의 불순종도 신중 히 취해야 한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는 기쁨이나 증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뜻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선물 (life-changing gift)을 요청하여 그것을 받고, 그런 후에 그분의 명령을 불복하면서 행동했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깨끗함, 치료될 수 있었든 문둥병자의 신앙, 또 예수님에 관하여 보는 많은 것들은 위대한 진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문둥병자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의 결과와 그 사람의 고집이 미친 영향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코끼리의 다른 반쪽을 놓친다.

이야기를 조심해서 읽음으로써 (우리의 생각들을 이야기에 끼어 넣지 말고), 전체의 코끼리, 전체의 진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 예수께서는 동정심과 기적으로써, 만질 수도 없는 불결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셨다. 그 깨끗게 된 사람은 그후 자신의 뜻을 따랐고 방금 자신을 치료해준 사람을 존경치 않았고 순종치 않았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요약 된 코끼리이다.

이 문둥병자는 치료자 보다 치료자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든 것 같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본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죄들을 범한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거나 존중함이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들을 한다. 간증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인가? 아니다---실제로, 우리들은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증거는 옳지 않았는가?.....결코 옳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옳게 보이는 것 같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가에 대한 전형적인 본보기가 사무엘상에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울왕의 종교적인 행위를 본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행위의 시간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여러 번의 불순종속에 쌓여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시들에 대한 이 무시 (disregard) 를 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와 비교하신다.

>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 15: 22-23).

이 이야기의 토론을 이끌 때,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의 불순종을 묵과하거나 합리화 하는 것은, 어쩌면 인류의 가장 일반적인 죄일 수 있는 이 죄에게 면허증을 주는 것이다. 가끔 이 죄는 포착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 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대신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은 죄다. 불충분한 순종은 불순종이다.

우리는 불순종의 행동과 결과를 지나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깨끗하게 된 사람의 불순종을 묵과하면,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라타는 결정을 하는 이 일반적인 죄를 격려하는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이, "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르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른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은 결정들을 합니다."라고 묘사하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다.

우리가 이 부분의 구절들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교사들이 이 부분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야기의 전체를 놓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얼마나 쉽게 놓칠 수 있는지 예를 들기 원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이다, 이야기도 그렇다. 이 코끼리의 예화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조심하여 철저히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성경은 여러 번씩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고 말한다.

오직 그 이야기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르칠 때,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읽고, 이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야기 속에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한 이야기에 있는 개개의 부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는지 알기 원한다.

문둥병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들을 우리들이 보게 하신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많은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들에 대하여 보지 못한다. 그 이야기들에서는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마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우리에게 치료와 정결함에 대한 기쁨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구주께 불순종하는 슬픔과 결과에 대하여도 사람들은 배울 수 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불순종을 합리화 하거나 그 부분을 하나로 보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이야기 하는데 실패한 것이며, 신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격려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제 8 장: 문맹자들과 구두 성경학교 (Oral Bible School)

글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이 함께하는 워크샆들

종종 문맹자들이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샆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워야 할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읽혀져야 하든지, 이야기 되어져야 하든지, 혹은 어떤 종류의 음향기로 들려져야 한다.

워크샆에서 녹음된 이야기가 필요할 때는 우리는 태양열을 사용하는 음향기들을 사용한다. 이들은 메가보이스 (MegaVoice) 사와 다른 회사들과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 사와 참여한 사람의 모국어 (가능하면) 로 된 신약성경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The God's Story Project) 는 녹음하는 일과 음향기기에 성경이야기들을 더하는 일을 계속한다.

언제든지 가능하면, 워크샆 후에, 그곳에 참여한 각 마을의 대표자에게 하나의 음향기가 주어진다. 수령자는 음향기의 관리인이 되지만, 다른 참여자들과 그 음향기를 나눈다. 그 음향기는 모두에게 많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배우도록 한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마을이 성경이야기 듣기를 즐긴다. 매우 종종 워크샆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음향기가 매우 값지기 때문에 (이 문맹자들에게는 그렇다), 이 귀중한 선물을 그들의 목사님께 드릴 것을 고려한다. 목회자들은 이것을 그들의 사역에 사용한다. 이 음향기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문맹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더 배우기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더 나아가, 이 녹음된 것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로써 사용된다.

흥미롭게도, 이 안내서에 있는 개요 그대로 **오직 그 이야기 훈련**이 동일하게 세계전역---글을 아는 자들에게나 모르는 자들에게나---같은 워크샆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종 문맹자들이 이야기를 배우는 능력이 더 많다는 것이 보여지며, 이야기를 배우기 위하여서, 읽을 수 있는 자들보다 더 이야기를 잘한다는 것이 보여진다.

놀랍게도, 어떤 문맹 학습자들은 이야기 속에 있는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찾아내는 예리한 능력을 보여준다. 여하간에, 모든 학습자들은, 글을 알든 모르든, 처음에는 토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화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는 질문을 만들기를 어려워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질문 만들기는 글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 모두에게 습득 되어지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어떤 예기치 못했든 적용. 우간다 (Uganda) 의 드와니로 (Dwaniro) 에서 한 노인이 메시지를 전하여 왔다. 그는 아프리카와 우간다 전체의 **하나님 이야기 프로젝트**(The God's Story Project) 책임자인데, 나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결코 잊지 말기를 소망한다. 이 책임자는 그의 뿌리가 "시골" 인데 이 보고서를 주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며 이 워크샆에 온 신자들은 거의 모두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장소는 매우 원시적입니다! 어떤 이야기 하는 사람이 그의 첫 **오직 그 이야기**를 나무아래 서서 하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특별한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없는 다섯 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매우 늙은 노인은, 아마 65 세 정도, 역대하에서 *잃어버린 도끼-머리* 이야기를 막 끝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그가 토론을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

"그런 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용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의 학생이 그가 잃은 도끼-머리는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뒤집혀졌는지 기억합니까?' 그의 그룹 사람들은 안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사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보이시고 그 학생이 빌려온 도끼-머리를 찾도록 도우셨나에 대하여 이야기 했었지요? 여러분들의 집에 빌려온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그들의 어깨를 으쓱 하였습니다. 이야기 하는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의 집에 자신이 소유가 아닌 어떤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 마을 남자들은 그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약간 좌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찾아낸 그 발견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쑥, '당신들의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네 마리의 염소를 지불했습니다!'

'압니다. ' " 이야기하는 사람이 응답했습니다." ' 그러나 누가 그 염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염소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내들의 소유주는 하나님, 당신이 아닌!' 그 참석자들의 표정은 심각하게 변하더니 조금 후 이야기 하는 사람에게 동의 하였습니다.

'자, 당신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마치 당신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나의 아내를 나의 소유물처럼 때리고 차고 그리고 나는 이 짓을 내가 원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여자는 빌려온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를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역시.' "그때 그 노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흐느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신 듯 하였습니다. 눈물이 그들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개의 시간 동안 이야기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메시지가 진짜로 이 이야기 속에 있는가? 어떤 빌린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은 나는 안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한 적용일까? 그날, 그 남자들에게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후 나는 생각했다, 어머나! 나는 나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은 마치 내 것이나 되는 것처럼, 호되게 꾸짖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것처럼 대하는가?* 확신이 내 가슴속에도 왔다.

[이 문맹자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논리와 귀납적인 추론을 했는가? 그는 마을 남자들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하여 질문들을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글을 아는 사역 지도자가, 다른 문화에서 온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영적인 적용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네, 그리고 네이다.]

구두 성경 학교들 (Oral Bible Schools/ OBSs)

구두 성경학교들은 깊은 성경연구를 하는 워크샵에서 보여진 관심들에서 발생하였다.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야기를 배우는 기회를 더 많이 갖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들을 계획하였다.

구두 성경학교에 함께하기를 원하면 원서를 제출하든지, 혹은 지역교회 목사님이 추천하면 된다. 열두 명이 선택되는데, 대부분은 워크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후 선택된 사람들은 오직 그 이야기 강사에게 일주일간 더 특별 훈련을 받는다. 그 강사는 구두 성경학교의 감독관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일년 과정이다.

그 과정을 위하여, 학생들은 한꺼번에 두주간을 만나고, 두주간은 집으로 돌아간다.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매일 통학을 한다. 감독은 각 두주간-기간 의 마지막 3 일 동안을 방문하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지역에서 음식을 사든지 혹은 집에서 갖고 온다.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학생들에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준다.

학생들의 교과 과정은 성경전체를 통한 296 성경 이야기를 토론하는 오직 그 이야기 방법을 사용한다. 만일 학교의 기간 동안, 이야기의 모두를 모르면, 그 학생은 이야기 모두를 배우기 까지 졸업이 연기된다. 오직 그 이야기워크샵을 인도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전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실천 (practical)" 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도 역시 훈련의 한 부분이다.

한 감독은 특별한 학교를 마련했다. 화원에서 일하는 그의 교인들은 매일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 "점심시간 학교"들은 번져갔다. 네 군데의 다른 화원에서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여 일주일에 다섯 개의 이야기를 토론하기 시작했다. 다른 일하는 사람들도 이야기 듣기 원했다, 그래서 그들도 듣기 위하여 합류했다. 처음 사개월 안에, 무척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열 여섯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었다. (세계 전체를 통하여, 성경 이야기를 하는 **오직 그 이야기**에서 훈련 받은 자들에 의하여 해 마다 새로운 교회들이 몇 천 개씩 시작된다는 증거가 있다.)

어떤 다른 시가지들의 "사업체 " 구두학교들은 매일 일이 끝난 후에 만난다. 이 두 학교의 모델들은 그들의 목표로 이백 구십 여섯개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다.

인디아에 있는 신자들과 구도자들은 이백 구십 여섯개의 이야기를 배우기 위하여 "가정 성경 학교"에 모인다. 세 가정 혹은 네 가정이 학교로 모인다. 그들은 평균 한 주에 세 번 모인다. 이집트와 다른 나라에서, 가정교회들은 이백 구십 여섯개의 이야기를 성경교육과 교인들이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 사용한다.

필리핀에 있는 한 창조적인 지도자는 매주 라디오 프로그램을 갖는다. 그는 한 작은 스테디오에서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생방송을 한다. 사람들은 그의 질문에 전화를 하거나 텍스 메세지로 그의 질문에 응답한다. 어떤 메시지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점령당한 곳에서도 왔다.!

그가 이 프로그램들을 시작한 후로 그는 라디오를 통하여 워크샵을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라디오 워크샵의 성공이 확인된 것은 이 이야기하는-지도자 (leader-storyteller) 가 구두로 하는 성경학교에 관하여 방송할 때 확인 되었다. 라디오 워크샵을 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하여 " 우리 섬은 왜 학교를 가질 수 없습니까? "라고들 질문했다.

그 질문으로부터 "이동 (mobile) " 구두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세 장소에서 7 명과 13 명

그리고 17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장소에 모여서 이야기들을 배웠다. 한 주에 세 번씩 학교 학생들은 **오직 그 이야기** 강사에게 전화로 이야기 했고 이야기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말했다.

이 여러 형태를 설립한지 이년 안에, 진행되고 있는 **오직 그 이야기** 구두 성경 학교가-----모두 아홉나라 에서----한 개에서 육십 개에 이르렀다! 296 개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교회와 가정 성경학교가 1,000 개를 넘고 있다.

구두 성경학교 학생들의 약 40%가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경학교들로부터 졸업증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그들은 목사들과 전도자들로 이미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구두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는 ---95 %!

구두 성경학교의 영향—충격, 놀라움, 그런 후의 경외감

우리의 아프리카 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급한 질문을 전화로 해왔을 때의 충격을 상상해 보라. "레이크 빅토리아섬 (Lake Victoria Island)" 에서 워크샵을 시작했던 직원이 방금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다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워크샵을 초청한 분과 여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도 역시 일부 다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언급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을 선택해야 할까요? "

크리스천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라는 말을 듣고 나는 처음에 놀랐다. 잠시후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나는 주님께 무슨 이야기를 사용해야 할지를 여쭈어 보았다. 매우 빠르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가 계속하여 말하여온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네가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책임자에게, "성령께서는 자신께서 가지고 계신 각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이 자주하는 워크샵 이야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확실합니까?" 우리 책임자가 물었다. " 이 장소가 얼마나 먼지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전화를 한 강사는 나뭇가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섬의 끝부분인 이곳에 휴대폰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 뿐이 없었는데---- 전화를 받기 위하여서는 나무위로 올라가야 했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답변입니까?"

나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를 확신 시켰다. 일부다처의 삶이 이들 그리스도인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명백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교사는 나무에서 내려왔고, 우리 모두는 기도했다.

워크샵 후에 팀은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에게 이런 보고를 나누었다:

"훈련 삼일째 되는 날, 이야기를 준비하든 그룹 중 한 그룹이 -----에 관한, 추측해 보세요 ----- 일부다처제! 에 관한 강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강사도 그 주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슴속에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 신자들과 목사님들은 우리를 둘러쌓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방문을 받은 것이 우리 섬에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은 구두 성경 학교를 그들의 섬에 만들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예'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두주 후에 학교가 시작되었다.

학교가 삼 개월이 되어, 우리는 책임자에게 놀라운 보고를 받았다. (그때까지, 열두 명의 학생들이 배워왔고 60 개의 이야기를 토론했다.) 우리의 책임자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 어떤 이야기를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의 목사님들은 일부다처는 틀린 것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아내들을 데려오는 것을 그만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은 성경 말씀을 존중하기 위하여, 아내가 한 사람 이상인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가결하였습니다."

그 후로 이 귀한 신자들은 그들의 헌신에 지금까지 진실하게 머물고 있다.

일년간의 학교가 끝난 후, 열두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들은 다른 구두 성경학교 세우기를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첫 워크샵을 인도하도록 강사들을 초청한 사람이 학교 졸업식 때 이 놀라운 간증을 했다.

> 나는 삼 년 동안 아프리카의 **오직 그 이야기** 책임자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고아들을 위해 돈이 필요했고 나는 이 사람이 서양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팀은 레이크 빅토리아섬에 사는 나와 나의 동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주일 까지 70 명의 모든 고아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고아들을 지원한 것은 변화된 우리 지역사회입니다.

우리는 이곳 전 지역의 급변하는 개혁을 경이감으로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경청하였고 그들은 회개로 반응하고 깊게 ---뿌리박은 습관도 변했다. 그들은 무력한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였고 그들 자신의 자원을 사용한 것은 감동적이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하여 야고보서 1:27 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고 한 이 말씀이 이 섬 사람들의 도덕 변화와 고아들을 향한 이들의 행동을 완전하게 묘사하고있다.

구두 성경학교 졸업생들이 갖는 것

자금이 허락되면, 각 졸업생은 태양열 기구를 받는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목사로써, 교사로써 그리고 전도사들로서의 사명을 계속한다.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 중 25 %가 새로운 구두 성경학교의 감독자로써 그리고 **오직 그 이야기**의 강사로써 봉사할 것을 선택한다.

강사들은 무봉급의 자원 봉사자들이다. 요청되어지고 필요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TGSP) 가 강사와 감독들에게 작은 경비로 여행과 음식을 충당한다. 가끔, 필요에 따라 강사들은 작은 사례금을 받는다.

지역구 의 강화 (Regional Empowerment)

어떤 나라의 책임자가 그의 나라 전체 학교들에서 사역을 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이미 하고 있는 학교사역 외에, 이 나라의 **오직 그 이야기** 직원은 적극적으로 워크샵을 인도하고 구두 성경학교들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 초청은 우리들이 지역구 강화를 창출하여 발전 시키도록 했는데, 이것은 자금과 시간과 직원들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 있게 하기 위한 계획이다.

각 지역구를 위한 이 전략은 워크샵과 구두성경학교를 함께하는 사역이다. 한 지역구는 평균 25 개의 마을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함께하는 사역을 위해 강사들은 지역구에 9 개월 동안 세 번을 다른 시간에 방문한다. 이 훈련 시키는 기간이 끝나면, 한 강사는 그 지역구에 새롭게 만들어진 구두학교들을 계속 방문한다. 그 강사는 구두 학교를 격려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열한달 동안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한다.

이 강화는,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 씨디 (CD) 와 성경내용과 훈련내용이 있는 태양열 플레이어, 그 외 다른 자료들을 담은 선물들을 포함한다. 각 여행시 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강사의 여행경비와 음식 경비지출이 적다. 방문이 온전히 끝나면, 지역 지도자들은 훈련되어졌을 것이고 무장되어졌을 것이어서-----그때부터 성경을 이해시키고 적용시키는 방법을 인도하고 사역을 하면서 힘을 얻는다. 우리는 한 지역구에 있는 2500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두 해 동안 22 지역구에서 열 배가 증가되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제 9 장: 가시 뽑기 – 생각의 변화

가시들 뽑아내기 : 구두 전략을 사용할 때 오는 갈등

호저라는 동물은 그들의 몸 속에 가시 (등뼈)가 박혀 있어 그들을 위협하는 것에서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것의 날카로운 가시는 쉽게 들어가지만, 가시 위에 돋친 작은 촉수 때문에 빼어내기가 고통스럽다.

우리가 본장에서 제목으로 "가시 뽑기"라고 말하기로 한 것은, 시간이 그 효과를 증명해 준 설교와 가르침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시들이란 다음과 같은 믿음들이다:

- 당신은 노트 없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 당신은 본문 밖에서의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 전통적인 기술 밖에서는 깊이 가르칠 수 없다.
-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귀납적으로 공부할 수 없다.

처음에 사람들은 오직 그 이야기의 여러 신조들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는 계속 경험한다. 교육을 받은 자들, 특별히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은 구두로 배우는 자들보다 더 갈등을 느낀다.

오직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효과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의 각 요소들을 충분히 배우기를 신중히 시도해 보라고 격려한다. 그러나 때가 되어,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교육받은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새로운 경험, 예를 들면, 노트를 하지 않는 것, 을 하게 되는 것은 몸 속에 박힌 호저의 가시를 뽑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는 뽑고 학습자들은 "아야" 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가시가 뽑히면, 실지로 효과있는 더해진 기술을 갖인데 대하여 놀라움과 기쁨을 보인다.!

전통적인 방법과 오직 그 이야기 모형

이야기를 가르치는 일반적인 방법.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 본문이나 이야기는 읽혀진다. 그런 후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된다. 가끔은 본문은 읽혀지지 않기도 한다; 강사는 곧바로 한 절 한 절 가르친다. 그런 후 그 구절들은 가르칠 환경으로 참고된다. 첨가되는 성경구절 역시 어떤 진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첨부된다.

가끔 성경 밖의 정보가 설명되어질 것이다. 그런 후 말하는 사람의 견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마 어떤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뜻이 종종 거론될 것이다. 가끔 설교 속으로 사람들을 끌기 위하여 얼마간의 유모어나 이야기가 사용될 것이다.

만일 경청자들을 위하여 적용이 만들어 지면, 그 적용은 일반적으로 설교가 행하여 질 때 그속에 엮어지거나 마지막에 고정된다. 적용은 교사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 적용은 경청자들이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형식으로 주어진다. 이 통상적인 방법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본문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오직 그 이야기 방법.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이 오직 그 이야기방법을 사용하여 가르칠 때는, 성경에서 영적인 정보를 발견할 때 경청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목회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청중들이 성경을 공부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찾을 때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 보기를 사랑한다!

미국에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한 목회자가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 참여했다. 이 성공적인 작가는 지금 그의 사역에 오직 그 이야기를 함께 사용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 이 [오직 그 이야기] 접근방법과 많은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점은, 후자는 성경을 보다 적게 판독하고 적게 해부하며, 보다 많이 역사적인 실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건들을 과거에 살았었던 기록으로 다룬다. 이 전자의 체계 [오직 그 이야기] 속에서는, 사건을 따라가면서 오늘날도 같은 것들이 실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실재들을 (사건 속의 인물들의 감정이라든지, 영적인 연결고리, 등등)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들을 오늘날에 일어나는 유사한 사건으로써, 살아있는 사건으로 보기 시작한다.

온 세계에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 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게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대부분의 **오직 그 이야기** 기술을,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다 더 빨리 습득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세계에서 적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다 머리가 더 우수하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연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성공한 후에, 이미 알고 있는 그 구조에 반대 되는 듯한 새로운 구조를 배우는 것은 큰 도전이 된다. 언급한 데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일 수록 **오직 그 이야기** 과정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는데 더욱 큰 고심을 한다

이 불균형의 주된 이유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 참석한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사람들은 거의 **오직 그 이야기**에 진심어린 정신적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들이 구두형태로 성경에서 배우고 그것을 제시하는 과정을 경험할 때, 그 새로운 접근 방법에 매우 낯선 느낌을 받는다. 그들이 가르침 받고, 그들의 사역을 쌓아온 방법은 구두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직 그 이야기**의 많은 새로운 요소들을 사용 할 때의 처음 반응은 과정 중에서 오직 몇 가지만을 활용한다.

적응할 분야들:

- 같은 내용 구절들을 비교하지 않기
- 어떤 필기도 하지 않고 배우기
- 필기물 없이 가르치기
- 한 부분의 구절들만 고정하여 제시하기
- 어떠한 바깥 정보도 가져오지 않기
- 강의와는 반대로 토론을 통하여 진리에로 인도하기
- 본문을 최소한 읽고 구두 방법을 사용하기

- 이야기/본문 구절들은 그 하나로만 독립하여 자체 내에 충분한 정보가 있음을 신뢰하기
- 토론시간에 많은 주제들이 발견될 것을 기대하기
- 교사가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토론 시간에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간 교훈의 가치를 믿을 것

중요한 주지 사항. 우리는 강의식 교육방법이 틀렸거나 혹은 버려야 한다고 결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인의 높은 율이 구두 전략을 통하여 전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을 높일 때, 우리는 이 새롭고 넓게 전도할 수 있는 교육 방법들도 포함하여서 사람들을 돕는 중요성을 본다. 우리는 기독교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 속에 **오직 그 이야기**의 구두 전략을 포함시켜 그 방법을 넓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축하를 한다.

다음 두 개의 보고서는 (하나는 타이 에서, 하나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것), 위에 나열한 불편한 여러 부분에 대하여 답들을 제공한다. 그들은 구두 전략을 포함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타이 (Thailand) 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의 관찰:

> 나는 공과의 목표들을 준비하는데 꽤 익숙하며,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공과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나는 항상 공과 전체를 통하여 목표를 강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결론을 내릴 때는 경청자들이 그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 목표들을 종이에 기록하여 압정으로 고정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공과를 가르친 후 나의 경청자들은 곧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
> 지금은 **오직 그 이야기** 방법과 함께 나의 특별한 목표들을 병행하여 가르친다. 그러나 이전과의 큰 차이는, 나의 경청자들이 나의 질문에 답 할 때 나의 목표를 그들의 것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목표를 그들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목표를 그들의 가슴과 머리에 인을 치는 것이며, 그 결과 내가 가르치기 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간직한다.

어떤 매우 세심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한번에 한 이야기에만 국한 시키는데 관하여 관심을 표명했다. 그들은 한 이야기 본문을 다른 성경의 보충이 없이 하는데 대하여 특별히 신중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 "성경의 각각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며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향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누가복음 24:27 과 사도행전 8:35 을 참고로 말했다.) 그러고는, 그들은 "성경 이야기의 큰 그림 (복음)에서 나누어 질 때, 성경의 이야기들은 재빨리 도덕적 행위의 가르침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사려 깊은 관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곤 한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시키려 할 것이고 인류의 무력한 신음소리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시하려고 한다. 우리는 예민하게 이 속임수들을 의식하고 있다.

이 한 이야기 속에 머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능력과 성령의 역할 속에서 찾는다. 성령께서는 이야기하는 교사가 미리 선별해 놓은 주제나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한 주제의 설교가 없더라도, 한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것이다. 이야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깊고 신중하게 꺼내기 위하여 우리가 토론을 사용할 때 이 일은 계속 하여 일어난다.

성경을 강의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 할 때, 그 형태는, 누가 구원 얻는 방법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찾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청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직 그 이야기**의 토론 형식의 가르침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적인 것에 관한 단체적인 "대화"가 일어난다.

대화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는지 혹은 예수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때는 언제나 이야기하는 자는 이 특별한 필요에 응답할 수 있다. 이야기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도되면, 직접적인 복음제시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나타낼 성경구절을 제시 할 수 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다음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만이 이야기를 선택 하실 것이다----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동쪽과 북쪽에서 다섯 번의 오직 그 이야기 워커샵들이 행하여 졌다. 석 달 후에, 강사는 "그들이 알고 있는지 " 확인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로 돌아갔다. 훈련 전체가 네 가지 언어들로 통역되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없었다.

"그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보고하기를,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사용한다!"
한 전도자는 **오직 그 이야기** 강사에게 그는 아홉 명의 모슬렘 중진들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말했다. 그 전도자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전도하게 했는지를 나누었다. 그는 새로운 신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주었다; "우리는 이야기 속의 사람들을 알았다. 그러나 코란은 우리에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와 함께 토론한 적이 없다." 무슨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였는지 묻자, 그 전도자는 " 모세와 반석이야기 아시지요, 출애굽기 17 장에 있는 것."

오직 그 이야기의 담임 강사인 나는, 이 보고에 놀랐다. "그 이야기의 무엇이 그들을 전도하게 했습니까?" 라고 나는 물었다.

오직 그 이야기 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 전도자는 나에게 새신자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관하여 토론 할 때, 우리는 모세가 신실한 지도자였으나, 사람들은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았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는 자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신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전도를 위해 모세의 이야기를 선택하였겠는가? 무슬림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로써 그 이야기는 나의 목록 속에 있는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다.----글쎄, 최소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기도 포함하여, 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는지를 배우기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그 이야기는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내 목록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 목록에 있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오직 그 이야기** 사용 속에서 거듭 체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로써 전해질 때, **그분**이 기록하신 데로, 그리고 보화들이 토론을 통하여 경청자들에 의하여 발견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폭발된다!

우리는 출애굽기 17 장의 그 이야기를 사용하는 분들께 그 후에 우리는 바로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을 고려해 보도록 격려한다. 경청자들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생명

을 주는 물 (life--giving water) 을 제공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 장 10 절부터 16 절에서 발견되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눈은 경이에 차서 커질 것이다. 그들은 바위와 물에 대한 지나간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의 중요성을 포착한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이야기 속에 있는 상징을 인식 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을 본다!

구속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 하라! 이 두 이야기는,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상징으로 이야기된 두 번째 이야기가 그 모슬렘 남자들에게 먼저 이야기 되어졌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보고서에 따르면, 모세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이 아홉 명의 남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질문하도록 이끌었는가? 그렇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그들은 자비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그래서 물론, 모세의 이야기를 막 끝낸 그 전도자는, 행복하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설명했다. 그는 그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말했다.

서신서에 대하여는 어떤가?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말로써 가르치는 방법 속에 이야기를 싸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구조를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전 의회 (the whole council of God),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 많은 분들은 이 뛰어난 질문을 한다; "서신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응답을 제시한다.

하나는 이것이다. 오랫동안 성경의 이야기는 절개되고 해체되어서, 제목 설교를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되어왔다. 불행히도, 말로써 배우는 자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는,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진 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들려질 필요가 있었다. 만일 말로써 정보를 전달하는 전략과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방법의 협력으로 전에는 우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든 세계인구의 80%가 성경의 75 %를 명백하게 이해 할 수 있다면----이것은 축하해야 마땅한 일이다!

기독교 교육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에 이 성경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오직 그 이야기**의 효과는 이론을 넘어선다. 성경 이야기를 이 귀납적인 구두 방법으로 전체로써 제시하고 깊이있게 토론하는 모험을 하고 또 시도해 보는 사람들은 실증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다.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 **오직 그 이야기** 형식 (*Simply The Story* style) 이 지구촌을 향하여 떠난지 지난 5 년 간의 애정 깊은 반응이 그것이 사용된 장소의 숫자가 증명을 한다. **오직 그 이야기는** 90 나라에 소개되었거나, 사용되어지고 있다.

오직 그 이야기의 빠른 성장의 한 예는 우리가 필리핀에서 세 번의 워크샵을 한 후에 알게 되었다. 우리를 초청한 분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모를 보내왔다; "워크샵 4 개월 후에 나는 많은 참석자들을 접촉한 후 1400 명이 이미 훈련 받았으며, **오직 그 이야기**방법이 스물 다섯개의 언어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

한 위클리프 (Wycliffe) 번역가가 미국에서 **오직 그 이야기**를 배웠다. 그녀는 그녀의 마을 지도자들 몇 명을 그 워크샵 중 하나에 보냈다. 3 개월 후에, 훈련 받은 그 마을 필리핀 사람들은,

도시로 가서 워크샵을 인도했다. 그 후에, 위클리프 번역가는 이렇게 썼다: "교육받은 목사들이 질문해 왔다. `언제 돌아와서 우리를 좀더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 목회자들은 그들을 훈련시킨 다섯명 중에 세 명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막 힘을 얻은 말로 배우는 학습자들은,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글을 모르는 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이해력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야기가 말하여지고 가르쳐지는 일이 5 세대 그리고 6 세대를 이어 반복되는—일년 안에, 다수의 보고들을 들으면서 전율한다! 우리가 보는 영적인 열매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포장 (packaging)" 즉 이야기 안에 쌌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다.

아, 그러나 아직...서신서에 관하여는?

오직 그 이야기의 기본 원칙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워크샵 시간에 서신서에서 어떤 본문들을 **오직 그 이야기** 형식을 사용하여 어떻게 쉽게 제시 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 제시와 설명을 위해 서신들과 시편에서의 이야기들을 포함한다. 성경의 이 부분들은 이야기로써 적게 알려져 있지만, 서신서들과, 시가서들과, 예언서들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시각적이며 분별할 수 있게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오직 그 이야기** 형식을 사용하여 꽤 효과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시편 일편을 읽거나 들어보거나, 혹은 이 여섯 구절이 당신에게는 익숙할지 모르겠다.
눈을 감아라. 현명한 상담자의 질문들을 질문하라. 시편 일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그들의 선택들과 그들이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과, 그들의 선택의 결과와 영향에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시는지 주목하라; 하나님의 인격에 관하여 당신이 무엇을 발견하는지 보아라.

다시 눈을 감고, 다른 익숙한 본문을 생각해 보라. 시편 23 편에서 양이 그의 목자에 대하여 정겹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 보아라. (앞 부분에서 라메시 (Ramesh) 와 시편 23 편에 관한 이야기 보다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양의 말을 잘 들어보라. 전체 이야기를 본 후에, 오직 전체 이야기를 본 후에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에서 관찰 한 것에서 적용질문을 하라. 오늘날 우리는 양 같은 사람들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목자 예수님께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사야서 1:10-20, 로마서 1:14-25, 그리고 야고보서 1:22-27 에 있는 이야기의 줄거리들을 보려고 시도해 보라. 확실히, 이 모든 구절들은 표준형태의 이야기, 즉 대화가 있고 삶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이야기 보다는 기억하기에 더욱 도전을 준다. 천천히 가라. 인물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유의해 보라. 그들은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들은 결과와 영향력이 있는가?

명백히, 각 부분 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신다.
오직 그 이야기의 원칙들을 사용하라. 영적인 관찰을 위하여 그 부분에서 보여진 것에 주의를 집중하라. 이것을 다 한 후에,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발견한 각 관찰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세 종류의 본문 형태들을 발견한다:

- 이야기 형태의 본문들
- 절반 정도-이야기 형태의 본문들
- 이야기 형태가 아닌 본문들

이 세가지 형태 중에서 이야기 형태의 본문이 기억하기가 가장 쉬운데, 그 이유는 이야기 속의 행동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들은 상호작용을 하고, 인물들이 있고, 행동과 대화가 있다. 결과 이야기들은 인물들을 따라서 경험될 수 있다; 그들은 보여지고—들려지고---또 느껴진다.

절반정도-이야기 형태의 본문들은 배우기에 좀더 도전을 받는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이야기가 적지만, 그 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 (hear) 뿐 만 아니라 "보는 것 (see)" 을 기억할 수 있다. 절반정도--이야기 형태는 내용에서 상호작용이 적고 혼자서 말하거나 설명적이다. 예언서들의 많은 부분이 이 절반정도--이야기 형태의 범주에 속한다.
이 절반정도-이야기 형태의 예들로 시편 1 편, 로마서 11 장 그리고 야고보서를 들 수 있다.

기억하기 가장 힘든 본문들은 이야기 형태가 아닌 본문들인데, 세가지 중에서 시각적인 부분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들은 혼자서 말하는 교훈적인 형태의 경향이며, 종종 본질자체가 제목적이다.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이 비이야기체로 여겨질 수 있다.

서신서가 대부분 비이야기체로 되어있다 해도, 여전히 **오직 그 이야기**의 대부분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본문을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다. 잘 말하여진 이야기는 듣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서신서는 열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열정적인 편지들이다. 본문을 제시하는 동안, 교사들은 이 열정을 인식하고 그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을 읽든지 혹은 말해야 한다.

사역할 때, 당신은 기억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본문들은 소리를 내어 읽은 다음 그 본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직 그 이야기**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야기가 아닌 본문을 어떻게 구두형식으로 가르칠까에 대한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주어진 시간에 오직 몇 구절만 가르치는 것이다. 한 설교에서 오직 몇 구절만 가르치는 것은 표준적인 주해식 설교에서 아주 종종 행하여 진다. 이 몇 구절들을 감정을 넣어 말하고 순서를 따라 후에 토론한다면 경청자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전은 당신이 자신을 그 몇 구절 속에 묶어두는 것인데, 그 본문의 배경으로 성경 속의 약간의 정보를 서론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한 구절만으로 깊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성경 속의 많은 다른 구절들로 가지 않고 (혹은 성경 이외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본문에 "빛을 비출" 충분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워크샵에서 설명한다.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을 설명한다. 첫번 째로 우리는 작은 부분의 서론을 말 하는데, 이것은 경청자들이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토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문의 배경과 앞부분의 성경적인 정보이다. 우리는 "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초대 교회의 '본부' 가 됩니다. 이 제자들은 삼년 동안

예수님과 많은 장소를 여행하였는데, 유대 보다 더 큰 지역과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든 이웃 지역도 포함하여서 말입니다. " 라고 말한다.

그런 후 우리는 사도행전 1:8 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이야기" 를 한다.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한 구절의 긴 이야기를 한다. 그곳에서 발견되는 보화의 양과 토론의 분량 때문에 우리는 그 구절의 마지막 절반 밖에 다룰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쉽게 30 분을 채운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흥미를 갖게 되고, 성경이 새로운 사람들은 토론에 열심으로 참여한다. 놀라운 발견들과 눈물 어린 적용도 일어난다. 더욱이나, 사람들은 그 구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또 나누기 위하여 그 구절의 주인의식과 이해를 갖고 떠난다.

목회자들과 기독교 교육자들은 이 가능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든 강의와 설교양식이, 사람들이 배우고 행하기를 원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성경으로 대화를 하는 자들은 기독교 교육 속에 어떤 상호적이며 학습자-발견위주의 방법을 조합해 보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오직 그 이야기 방식을 사용하는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지혜롭게도 서신서에서 서론을 가져온다. 이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상호작용으로 가르칠 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여행들과 묶여있는 서신서에서 그것을 가져온다. 오직 그 이야기를 효과 있게 만드는 일반적인 원칙들, 즉 영적인 관찰과 영적인 적용을 찾기 위한 질문과 상호적인 토론이 서신서를 가르칠 때도 잘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전통적으로, 고등 교육을 받은 교육자가 목사들과 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러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문자적인 소통수단을 사용한다. 만일 이 높은 수준의 교육자들이 성경을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의 역동성을 모른다면, 그리고 나아가 만일 구두로 하는 방법들의 모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구두로 배우는 자들과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도 성경이야기와 이야기가 아닌 부분도 이해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만일 그렇다면, 고등교육을 받고, 대부분 높은 지성을 갖춘자로써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되돌려 줄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없겠는가?

그러나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암기하는 것은 어떤가?

암기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생각해 보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라." 는 성경적인 명령과 긴요한 필요, 둘째, 암기와 기억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성.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신자들이 성구암송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어 하나 하나의 암기를 강조한다. 많은 성경들을 암기해온 우리들은, 특별히 젊은 시절, 우리의 머리회전이 빠를 때 그렇게 해온 우리들은 그 영향에 대한 감사는 영원 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성구 암송은 도전을 준다: 극 소수의 사람들이 암송으로 많은 양의 성구를 암기하고 계속적인 연습을 요구하면서 긴 시간을 간직한다. 반대로, 이 책 개요에서 말 한데로, 당신은 기억에 의하여 이야기를 배울 수 있고, 만일 당신이 몇 번만 이야기를 거듭하면, 그 이후에는 그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복습하거나 복습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도형으로 남고,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언어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반복하기가

자연스럽고 쉽고 평생 동안 소유할 수 있다.

37 시간의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서, 많은 기술을 배우게 된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소한 21 개의 다른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토론한다. 이들 21 개의 워크샵 이야기는 148 구절이 된다!

놀랍다! 한 사람이 148 구절을 배워서 "가슴의 포켓 (heart pocket)" 에 그것들을 저장하고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오직 한 워크샵에서 습득한 성경분량이 그 습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야기 하는 능력을 앞서게 한다.

암기하기와 기억하기.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된 성경 페이지들을 비교해 보라. 같아 보이는가? 어떤 단어들이 비슷해 보이는가? 아니다. 사실은, 인쇄된 성경들은 단어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활자와 알파벳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할 지 모른다. 각각의 단어들은 완연히 다르다. 소리를 내어, 말로 표현되는 낱말들은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난다. 그러나 공통적인 무엇이 있다. 그 공통적인 것은 모든 성경에서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그것은 개념들, 정보들이지, 그 말들 자체가 아니다. 비록 단어들은 완전히 다르더라도 메시지는 바뀌지 않는다.

오직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단어들이나, 목소리의 억양이나 몸짓에 의하여 표현된 이야기가 본문에 더하여거나 빼지거나 혹은 변화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화체로 이야기 할 것을 격려한다. 그러나 극도로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무리 작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개념이나 혹은 정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암기는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가 되어왔고 또 될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와 구절들의 정확한 기억, 그래서 그들을 대화체로 말하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암기라는 도구상자 안에 속한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을 귀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

가끔 사람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비평적인 생각도 역시 잘 한다고 추측한다. 또한 반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혹은 말로써만 의사소통을 하는 배경에서 온 사람들은) 논리적이거나 귀납적인 사고를 하지 않거나 결코 할 수 없다고 추측한다.

확실히 이 전제에 대한 토론은 계속 될 필요가 있다. 비평적인 생각, 그리고 논리적이며,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추리력,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은 보다 명백하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해되어야 한다---특히 말로써 학습하는 자들과 연관될 때는 더욱 그렇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평적인 사고 능력은 오직 교육 받은 자에게만 주어졌다거나, 혹은 좀 더 좁혀서, 오직 교육받은 자들과, 그들의 문화가 글을 읽고 쓰는데 뿌리를 내린 교육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창 1:26-27) 고려할 때 그 결론은 신빙성을 잃는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는 이성과 추리력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것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그 이성을 거부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인 추론을 위한 양심을 갖고 있다.(로마서 1:19-23)

마가복음 12:24 을 주의해서 보는 것은 흥미 있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함정에 넣을 계획으로 질문하면서 닥아왔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질문으로 되물으시면서 응답하셨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다.

확실히,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들을 "알았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의 부족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듯 하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분별력의 부족 때문에, 그들은 긴요한 정보를 놓쳐버렸다. 결과 그들의 비평적이고 연역적인 사고방식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데 실패케 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성경이 초문화적임을 보았다. **오직 그 이야기**를 사용하여 성경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은, 이야기를 하기 전, 소개부분에서 필요한 설명을 하는 한, 세계전역에 걸친 경청자들에 의하여—교육수준이나 읽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성경 속의 많은 보화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사도행전 4 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중 최소한 몇 명 정도의 교육적인 배경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 대하여 강하게 설교하였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다른 종교지도자들을 화나게 한듯하다. 그래서 이 종교지도자들은 이 두 제자들을 체포하여 그들의 공동회의 앞에 세워서 질문들에 답하게 하였다. 성령에 이끌린 베드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께 대하여 논리적이고 아주 잘 정리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높은 교육을 받은 체포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공회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연설에 영향을 받았다:

>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 (행전 4:13)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학자들도 성경말씀을 잘 듣고 난 후 많은 깊은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현장에서 온 보고들이 이 질문의 대답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의 숨겨진 부분에 말씀하신다. 오직 그 이야기의 서양인 강사들은 가끔 시골의 환경에서 **오직 그 이야기**를 사용할 기회를 갖거나 그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기회를 갖는다. 서양인 우리 몇 명은 케냐에 있는 에칼라칼라 (Ekalakala) 마을을 방문했다. 그전에 아프리카의 **오직 그 이야기** 강사가 에칼라칼라에서 이야기를 사용하여 사역했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훈련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인도자가 설명했다, "우리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교회'는 노래하고, 손뼉치고, 설교하고, 한 구절 정도의 성경구절---이것이 모두였어요! 신자들은 성경에 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들은 구원과 성장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본 것을 함께 보자. 당신은 에칼라칼라 의 얇은 지붕과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마을 교회당으로 들어간다. 캄바부족 (Kamba tribe) 에서 온 약 60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메우고 있다. 11 개의 다른 교회에서 온 15 명의 목사들이 교회의 긴 의자에 앉아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여성들의 울긋불긋한 옷과 모자, 그리고 남자들이 그들의 최상의 코트와 넥타이들을 메고 있는 것들을 주목한다. 당신이 조심해서 보면, 대부분 이 코트들은 여러가지의 사이즈로 매우 길게 가냘픈 몸매에 걸려져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는 낡은 소매 끝과 닳아서 얇아진 바지들을 주목하게 된다. 당신은 생각한다; " *모양들이 같은 이 "주일 옷 (Sunday clothes) " 을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 왔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마가 물에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오후 네시 까지는 강의를 끝내야 한다는 말을 당신은 듣는다. 또한, 당신은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둥근- 진흙- 오두막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네 시간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곳에 있는 동안, 한 아프리카인이 창세기 35:1-35 을 말하고 그것을 토론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한다. 이 발표는 스와힐리 (Swahili) 언어로 행하여 질것이고 캄바 (Kamba) 어로 통역될 것이다. 뒤에 있는 긴 의자에 당신이 앉은 후에 당신의 아프리카어 통역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가족들을 깨끗게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하고있는 야곱이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인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 야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야곱이 지금 막 좋은 지도자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계속하여 경건한 지도자로 있어왔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 '야곱이 우상들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

사람들은 서로 토론하는 듯이 보였다.

몇 분이 지난 후에 당신의 통역관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인다, " 이 사람들은 이야기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모아다가 세겜에 있는 그 상수리나무 밑에 그 이방 물건들을 숨겼어요! 그는 그 지점에 표시를 했어요!'. "이제 그들은 야곱의 욕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 그는 하나님의 제공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족들이 우상들을 소유하고 있도록 하는 타협하는 자였어요.' " "그들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방금 이렇게 말했어요. '마술적인 물건들 중 얼마는 귀걸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집에 우상들에 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 없어요.' "

교회당에서 야곱의 행동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여성이 일어나서 캄바어로 무엇인가를 빠르게 말하면서 흥분된 몸짓으로 가르친다. 통역관이 속삭인다, "저 여성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적들과 성물들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더 이상 숨기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

그러자 몇 분 후에 한 큰 남자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말하였는데, 후에 나머지 남자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응답한 말을 했다.

지금 당신은 그 남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매우 궁금하여, 급히 통역관에게 기대면서 질문한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통역관은 그 남자가 말을 다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속삭이며 답한다, " 이 남자는 금방 말하기를, '나는 가족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야곱과 같습니다. 나는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변해야 합니다. "

[그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에 있든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위선적인 행위를 발견했다. 일어서서 말한 여자와 남자 모두, 야곱의 죄들을 보면서 그 자신들의 죄들도 보게 되었다.] 또한 그날, 우리는 사람들의 세계관 중심부에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의 초 자연적인 능력을 보았다!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로만 의사전달을 하는 이 사람들은 깊은 진리를 발견했고, 선교사들이 증거를 위해 몇 년씩 기도하며 찾고 있던 개인적인 적용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되었다.]

결코 너무 늦지 않고, 결코 너무 잊혀 버려진 자가 아님. 네팔 (Nepal) 의 나왈파라시 (Nawalparasi) 지역에 한 무당이 살았는데, 그는 한평생 66 년간 글 읽기를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수백 명을 좌지우지했고, 사람들은 그를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우러러 보았다.

60 세에 들어서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으나, 그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이 사람은 확실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보고들을 들었다. 그러나 영들이 이 무당을 도와 왔는데, 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겠는가?

어느 날 이 사람의 손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고,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이 무당은 주술을 했고, 이 소년을 치료해 달라고 영들에게 간절히 간구했으나, 이 소년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 노인은, 급기야 절망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의 손자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기도했고 병은 그 소년을 떠났다. 그러나 이 노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당으로써의 삶을 계속하였다.

약 3 개월 후에, 신자였든 노인의 아내가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가 금방 배운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했다.

열왕기하 5 장의 스물 일곱절에 해당하는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네팔인에 의하여 가르쳐 졌고 참석한 사람들에 의하여 토론되었다. 그들은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나아만은 시리아 군대의 장교였는데,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고는,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으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큰 낙타에 선물들을 싣고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을 여행했다는 이야기를 배웠다.

그러나,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실제로, 엘리사는 밖으로 나아와서 나아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종이 나와서 선지자의 지시를 전하였는데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한 지역에 있는 강에가서 몸을 일곱 번 담그라는 것이었다. 나아만은 분노하여, 선지자가 그에게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했는가를 말하면서 떠났다. 나아만은, "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도 더좋은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은가? 나는 거기서 몸을 씻어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 라고 불평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치료를 위하여 가서 이 겸손한 행동을 하여 강에 몸을 담그라고 간청한 후에야 나아만은 그렇게 하였다. 그는 강에 가서 시키는 대로 몸을 담갔다---그랬더니 즉각 치료되었다!

이 무당이 이 이야기 전체를 듣고는, 그의 아내에게, "나는 나아만이군. 나의 교만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있군." 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날 이 무당은 그의 아내와 워크샵에 왔다. 그는 교사에게, "나는 예수를 따르고 싶소."라고 말했다. 그는 상담을 받고,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이후에, 이 교육받지 못한 노인, 거의 모든 일생을 마술의 세계에서 보낸 이 노인은, 금방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도 좋은지를 물었다. 다음이 이 분의 연설이다:

"나아만은 교만한 사람이어서 그 교만 때문에 그의 치료를 거의 놓칠 뻔 하였습니다. 나도 역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몇 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 봤습니다. 나는 그 위치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자를 치료하셨을 때도 말입니다. 나의 교만은 나의 구원을 거의 잃을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입니다."

확실히, 교육을 받은 자든지 못 받은 자이든지,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영적인 정보를 발견할 때, 첫째로 성령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전에 무당이었던 이분이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는 귀납적인 사고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그 자신의 결심은 이 이야기 속에서의 반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발견의 깊이는 교육을 초월한다.

흥미롭게도, 이 현지의 보고를 보면, 사역하고 워크샵을 인도한 사람들은 **오직 그 이야기**의 2 대, 3 대, 4 대의 현지인 강사들이라는 점이다. 모든 강사들은 말로서만 의사소통을 하는 문화에서 왔고 이들 대부분은 원래 시골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다.

주석을 사용 하는 것은?

주석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경건한 남성들과 여성들이 말로써 나눈 통찰 뿐 아니라, 후세에 남긴 기록된 통찰의 유산들에게서도 유익을 얻어왔다. 여러 가지로 주석한 사람들의 견해를 조사해 볼 때 그것은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의견을 듣는 것과 많이 흡사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보를 받아드리는데 있어서 한가지 이런 예민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듣는것 보다 우리는 출판된 가르침이 특별히 정확하다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우, 연구한 것들과 일반적으로 어떤 빠뜨려지거나 실수한 것들이 출판된다. 어쨌든, 자료가 사람들의 의견이거나 기록된 정보이거나 간에, 둘 다 성경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7 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라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성경으로부터 가르치면서 말했다. 얼마간의 유대인들은 믿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였다.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천박한 성품의 사람들을 모아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는 소요를 일으키게 하여 그 두 사람이 밤에 그곳을 떠나게 했다. 그들은 베레아로 갔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보다 더 신사적인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가르침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한 신빙성의 검증측도로 성경을 사용한데 대하여 칭찬을 받았다. 성경이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였다. 흥미롭지 않은가! 누구의 가르침이 신빙성을 위한

검증을 받아야 했을까?.....옳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 형태가---사람을 통한 것이든지, 주석 안에 있는 것이든지, 혹은 어떤 다른 가르침의 자료이든지 우리에게 제시되는 정보들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성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음이 되었거나 기록이 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하여 사역할 때, 토론이 끝날 때에, 그 이야기가 성경의 어디에 있는지 경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경청자들이 당신이 가르친 것과 토론한 것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프리카에서 큰 그룹이 모였을 때, 모든 사람이 이야기들의 효과와 **오직 그 이야기**의 구두적인 접근에 대한 놀라움을 말하고 있었다.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한 열성적인 (약간은 기회주의적이며) 청년이 재미있는 질문을 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우리에게 주석을 보내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다. 나는 처음에 약간 뒤로 물러 났으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미소하며 응답했다. "우리가 일람표에 적어 논 201 가지의 이야기를 모두 배운 후에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야 주석에 있는 정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측정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 (구두로 하는 성경학교/OBS/ 에서 지금은 296 개의 이야기를 배운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주석가들의 의견들이 성경자체의 일반적인 상식보다 더 높여지고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석가들로부터 취하는데 그 이유는 이 학습자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가 부족하든지 혹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에서 배우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교육받고 출판된 신학자들의 견해를, 진리로써, 합성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된다, 즉 '비록 성경은 보통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 속에 담겨있는 가장 깊고 풍성한 진리는 오직 교육받은 신학자들에 의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말이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교육으로 축복받아온 몇몇의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가장 깊은 영적인 진리에로 나갈 수 있는 수단을 갖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성경 이야기에 대하여 그룹토론을 할 때는 주석 저자들이 주석에서 제공하는 값진 정보를 즐기는 것과 비슷하다. 어쨌든 토론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제공할 때 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든 아니든지 우리는, "그것이 이 이야기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도록 당신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자유를 느낀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주석 속에 있는 전문적인 정보에 대하여도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자유를 느끼도록 모든 사람들을 격려한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구절의 뜻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할 때는 주석자의 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은 말씀에 초보자 이든지 혹은 몇 년간 연구한 열매를 나누는 높은 교육을 받은 신학자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책임을 갖는다. 우리는 우리가 나눈 것이 그 이야기 속에서 명백히 보여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0 장: 오직 그 이야기 하는자들의 등급

실습자 (Practitioner). 모든 워크샵 동안, 참석자들은 훈련과 개인적인 지도를 받는다. 우리의 책임과 기쁨은 **오직 그 이야기** 방법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후 곧 학습자들은 오직 그 이야기의 개념들과 미숙한 기술들을 실습할 필요가 있다.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 참석한 사람들은 "실습자 (practitioner) 이다. 그렇게 알게 되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오직 그 이야기의 개념을 잘 이용하여 자신들의 영향권에 있는 곳에 가서 효과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통하여 진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실습자들이 나아가서 성경 이야기들을 하도록 강력히 격려하고 권한다.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오직 그 이야기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실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배가하는 사역 (Ministry That Multiplies)* 같은 책자들도 있다.

실습자들이 활동적인 이야기꾼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은,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이나 **오직 그 이야기** (STS) 의 이름아래 다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훈련할 준비가 아직은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종종 그 이야기를 금방 배운 사람들이 이야기만 하는 이상의 일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무척 나누고 싶어한다. 우리는 그들의 열망을 무척 보고 싶어하고 물론 배가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실습자들은 이야기 속에 있는 보화들을 어떻게 찾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오직 그 이야기**의 정보를 주고받는 첫 단계이다. **오직 그 이야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성경을 공부할 때 현명한 상담자 (Wise Counsellor)의 몇 가지 질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경건의 시간은 강화될 것이다.

실습자들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직 그 이야기**를 간결히 정리해 논 표에 있는 질문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그 표를 나누어 준다. 실습자들은 훈련자료인 **오직 그 이야기 의 성경의 상호발견** (STS Interactive Discovery of the Bible) 과 **실습자들을 위한 음향기를 통한 훈련** (Practitioner Audio Training) 과 같은 자료들을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초대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토론하는 동안에 그룹을 감독한다.

대부분의 새로운 실습자들은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그 이야기**의 가치를 전하여 주고자 한다.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서로를 경험하고 깊이 있는 발견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직 그 이야기**에 관하여 열성적이게 하고 정보를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새로운 이야기하는 자들 (new storytellers) 또한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얼마간의 자료들과 함께**, 오직 그 이야기**를 사용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오직 그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를 주는 것은 다음 것들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오직 그 이야기**과정의 모든 부분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 명백한 **오직 그 이야기** 모델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오직 그 이야기를** 특징짓는 모든 신학적인 것 (목적과 용도) 을 알아야 한다.

어떤 실습자들은 훈련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앞서 달려서 강사로써의 자격증을 받으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간단히 빨리 가져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원한다."

꽤나 여러 번 씩, 우리는 열성적 이며 좋은 동기를 가진 실습자들이 인정받지 않은 **오직 그 이야기** 훈련장을 마련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다. 어쨌든 그런 워크샵을 하는 그런 분들은 **오직 그 이야기**의 강사로써 충분히 훈련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충분히 만들어진 오직 그 이야기 훈련을 제공할 수 없다. 그 결과 실습자들에 의하여 가르쳐진 사람들 중에서 오직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오직 그 이야기를 이해하든지 그가치를 인식한다. 그래서 가르침과 이야기의 토론이 효과적이고 재 생산적인 모델을 기대하고 왔든 사람들이 성취감도 만족한 경험도 받지 못했다.

그 참석자들은 절반 정도만 준비되었는데, 나쁜 점은 그들이 "**오직 그 이야기**를 모두 경험 한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점이다. 조숙하고 약한 경험으로 인하여, 그들은 온전히 인정받은 워크샵에 참석할 마음을 갖기가 아주 어렵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오직 그 이야기를 맛보아 알고 있으며 그것은 자신들에게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슬프게도, 우리는 그들에게 기술 전체를 가르칠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한다.

"단순히" 는 단순이 아니다 (Simply is not simple). 얼핏 보기에,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 라는 말은 사람들을 **오직 그 이야기**는 "단순하다 (simple)" 는 생각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것은 **오직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워크샵에서 만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전체라면, 우리는 하루 만에 쉽 게 훈련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직 그 이야기**는 가르침과 선교전략에 있어서 많은 형태의 변화들을 소개한다. 또한 사람들이 최선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성경 속의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생각들의 변화들도 있을 수 있다.

워크샵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실습자들 속에 그러한 열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연습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원하는 실습자들에게 같은 투자를 하도록 요청한다.

오직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방법을 합당한 훈련 없이 행한다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다음세대는 결코 적합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끝을 낼 것이 다. 그런 분들이 사역에 이야기들을 사용하면서 갈등할 때, 그 실망은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잘못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모든것을 함께 포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처음의 37 시간-훈련은 참석자들이 **오직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행하며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정보들을 소지하고 그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얻는다. 어쨌든,그 정보는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을 어떻게 인도하며, 진단적인 지도 (diagnostic coaching), 혹은 오직 그 이야기 과정과 방법 속에서 여러 형태의 변화들에 대한 목적들과 변증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뜻은 실습자들이 제자들을 배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도록 돕고 오직 그 이야기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인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실지로, 우리는 오직 그

(Discipleship Multiplication)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본서의 '제 11 장: 사용하는 곳 – 배우는 방법들과 오직 그 이야기 확산'을 보라.)

만일 당신의 그룹이 훈련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에게 연락 하기를 바란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온전한 강사의 자리까지 가는 모든 길을 안내하고 싶다. 우리의 전문은 철저하게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래의 사항들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은 자격증을 얻는 강사가 될 수 있다:

- 워크샵 내용을 안다.
- 오직 그 이야기의 이야기들을 능숙하게 말하는 것을 보여준다.
- 오직 그 이야기 훈련 각각의 요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안다.
- 진료적인 지도에 대한 능력을 보여준다.
- 오직 그 이야기 안내문들을 사용하여 워크샵을 인도할 능력을 담임강사에게 보여준다.

강사들 (Instructors): 보조 (Assistant), 예비 (Provisional), 자격증을 받은 강사 (Certified) 그리고 담임 (Senior).

이 강사 등급의 어느 것에라도 들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의 진수에 있어서 한 뜻과 한 가슴을 갖기 원한다. 우리는 강사를 지망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우리의 웹 사이트에도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이야기 전파--오직 그 이야기 (The God's Story Project-*Simply The Story*) 의 교리적 진술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고수한다.

- 신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받은 유일한 책이다.
- 삼위 일체의 교리
- 인간의 타락, 결과에 따른 도덕적 부패와 중생의 필요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처녀 출생, 무죄한 삶, 대속적인 죽음, 육체의 부활, 승천, 장래에 육체로 지구에 다시 오심.
-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교리.
-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의 육체적인 부활.
- 구원 받은 자들의 영원한 생명과 잃은 자들의 영원한 심판

보조강사 (Assistant Instructor): 워크샵에 참여한 후 대부분의 실습자들은 작은 그룹 "지파"의 지도자로써 **오직 그 이야기**의 워크샵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그들은 보조강사로써 섬긴다. (우리는 각 그룹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주어 부른다.)

예비강사 (Provisional Instructors): 워크샵에서 최소한 3 일 동안의 보조를 한 후 보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준비과정 (Preparation) 과 제시과정 (Presentation) 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그 이야기를 친절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가르치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자격증을 가진 강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강사를 승인하고 예비강사라는 칭호를 줄 수 있다.

자격을 받은 강사들 (Certified Instructors): 하나 혹은 두 개의 웤샾을 보조한 후, 예비강사들은 자격을 가진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임강사에게 **오직 그 이야기** 웤샾과 **오직 그 이야기** 개념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기술의 정도를 담임 강사에게 보여야 한다. 자격을 갖춘 강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격있는 강사가 되는 것을 인준하는 것 외의 모든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식적인 워크샾을 가질 수 있다.

담임 강사들 (Senior Instructors): 담임강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새로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담임강사와 함께 가르치면서 가르침, 평가, 새로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격려에 대하여 전문성을 보여야하고, 워크샵을 조직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한다.

담임 강사는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샾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자격 있는 예비 강사를 "자격 받은 강사" 로 인준하고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오직 그 이야기 구두성경학교의 강사들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고 있으며 원주민으로써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배출된다.

제 11 장: 사용하는 곳—배우는 방법들과 오직 그 이야기 확산

오직 그 이야기를 사용할 곳

당신의 현존하는 사역 속에 오직 그 이야기 활용하기. 어린이들이나, 십대들, 청년들이나 장년들의 어느 연령층이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오직 그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토론시간에 생기를 부어 넣을 것이고 당신의 그룹인들을 참여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다루고자 하는 관찰과 적용의 숫자를 조정함에 따라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 이야기 제시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당신은 항상 자원하여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서 30 분 밖에 이야기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다시 할 지원자 찾기는 생략함으로써 시간을 얼마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후에 곧 바로 전체 인도하기 (Lead Through) 를 하라. 오직 그 이야기방법은 여전히 효과적이다.

대화적인 오직 그 이야기: 오직 그 이야기에게 분배된 시간이나 기회가 아주 짧을 때 여러분은 약간의 아주 창조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 훈련시간에 사람들이 **오직 그 이야기**의 기본적인 기술을 알게된 후,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의 이 특별한 응용을 지도한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다;

일곱 구절이나 그 보다 작은 구절의 이야기를 하나 골라서 약 1 분 안에 이야기하고 몇 개의 관찰과 적용들은 약 5 분 내지 10 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야기를 모두 한 후, 각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 하면서, 그 때마다 오직 몇 개의 관찰 질문만 하라. 그러고서, 그룹이 이야기에서 몇 개의 관찰을 찾아내면, 그들이 발견한 관찰에 대한 적용질문을 하라.

각 질문을 하기 전에, 당신이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원하는 보화가 있는 그 자세한 부분이 있는 이야기 부분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0-45 을 얘기했다고 하자, 당신은 질문에 대한 서언으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애원하기를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하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한 후 질문을 하라. 이것이 열쇠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질문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방금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말 한 다음 질문하라.

목회자들의 도입.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의 목회자들과 회중들은 강단에서 **오직 그 이야기를** 사용하기를 주저한다. 설교도중에 목사가 질문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습관화가 되어있지 않을 뿐이다. 더구나 읽는 것 대신에 이야기로 하는 것은 어떤 집단에서는 큰 도약이다.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에 참석하여 그 개념을 좋아했던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찾아냈다:

1. 형식을 갖추지 않은 청년들 모임에서 **오직 그 이야기**를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보고를 해 왔다. 청년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후에 그 부모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는 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와 같은 종류의 말들을 했다.

2. 다른 목회자들은 **오직 그 이야기** 모형을 강단에서 사용한다. 사용하되 이야기를 하는 대신, 성경에서 이야기를 읽는다. 이들도 성경을 읽을 때는 역시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성경봉독

방법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고는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 식 "모형이라고 말한다. 그런 후 목회자들은 영적인 관찰과 적용질문을 한다. 어떤 목회자들은 목소리를 내어서 대답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사학적인 질문방식을 취한다. (우리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수사적인 질문에는 소리 내어 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는 점은, 질문 후에 목회자가 말을 하지 않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질문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수다. 짧은 침묵을 허락하는 이 특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침묵 후에 목회자는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후 그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목회자들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후 모든 사람들이 서너 명씩 작은 그룹을 만들어 질문을 함께 토론하게 한다. 몇 분 후에 목회자는 회중이 발견 할 수 있는 생각들이나 혹은 발견하였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3.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오직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문맹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한 방법 "으로 설명한다. 회중들은 이 구두 방법을 경험하는 것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4. 목회자들은 **오직 그 이야기**를 그들 교회의 주일학교 프로그램 지도자들에게 소개한다. 또 어떤 분들은 주중에 가정집회 때 사용한다.

5. 어떤 분들은 **오직 그 이야기**를 새신자반에서 사용한다. 이 학급을 위하여 기본적인 유용한 이야기 시리즈가 " 배가 사역 (*Ministry That Multiplies*)" 이라는 책 속에서 발견된다.

반응 없이, 전체 오직 그 이야기를 살리기.

1. **오직 그 이야기 식**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15,000 명의 큰 그룹에게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육성으로 응답하기는 불가능하여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시 이야기 하기(Retell the story)를 하도록 했다. 전체 인도 (Lead Through) 는 생략되었고 질문들은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했다. 사람들을 계속 참여 시키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자들은 몇 번씩, "만일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

2. **오직 그 이야기**의 이야기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실행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는 생략되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시행된다. 열쇄는 각 질문 후에 사람들에게 생각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어떤 "뜻 없는" 잡담, 혹은 행동으로 5 초를 채우는 점이다.

우리가 "뜻 없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만일 당신이 뜻 있는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고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들은 뜻이 있는 말들이다: "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답은?"

<뜻 없는 잡담>의 정의를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내린다; 즉 사람들이 뜻이 전혀 없는 소리를 내지만, 침묵의 공간을 채우는 소리. 이 뜻 없는 소리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경청자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그러나 그 소리들

은,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얼을 다른 방송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채운다. 예를 들면, 뜻 없는 소리들은 , " 흠.....?", "아.....?" "응, 응" "음....." 등이 될 수 있다.

오직 그 이야기 웹사이트에 여러가지 다양한 이야기식 형태가 담겨있다.

3. 만일 당신이 **오직 그 이야기**에 숙련되어있고 라디오 방송실 마이크 앞에 3 명이나 4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훌륭한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한 필리핀에 있는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자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 매주마다 하는 몇 개의 방송 때 마다 650 개가 넘는 메시지와 전화를 받는다. 이 방법과 그리고 다른 라디오 방법이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극 (Dramas): 재미있고 능력 있다.

극은 하는 것과 보는 것 모두 재미있다, 그리고 극은 이야기를 보다 사실적으로 만든다. 극을 이야기 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라.

보조자에게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말없이 행동만 하도록 요청하라. 그러나 이야기 하는자는 보조자들이 이야기를 행동화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청자들은 전체의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서만 듣고,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처럼, 경청자들이 이야기 전체를 한 사람에게서만 듣게 될 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나 또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력자들이 등장인물들의 말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만일 조력자들이 말을 하면, 그것은 연극이 된다. 비록 연극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흥미를 돋구고 참여한 자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 되어질 능력을 잃는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줄을 말할 때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부분을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전달 할 때, 말해야 할 부분이 잊혀지게 되면, 심각한 성경이야기가 코미디로 변할 수 있다. 이야기의 신중한 메시지가 바보스럽게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라.

하나님의 이야기 학습방법 (The God's Story Project)은 많은 자료들을 (많은 나라 말로) 제공할 뿐 아니라---오직 그 이야기를 배우고 보급시키는 방법들을 제공한다.

1. **오직 그 이야기 안내서.** 본 안내서는, 소리의 형식을 취하든지, 문자의 형식을 취하든지, **오직 그 이야기** 학습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2. **오직 그 이야기 비전 제시.** 강사들이 가능할 때, 반시간부터 두 시간 길이의 강의를 한다.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개념을 설명하고, 결과의 영향을 나눈다. 하나의 **오직 그 이야기**식 이야기의 경험, 약간의 실습, 어떤 영향을 끼친 보고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사람들로 하여금 워크샵을 초대 하든지 혹은 워크샵에 참여할 것인지를 알게 한다.

3. **오직 그 이야기 3 일간 워크샵:** 이 모델은 오직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실습으로 참여하게 한다. 이 3 일간의 훈련으로 많은 참여자들은, 연습과 더불어, 이야기를 사용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실습자 (Practitioner) 의 기술을 충분히 획득한다.

4. **오직 그 이야기 일회 워크샵.** 우리는 두 부분으로 겹쳐져 있는 이 특별한 워크샵을 고안했다. 이 포룸이 거듭 진행되면서 자격있는 **오직 그 이야기** 강사들이 배출된다. 이 강사들은 차례로 다른 사람들을 훈련한다. 이 워크샵은 한 팀의 강사들이 훈련시키기 위해 먼 길을 갔을 때나, 혹은 참석자들이 먼 곳에서 왔을 때 이상적인 선택이 된다.

처음 18 시간 동안은, 세 사람 당 한 명의 강사가 있는 작은 그룹이 가르쳐진다. 18 시간의 집중교육과 실습 후에, 이 새롭게 훈련 받은 실습자는 보조 강사의 역할로 들어간다. 이들은 19 시간의 후기 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교한 보다 큰 그룹의 훈련을 돕는다. 이 후기의 "워크샵"은 다섯 명의 참석자에 한 사람의 보조강사 비율이 이상적이다.

이 37-시간 훈련 후(보통 5 일간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이 보조 강사들은 예비강사들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일찍이 설명한대로, 미래의 연습과 지도력의 경험으로 이 예비 강사들은 자격을 받는 강사들이 될 수 있다.

5. **교회 부흥자 오직 그 이야기 워크샵.**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일요일의 시간을 섞어 맞추든지, 혹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사용된다. 각 주마다 14 시간의 교육시간이 4 주 연속해서 이루어지면 평균 규모의 교회 모든 교인들은 자신감 있는 오직 그 이야기실습자들이 된다.

5 주와 7 주 사이에, 대형교회 (50.000 명 까지)의 모든 교인들은 훈련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훈련 받은 사람들 중 핵심적인 사람들은 오직 그 이야기의 강사로써 자격을 받게 된다. 놀랍게도, 이 부흥자 워크샵에서,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교회를 커버 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 주 혹은 두주의 주말 훈련만 더 필요하다!

6. **오직 그 이야기 가정 워커샵.** 한사람의 자격있는 오직 그 이야기 강사는 가정에서 하는 워크샵에 세사람의 신자들을 초청한다. 강사는 워커샵을 완주하기 위하여 6 주동안, 한주에 한번씩, 2 시간 30 분을 인도한다. 강의는 저녁이나, 오후나 혹은 주말에 갖일 수도 있다.

이 형태의 워커샵은 직장이나 가정의 의무 때문에 하루나 혹은 그 보다 더 긴 시간이 요구되는 워커샵에 참여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제공된다. 또한 가정 분위기는 수줍음이 많은 분들에게 편안하고 안정감있는 학습분위기를 제공한다. 우리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안내서와, 자료들과 계획서들을 준비하고 있다.

여섯번의 강의후에, 이 한사람의 강사는 세사람의 **오직 그 이야기** 실습자들을 배출한다. 이 새로운 세 사람의 실습자들은 두번째의 6 주간 가정 워커샵에 참여하도록 격려된다. 세 사람들은 각자 새로운 세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독려된다.

일회 워커셥 (One-Stop)과 교회 부흥자 워커샵 (Church Multiplier) 에서 우리들이 하는것 처럼, 강사는 이 새롭게 훈련된 자들을 서서히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 한다. 두번째 6 주간의 훈련을 마칠 때 까지, 처음 세 사람은 각자가 세 사람 씩을 훈련 하도록 도운다. 또한, 처음의 이 세 사람들은 **오직 그 이야기** 기술을 더욱 익히고 보조 강사로써의 경험을 한다.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키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모이는, 가정 성경 공부반이 되든지 혹은 교제하는 그룹이 되든지 결정 할 수 있다.

만일 이 열두사람이 각자가 세사람씩 더 초청하여 훈련하는 과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면, 6 주간의 과정을 끝내고 나면, 이 그룹은 36 명으로 성장할 것이다 (원 강사까지 37 명이 된다). 많은 가정은 이 숫자를 수용할 수 있다. **오직 그 이야기** 전달 강습이 가정에서 많이 행하여 졌다. 이 네개의 그룹은 다른 방으로 각각 나누어 모이거나 때로는 옥외에서 모일 수도 있다.

오직 그 이야기에서 새롭게 훈련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실습자들을 훈련하여 숫자를 계속 증가 시킬 수도 있다. 가정 그룹을 만들거나 혹은 성경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기술들을 전도에 활용할 수도 있다. 혹은, 그들은 주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는 성장을 위해 그냥 **오직 그 이야기**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이 방식이 놀랍게 활용되는 것을 본다.

오직 그 이야기 기술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매우 효과적으로 배우고, 개인적인 적용을 하며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무장시킨다. 이들의 삶과 이들이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훈련 한다면, 첫 자격증 있는 강사에게 인도 받은 첫 가정 워커샵은 이년 안에 6,000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은 제자화와 멘토링의 자연스럽고 실행가능한 모델이다. **오직 그 이야기**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과 숫자 증가가 왜 그렇게 위대한지를 볼 수 있다.

7. **제자화-증가.** 이야기 실습자로써 **오직 그이야기** 워크샵을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새로운 기술들을 일대 일 혹은 그룹에서 사용하도록 무장된다. 여러가지 전달 매체와 *증대 사역 (Ministry That Multiplies)* 같은 교과 과정은 이야기들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계속하여 기술을 쌓아가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역을 하면서---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 이야기** 정보의 얼마 만큼을 어떻게 전달 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준다. (웹사이트의 맨 부분에 있는 "훈련 정보 (Training Info) 와 "자원들 (Resources)" 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8. **전단지.** 오직 그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 에 대한 설명과 간증과 이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세겹으로 접은 전단지이다. 특별한 주제들과 오직 그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을 설명하는 다른 전단지들도 요청하라.

9. **실습자들을 위한 음향기기를 사용한 훈련**. **오직 그이야**식, 성경 이야기 준비 경험 (Bible-story-preparation experience)을 깊게 하는, 상호간의 그룹 토론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룹들은 토론과 발견으로 두시간에서 여섯시간을 보낸다. 엠피 3, 씨디, 혹은 태양열기기 등에 담겨있다.

10**. 상호적인 성경 발견 (Interactive Discovery of the Bible/IDB).** 수사적인 질문들과 그룹질문들이 있는 성경 이야기들. 학교들과, 학급과 가정 그룹 시간에 사용하라. 신자들과

구도자들이 열심히 참여한다. 발견을 위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60 분에서 90 분이며 디비디와 음향기기에 실려있다.

11. **인터넷 자원. 오직 그 이야기**에 관한 기록물들과, 음향, 그리고 비디오 형태속에 있는 풍성한 자료들이 인터넷, simplythestory.org 에서 찾을 수 있다. **오직 그 이야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 그 출발, 자주 받는 질문들, 신학,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들, 세계에서 사용하는 자들의 간증들, 앞으로 있을 훈련들, 말로하는 성경 학교들, 표본 이야기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위한 **오직 그 이야기** 훈련 비젼 제시를 위한 3 분 비디오, "*무엇 그리고 왜 (What & Why)*" 를 사용하라. 자료들과 짧은 글들이 STS 웹사이트에 정규적으로 첨가된다.

12. **연습과 가르치기.** 오직 그 이야기 연장 수업을 통하여 스카이프로 이야기를 연습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합류할 것을 고려해 보라.

13. **음향으로된 안내서.** 씨디에 녹음된 **오직 그 이야기**안내서가 가능하다. **오직 그 이야기** 훈련을 담은 디비디를 요청하라.

14. **트위트.** http://www.twitter.com/SimplyTheStory 를 보라.

15. **초청 (Hosting).** 워크샵을 초청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하면, 본 안내서 끝에 나열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의 디렉트에게 연락하라. 오직 그 이야기웹사이트에 가서 "초청(Hosting)"을 찾으면 필요한 모든 안내들을 받을 수 있다.

부록 A: 코치 복습 양식

이야기 하는자_____강사_____날자 _____

오직 그 이야기 과정의 세부 사항들은 오직 그 이야기 안내서에 기록되어있다. 이야기 하는자들에게, "나중에 코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 당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기 전에 이점을 명심하라: 당신의 워커샵에 참여한 자들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상관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말로 의사전달을 하는 사람들이며** 또 당신이 발표하는 이야기의 내용만 안다고 가정하고 (또 아는 이야기 내용이 있다면 현재 훈련기간 동안에 들은 이야기 내용이 전부라고 여기고), 당신의 이야기를 발표해야한다.

강사 코치 (Instructor-coach)로써, 당신은 이야기하는 자들이 실행하기를 바라는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기 바란다.

1) 이야기 시작 전 부분 (소개 부분)을 짧게 그리고 필요할 때 만 하라.
2) 소개 부분에서 필요 없는 성경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
3) 성경 이야기의 정확성을 기하라. 성경 이야기의 어떤 정보도 빠뜨리거나 더하지 말라.
4) 하나의 성경 이야기에 머물라. 성경 다른 곳에 있는 같은 이야기의 정보와 섞지를 말라.
5) 지원자들과 경청자들이 질문들에 답하였을 때, 사려 깊고 격려가 되는 응답을 하라.
6). 전체 인도하기 (Lead Through)는 생동감있게 하지만, 정확하라. 이야기 전체를 하라.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라. 경청자들을 격려하라.
7). 부분 이야기를 다시 하고 난 후, 현명한 상담자 질문중 특별한 하나를 골라 공개적인 대화의 문을 열도록 하라.
8). 그룹원들의 특별한 질문에 답 할 때, 자연스러운 융통성을 보여라.
9).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분들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십니까 혹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여 그들을 토론에 참여시키라.
10). 사람들이 발견한 관찰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라. 그런후 사람들이 적용 부분을 찾도록 네가지 질문 (멀리서 가까이로 닥아가는)을 사용하라.
11). 설교하지 말라. .
12). **오직 그 이야기 (STS)** 의 다섯분야를 설명하라.

이야기 하는자가 설명 한 각 분야를 표시하라. 빠뜨렸거나 분명치 않은 곳은 표시하지말라.

영역	이야기 제목	참조		이야기 하기	자원자	전체 인도	관찰	적용
완주								
전체적인 보완점								

이야기 하는자가 행한 모든것을 기억하며 강사들을 돕기위한 코치 복습 양식

이야기하는 자에게 말하라: "내가 기록하는 어떤것은 당신이 아주 잘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가끔 나는 당신이 좀더 연습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기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는 나중에 내가 말할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신이 방해 받지 않고 **오직 그 이야기** 전체 발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발표를 하다가 다음 과정을 잊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때 당신을 돕기위함은 물론입니다.
강사에게 주는 말: 각 분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아래것 이외의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기록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 세번 하기에 대한 코치 복습 양식

시작 시간	기도	성경 사용
	이야기, 해주고 싶은 말	
1. 소개		
2. 정확성		
3. 흥미롭게 듣기		
4. 이야기안에 거하기		
5. 몸짓		
	자원자, 해주고 싶은 말	
1. 자원자 지원		
2. 격려		
	전체 인도, 해주고 싶은 말	
1. 완주의 정확도		
2. 다양한 방법 (3)		
3. 참여도		
4. 정확성		

5. 응답에 대한 지원	

두 종류의 영적인 보화에 대한 코치 복습

시작 시간	**영적인 관찰들, 해주고 싶은 말**
1. 나눠진 이야기의 정확성	
2. 질문 마다 네번째 이야기 하기	
3. 현명한 상담자의 모든 질문 사용	
4. 기억나게 하는 몸짓 사용	
5. 토론의 빗나감	
6. 그룹의 상호작용	
7. 서로 친절하기	
8. 빈약한 응답을 잘 처리함	
9. 이야기 안에서의 대답	
10. 키 워드들 사용	
11. 듣기를 잘하기	
12. 이야기로 하여금 교훈하게 하기	
시작 시간	**영적인 적용, 해주고 싶은 말**
1. 영적인 관찰을 다시 말하기	
2. 멀리서부터-가까이 4 질문 사용	
3. 이야기 속에서의 깊은 적용.	
4. 빗나가는 토론	
5. 그룹 참여도(%)	
6. 상호 친절	
7. 확신을 주는 지원	
8. 그룹원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기	
9. 설교를 피하기	

그룹에 대한 전체적 지도력

1. 문제 해결	
2. 이야기 밖의 질문을 다룸	
3. 토론 그룹에 대한 설명	
4. 시간 경영	
5. 참고 제공	

부록 B : 본보기 이야기를 통한 여행
질문들 준비하기
삭개오, 누가복음 19: 1-10

본 부록 제목에서 가르치는데로, 우리는 이제 다른 본보기 이야기를 통과하는 여행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선택하였다. 이 이야기를 선택한 부분적인 이유중 하나는 삭개오 이야기는 종종 어린이들을 위한 쉬운 이야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그렇지만 이 이야기 역시 깊다.

이 이야기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여 진다. " 삭개오라고하는 한 작은 남자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데, 그는 군중 너머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위로 올라갔다. 그는 세리장 이었기 때문에. 이야기 속의 군중들은 이사람을 싫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을 알아보시고 점심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 집으로 오신다. 삭개오는 행복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가 갖인 돈의 절반을 주었는데, 우리는 삭개오 처럼 되어야 한다. "

위에서 말한 정보들이 이야기속에 있기는 하지만-----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것은 훨씬 더 많다. 우리가 **오직 그 이야기**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통과하면, 이 이야기속에 깊이 있는 많은 보화들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삭개오에 관한 이 성경 부분을 탐사하면서, 우리는 질문 만드는 일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의견 교환을 위하여 말로하는 방법이 아닌것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는 가능한 관찰과 적용과 질문들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의 생각에서 행하여 진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위하여 몸으로 당신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정신적인 과정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우리는 그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이테릭체로 기록된 것은 당신이 생각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기록된 질문들은 당신이 토론을 시작하기 위하여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본 성경이야기 준비는 보화를 찾고 그 찾은 보화들로 부터 질문을 만드는 특별한 진행과정이다. 이것을 당신 마음으로 행할 때, 이야기는 당신의 노트들이 된다. 이야기는 빨래줄과 같다. 마음속에 있는 발래줄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당신의 빨래줄에 보화들과 질문들을 걸도록 하라.

이 본보기 여행길의 거리를 보면서, 당신은 충격으로," 이건 너무 길어!"라고 놀랄 지 모른다. 그런 후 시작을 하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 처럼), " 반복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할 지 모른다. 솔직히, 이 보기는 당신의 학습방법에 맞지 않을 지 모른다.
그러나 질문 만들기가 당신을 도운 것 처럼, 이 보기에서 적어도 배우려고 시도는 해 볼것을 권한다.

시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질문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배우는 곳이 된다.

처음에, 당신이 삭개오 이야기를 당신 방법대로 알려고 할 때,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만큼의 보화를 당신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세계의 많은곳에서 가르쳤다는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은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많은것들을 배웠다. 우리는 많은 시간에 걸쳐 발견한 것들을 쌓아왔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제 많은 보화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모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보통 **오직 그 이야기** 시간의 그룹공헌 시간에 발생한다.

당신이 계속하여 **오직 그 이야기**방법으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발표한다면, 당신 역시 보화들을 더욱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될것이다. 사실은, 당신이 나중에 이 이야기에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외에 더많은 보화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 당신은 진리를 공급받는일에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본장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다: 당신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고 배운후에,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보화를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그 보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도록 돕는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

당신은 우리가 제시하는 영적인 관찰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 혹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며, 그것이 문제라고 여겨서는 아니된다. 당신이 **오직 그 이야기**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칠 때, 당신은 이야기 속에서 개인적으로 확신한 것만을 나누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생각들은---토론할 자료들이기도 하다. 그룹에서 그 생각들을 토론할 때, 주님께서는 아주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성경의 그 부분속에 있는 새로운 이해들이 빛으로 나오게 될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발견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질문을 발전시키는 일은 **오직 그 이야기**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들 중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반복이 이새로운 기술에 당신을 더욱 편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기바란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실지로 가르칠 때, 시간이 모자라든지 혹은 다른 이유에서라도, 당신은 한번에 여기에 있는 몇가지 만이라도 제시 할 수 있다.

자 이제 시작해 보자.

이 열구절의 이야기를 **오직 그 이야기** 양식으로 먼저 배우기를 연습할 것을 권한다.
(아래에 있는 대화식 이야기의 표본을 사용하라).

본 안내서에 있는, 이야기를 준비 하는 방법"에서 일찍 설명한데로 이야기를 배우라.:

1. 이 10 구절을 **큰소리를** 내어 전체로 한번에 읽으라.
2.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당신은 이것이 이야기를 대화체로 된 하나의 표본이라는 것을 알것이다. 그것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당신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세금 징수관 (publican) 이라고 말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세리 (tax collector) 라고 말 할 지 모른다.
3. 마음속으로 이 이야기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
4. 읽기를 다 끝낸 후에 즉각 눈을 감고 이야기를 기억 할 수 있는 만큼 큰 소리를 내어서 반복하라. 마음속에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라. 당신은 정확한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하지 정확한 단어들을 기억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5. 다시 큰 소리로 읽으라. 당신은 이야기의 빠진 부분이나 우연히 첨가한 부분을 알게될 것이다.
6. 눈을 감으라. 다시 이야기를 큰 소리로 반복하고 말할 때 이야기를 행동화 하도록 몸짓을 사용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번정도 읽고 반복하면 종종 사람들은 전체 이야기를 꽤 정확하게 말 할 수 있음을 알게된다! 이야기를 탐사해 갈수록 당신은 그 이야기에 보다 더 익숙하게

될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역에 사용하기 전에 당신은 그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알기까지 읽고 반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될 것이다.

어쨋든, 이렇게 네번에서 여섯번을 반복하여도 이야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갈등한다면, 아마도 십중 팔구는 내용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이 아닌 낱말들을 암기하는 옛날 방식으로 무심코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정보를 배우는 우리들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익숙한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게하고 **오직 그 이야기**에서 고안한 것도 그렇게 하도록 변화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이야기를 기억하기가 매우 힘들면, **오직 그 이야기**가 제시한 방법으로 돌아가서 그 방법으로 재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서 다음의 삭게오 이야기를 다시 배우도록 시도해 보라.....**오직 그 이야기** 스타일로. 이번에는 반복할 때 기록되어있는 이야기를 살짝 훔쳐보지 않고 반복을 시도해 보기. **소리를 내어** 읽고 소리 내어 반복하기를 기억하라! (눅 19:1-10 대화체)

>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키가 작은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 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다. 그러나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현대인의 성경, 생명의 말씀사 1990 ; 역자 주)

요 주의.

이야기를 준비 한 후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동안 말씀에 대하여 일어났든 모든 생각들이 확실히 객관성 있는 사고인가를 확신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것이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확실 성이 없는 그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그 생각을 일단 옆으로 두고 다른 이야기에서 그 생각의 확실성이 밝혀지면 그 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때때로 이야기를 제시하고 질문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생각에 어떤 것들을 첨가해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또한 가끔, 당신이 질문을 통하여 가르칠 때, 당신의 이전 생각들이 옳았다는 확증을 받게된다!

더 이상 읽어 나가기 전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영적인 보화들을 발견 할 수 있는지 시간을 드려라.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현명한 상담자의 각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라. 이야기속의 각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선택들)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선택의 결과들과 영향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혹은 행동하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연습은

당신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한 후, 마음으로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당신의 관찰들과 우리들의 관찰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떤 보화들을 당신은 발견 할 수 도 있다. 이 처럼 당신이 주목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어떤 관찰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이테릭체로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보석을 찾는 일을 즐겨라!

우리들이 생각 했든 얼마간의 영적인 관찰들:

1.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 보이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었다.*

2. *이 삭개오는 키는 작았으나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다. 그는 부자였고 세금 징수자들의 장이었으나 예수님을 보고싶은 마음이 무척 강하여, 쉽게 접근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삭개오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다.*

3.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중앞에서 길을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감으로 자신의 명예가 추락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을 중단 시키지 못했다.*

4. *우리는 예수께서 대중들이 밀집하게 둘러쌓고 있는 한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까이 있는 아무도 부르시지 않으셨다. 대신 예수께서는 자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나무위에 있는 야릇한 그 한사람을 선택하셨다!*

5.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6.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자청하여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대 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지나치게 용감한 행동이다. 예수께서는 마치 미래를 아는것처럼, 무슨일이 일어나 "야만(must)" 하는 지를 아는 지식과 확신을 보이셨다.*

7. *어떤 사람이 위를 바라볼 때, 특히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가 위를 바라 볼때 따르는 자들의 눈도 지도자를 따라 위를 올려 볼것이다. 그것은 삭개오를 본 것은 예수님 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았음을 뜻한다. 삭개오는 "발견되었을 때" 두려워 하거나 부꺼러워 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는 기쁨을 보였다.*

8. *예수께서는 그분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가야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호출에 망서림 없이 명확하게 응답한 것은 재미있다. 그는 서둘렀다. 실제로는, 그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9. *군중들은 삭개오를 대적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접대를 받다니 (혹은 손님이 되기 위해 가다니; 영어성경;역자주) "라고 불평하였다. "되기 위해 갔다 (gone to be)" 는 뜻은 예수님께서 막 금방 떠나고 있다거나 혹은 떠나 버렸거나 한 상태를 가르킨다.*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서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비난을 알고계셨든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시지 않고 삭개오의 집을 향하신 걸음을 계속하셨다.

10. "죄인의 집에 손님이 되기 위해 가버린" 예수님께 대한 군중들의 불평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11. 군중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 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다. 군중들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서 삭게오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조차 없었다. 비록 그들의 비난이 예수님께서 누구랑 식사를 하는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같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 가정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옳바른 선택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군중들은 예수께서 방문하시기로 한 선택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12. 이 비판적인 군중은 그들 자신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예수님께 정면으로 질문을 한것 같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그리며 불평한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13. 부자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14. 삭개오는 자신이 만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면, 그 취한 것의 네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했다. 삭개오는 그가 "만일 법정에 기소되어 유죄라는 판결이 나면" 네배를 갚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삭개오는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돈을 주고 있었다고 말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중들의 의견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의 절반을 이미 주었다면, 남 몰래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속여 빼앗은 모든사람들의 것을 네배로 이미 갚았다면 삭개오는 군중들에게 의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야기의 어떤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 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며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이다. 예수께서는 구원이 그날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삭개오가 매우 관대함을 보인것을 본다.

15. 처음에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접을 사려고 시도했든 것 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오직 한 사람이며,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오직 한 사람이다.

16.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직접 삭개오에게 "오늘 이집에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 곁에 다른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상대를 바꾸고 계시는것을 알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상대들로 부터 삭개오를 방어하고 계셨다!

17.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오신 목적은 "잃은자를 찾아 구원하는것" 이라는 말씀은 확실히 삭개오를 존중하셨고 또한 군중을 비평하신 요약된 말씀인듯하다.

18.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있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보는, 한 의미심장한 지도자 예수를 본다.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다. 예수는 모든사람들의 의견을 항거하고 가셨다. 그분은 군중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무슨말을 하는지 아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얻었다고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이셨다. 이 모든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안다.

19. 이야기의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있었다. 그런후 그것은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는 이야기가 된다.

관찰 질문들 만들기:

연습을 위하여, 위에 있는 모든 관찰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질문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가끔 경청자들이 하나의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몇가지의 질문을 사용하고 있는것을 보게될 것이다.

각 질문들은 영적인 관찰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했든 관찰들을 도우미로 다시 기록할 것이다. 이 관찰들은 "SO" 라고 적을 것이다. 그런 후 그 관찰로 인도하도록 도울 표본 질문들을 우리는 "SOQ" 라고 적는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관찰을 하도록 점차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은 새를 새장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작은 빵가루를 한줄로 뿌려놓는것과 같은 것이다.

이 질문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명한 상담자가 사용했든 질문들과 관계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것을 알게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 혹은 선택들, 그리고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는가를 생각하고, 그 선택들의 결과들과 영향들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혼을 배울 수 있는지를 질 문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찾는다.

1. SO -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 보이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었다.*

SOQ –

- 이 이야기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싶었으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사실외에 우리는 사람들이 삭개오의 길을 막고있다는것을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군중들이 무슨일로 삭개오의 길을 막고있는가?
-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구도자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막았다면, 그것은 군중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2. SO - *이 삭개오는 키는 작았으나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다. 그는 부자였고 세금 징수자들의 장이었으나 예수님을 보고싶은 마음이 무척 강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삭개오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다.*

SOQ-

- 삭개오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사회적이며 사업적이며 경제적인 지위를 당신은 어떻게 묘사하겠는가?
- 그래서 삭개오는 그의 부를 약간 사용하여 큰깡패들을 동원해서 군중울 뚫고 들어갈 길을 만들었다. 그런가? 아닌가?
-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보는가?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보기위하여 정상적이고 쉬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을 때, 삭개오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였는가?

3. SO-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중앞에서 길을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감으로 자신의 명예가 추락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을 중단 시키지 못했다.*

SOQ-

-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것이 있는가?
- 삭개오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여기는 것을 알고있다. 이런모습의 사람이 예수를 보기위해 길을 달려가서 나무위로 올라가는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공공연하게 길을 달려가서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는 개인 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는가?
- 삭개오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는가?
- 삭개오가 취한 이 행동이 우리에게 삭게오에 대한 무엇인가를 보여 줄 수 있는가?

4. SO - *우리는 예수께서 대중들이 밀집하게 둘러쌓고 있는 한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까이 있는 아무도 부르시지 않으셨다. 대신 예수께서는 자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나무위에 있는 야릇한 그 한사람을 선택하셨다!*

S0Q--

- 예수께서 군중에 둘러쌓여 길을 걷고 계셨을 때 군송속의 어떤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셨는가?
-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는가?

5**. SO-**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SOQ-

-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한 말씀중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준 어떤것이 있는가?

6. **SO**- .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자청하여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대 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지나치게 용감한 행동이다. 예수께서는 마치 미래를 아는것 처럼, 무슨일이 "일어 나야만(must)" 하는 지를 아는 지식과 확신을 보이셨다.*

SOQ – 누가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인도하고 있으며 이례적인 이 초대는 어떠하였는가?

7**. SO -** *어떤 사람이 위쪽을 바라볼 때, 특히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인도자가 위를 바라*

볼때 따르는 자들의 눈도 인도자를 따라 위를 올려볼것이다. 이점은 삭개오를 쳐다본 것은 예수님 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올려보았음을 뜻한다. 삭개오는 "발견되었을 때" 두려워 하거나 부꺼러워 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는 기쁨을 보였다.

SOQ-

- 혹시 당신이 어떤 그룹의 일원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어떤것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 그래서 이 사람 삭개오는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속에 갖혔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

8. SO- *예수께서는 그분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가야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호출에 망서림 없이 명확하게 응답한 것은 재미있다. 그는 서둘렀다. 실제로, 그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SOQ-

-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은 삭개오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9 SO-. *군중들은 삭개오를 대적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접대를 받다니 (혹은 손님이 되기 위해 가다니; 영어성경;역자주) "라고 불평하였다. "되기 위해 갔다 (gone to be)" 는 뜻은 예수님께서 막 금방 떠나고 있다거나 혹은 떠나 버렸거나 한 상태를 가르킨다.*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서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비난을 알고 계셨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시지 않고 삭개오의 집을 향하신 걸음을 계속하셨다.

SOQ-

- 우리는 군중들의 불평하는 말에서 그들이 삭개오 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는 것을 안다. 삭개오는 군중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가?
-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계속가실 선택을 하셨다. 군중의 비판에 예수께서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겠는가?
- 군중의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겠는가?

10. **SO -** *"죄인의 집에 손님이 되기 위해 가버린" 예수님께 대한 군중들의 불평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SOQ-

- 군중들이 서로 수군 거린 말을 보아 우리는 삭개오에 대하여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영적인 것에 대하여?
- 군중이 한 말을 기초로 하여 생각해 볼 때 군중들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11. **SO-** *군중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 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다. 군중들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서 삭게오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조차 없었다. 비록 그들의 비난이 예수님께서 누구랑 식사를 하는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같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 가정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옳바른 선택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군중들은 예수께서 방문하시기로 한 선택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SOQ-

- 이야기 처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군중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움직여 나갔다. 사람들의 육체적인 움직임과, 그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외적인 관심을 볼 때 그들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
- 그러나 예수께 보인 실제적인 존경은 어떤가? 특별히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이 한 말을 볼 때 어떤가?

12. SO - *이 비판적인 군중은 그들 자신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예수님께 정면으로 질문을 한것 같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그리며 불평한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셨다.*

SOQ-

- 군중이 혼란 스러워서 예수님께 묻기를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 어찌하여 죄인의 집으로 가시는가 하였다? 아닌가? 당신 말이 옳다. 군중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했는가 아닌가?

13. SO - *부자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SOQ—

- 각개오는 어떤 넉넉한 약속을 했나?
- 그것은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화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14. SO - *삭개오는 자신이 만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면, 그 취한 것의 네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했다. 삭개오는 그가 "만일 법정에 기소되어 유죄라는 판결이 나면 "네배를 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삭개오는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돈을 주고 있었다고 말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중들의 의견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의 절반을 이미 주었다면, 남 몰래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속여 빼앗은 모든사람들의 것을 네배로 이미 갚았다면 삭개오는 군중들에게 의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야기의 어떤 장면에서 알 수 있는것은,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 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며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이다. 예수께서는 구원이 그날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삭개오가 매우 관대함을 보인것을 본다.

SOQ-

-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가 법적으로 도적으로 발견되었다고 알려주는 어떤 것이 있거나, 혹은 법정에 기소 되었거나 법적으로 범죄한 사실이 들어나서, 지금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 이야기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돈을 이미 돌려주고 있었다는것을 알 수 있는가, 혹은 당신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방문 했을 때 그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 삭개오에 관한 군중들의 의견으로 봐서 그가 특수하게 정직한 세금 징수관이었으며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나누어 주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 삭개오가 거짓으로 고소하여 빼앗은 돈의 주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준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 이야기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혹은 아닌지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15. SO -- *처음에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접을 사려고 시도했든 것 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오직 한 사람이며,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오직 한 사람이다.*

SOQ –

- 삭개오는 돈으로 예수님의 호의를 사려고 했다고 생각하는가**?**
- 이야기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그날 참으로 순수한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도록 도와 주는 무엇이 있는가?
- 예수께서 삭개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삭개오가 신앙을 갖게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 이야기에서 누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했는가?
- 이 이야기에서 누가 자신들을 죄인으로 보지 못햇는가?
- 이 이야기에서 몇명이나 되는사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였는가?
- 이 이야기의 전체에서, 누가 구원을 얻었는가?
-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 가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과 예수님께 갔으나 믿음을 갖게되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16 . SO--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직접 삭개오에게 "오늘 이집에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말씀 하셨다.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 곁에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상대를 바꾸고 계시는것을 알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상대들로부터 삭개오를 방어하고계셨다!*

SOQ-

- 이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을 때 이것은 오직

두사람과의 대화인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께서 "왜냐하면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어떤 암시를 볼 수 있는가?"

- 내가 하고저 하는 말은, 처음에 예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가 "그"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셧는가?
-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시는것 같지 않은가?
-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과 삭개오에 대하여 무엇을 알게 하도록 시도하고 계시는듯 보이는가?

17. SO-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오신 목적은 "잃은자를 찾아 구원하는것" 이라는 말씀은 확실히 삭개오를 존중하셨고 또한 군중을 비평하신 요약한 말씀인듯하다.*

SOQ-

- 예수께서는 그가 오신 목적은 "잃은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야기의 끝을 맺으신다.
- 예수님의 이 요약적인 말씀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 당신 생각을 좀더 말 해 줄 수 있겠는가?

18. SO--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있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보는, 한 의미심장한 지도자 예수를 본다.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다. 예수는 모든사람들의 의견을 항거하고 삭개오 집으로 가셨다. 그분은 군중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무슨말을 하는지 아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얻었다고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이셨다. 이 모든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안다.*

SOQ--

-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행동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보는가?
-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속에 우리가 그분을 단순한 한 인간이상으로 생각케 하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알 수 있으며 누구의 죄들이 용서받았는지 즉각 알 수 있는가?

19. S0— *이야기의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있었다. 그런후 그것은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는 이야기가 된다!*

SOQ—

-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이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 그러나 이야기에서 좀더 나가보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고계시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 그것을 이야기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있는가 혹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고있는가?
- 둘다 사실인가? 당신 생각은 어떤가?

우리들이 보는 영적인 적용들:

다음 부분은 영적인 적용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이다. **각 적용이 각각의 특별한 관찰위에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당신이 볼 수 있도록 돕기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더 관찰을

나열하겠다. 각 관찰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영적 적용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영적인 관찰에로 인도한 것 처럼, 영적인 적용에로 인도할 수 있는 질문의 예들을 당신은 읽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라고 시작되는 문구가 빠지는 것에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 질문은 경청자들을 관찰에로 인도하고, 관찰들은 적용에로 인도하며, 그런 후 질문은 경청자들을 적용에로 인도하는 방법을 복습할 수 있도록 모든 반복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는 영적인 적용의 목록들을 보게 될것이다. 각 적용들은 우리들이 조금전 다루었든 영적인 관찰에 기초를 두고있다. 순서를 따라 가기가 쉽도록, 영적인 관찰을 넣어 다시 "SO"로 표기한다. 각 "SO" 바로 뒤에 "SA"로 표기된 영적인 적용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적용, SA 들은 생각들로써 앞에 있는 영적 관찰의 생각처럼 이테릭체로 적혀있다.

1. **SO**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 보이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었다.*

   SA—*예수님의 추종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은 종종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주기 때문에 (혹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치가 없거나 부주의 하여서 예수님을 찾는자들을 계속 밖으로 내몬다.*

2. **SO--** *이 삭개오는 키는 작았으나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다. 그는 부자였고 세금 징수자들의 장이었으나 예수님을 보고싶은 마음이 무척 강하여, 쉽게 접근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다.*

   SA--*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할 때, 우리의 자존심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그분을 찾고 따르기에 필요한 것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3. **SO--***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중앞에서 길을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감으로 자신의 명예가 추락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을 중단 시키지 못했다.*

   SA—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 지거나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아는 일을 멀리하여서는 않된다. 만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들 눈에 바보스럽게 보이거나, 우리들의 사회적인 직위 이하의 일이라도 어찌하든 그 일을 해야한다.*

4. **SO--** *예수께서 대중들에게 밀집하게 둘러쌓여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까이 있는 아무도 부르시지 않으셨다. 대신 예수께서는 자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나무위에 있는 이상한 그 한사람을 선택하셨다!*

   SA—*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를 갖고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있는듯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시고 오직 한 사람만 선택하셨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관심이 있어보이지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다. 예수께서 순수한 한 사람을 불러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찾고있는지 아신다.*

5. **SO-**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준 것이다.

SA—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시는 속성을 본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이름도 아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찾는자에게 자비하신 분이라는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기를 원한다. 그분에게 우리가 이름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위로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싶어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더욱 큰 감격이었을까!*

6. **SO--**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자청하여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대 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지나치게 용감한 행동이다. 예수께서는 마치 미래를 아시는 것처럼, 무슨일이 일어 "나야만(must)" 하는 지를 아는 지식과 확신을 보이셨다.*

SA— *예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어떤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신다는 것은 놀랍고 격려가 된다.*

7. SO-- *어떤 사람이 위를 바라볼 때, 특히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가 위를 바라 볼때 따르는 자들의 눈도 지도자를 따라 위를 올려 볼것이다. 그것은 삭개오를 본 것은 예수님 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았음을 뜻한다. 삭개오는 "발견되었을 때" 두려워 하거나 부꺼러워 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는 기쁨을 보였다.*

SA— *불신자들이나 불성실한 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것은 어리석고 지성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드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않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때 우리는 그분에게 기쁘게 응답해야한다.*

8. **SO--** *예수께서는 그분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가야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호출에 망서림 없이 명확하게 응답한 것은 재미있다. 그는 서둘렀다. 실제로는, 그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SA— *어느때든지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응답 해야하며 그분의 지시데로 응답해야한다. 재빠른 순종은 믿음을 보여준다. 연기되는 순종는 불순종과 같을 수도 있다.*

9. **SO--** *군중들은 삭개오를 대적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접대를 받다니 (혹은 손님이 되기 위해 가다니; 영어성경;역자주) "라고 불평하였다. "되기 위해 갔다 (gone to be)" 는 뜻은 예수님께서 막 금방 떠나고 있다거나 혹은 떠나 버렸거나 한 상태를 가르킨다.*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서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예수께서 군중들의 비난을 알고 계셨든것으로 이해한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시지 않고 삭개오의 집을 향하신 걸음을 계속하셨다.

SA— *우리는 시작은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중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그들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비판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10. **SO--** *"죄인의 집에 손님이 되기 위해 가버린 "예수님께 대한 군중들의 불평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SA—*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을 나타낸다. 자신들은 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처럼 교만하지 말자.*

11. **SO--***군중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 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다. 군중들은 예수님과 너무가까워서 삭게오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조차 없었다. 비록 그들의 비난이 예수님께서 누구랑 식사를 하는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같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 가정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옳바른 선택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군중들은 예수께서 방문하시기로 한 선택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SA—*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것은 아니다. 기독교인 처럼 행동하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행동하시거나 말씀하신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12. **SO**-- *이 판단적인 군중은 그들데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한것같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그리며 불평한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

SA— *군중들의 행동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은 그들끼리의 수근거림을 들을 수 없거나, 어둠속에서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다.*

13. **SO--** *부자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SA—*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갖어온다.*

14 **SO--** *삭개오는 자신이 만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면, 그 취한 것의 네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했다. 삭개오는 그가 "만일 법정에 기소되어 유죄라는 판결이 나면" 네배를 깊겟다고 말하지 않았다. 삭개오는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돈을 주고 있었다고 말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중들의 의견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의 절반을 이미 주었다면, 남 몰래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속여 빼앗은 모든사람들의 것을 네배로 이미 갚았다면 삭개오는 군중들에게 의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야기의 어떤 장면에서 알 수 있는것은,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 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이다. 예수께서는 구원이 그날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삭개오가 매우 관대함을 보인것을 본다.

SA—*삭개오는 그의 탐욕의 길에서 변화를 받은 부자이며 세리장이었다. 그는 정직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다. 세금징수관들의 우두머리였든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잘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훔친돈의 네배를 갚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들의 죄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을 보이고 자원하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잘못을 관대함으로 바로고쳐야 한다.

15. **SO--** *처음에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영적인 영접을 돈으로사려고 시도 했든 것 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믿었다는것을 알 수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오직 한 사람이며,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오직 한 사람이다.*

SA—*구원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온다.*

16. **SO--**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직접 삭개오에게 "오늘 이집에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말씀 하셨다.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 곁에 다른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상대를 바꾸고 계시는것을 알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상대들로부터 삭개오를 방어하고계셨다!*

SA— *우리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사역을 하셨고, 삭개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한편 , 그 동안에 비판적인 군중들은 계속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계속 이 자신의 의로움에 가득차 있는 군중들을 전도하시려 하고계신다. 군중들이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서 자신들의 필요를 알고 삭개오가 그분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셨다. 오늘 날에도 예수를 따를 때 변화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군중이 있다.*

17. **SO--**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오신 목적은 "잃은자를 찾아 구원하는것" 이라는 말씀은 확실히 삭개오를 존중하셨고 또한 군중을 비평하신 요약된 말씀인듯하다.*

SA—*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잃어진 자이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18**.** **SO--**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있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보는, 한 의미심장한 지도자 예수를 본다.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다. 예수는 모든사람들의 의견을 항거하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다. 그분은 군중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무슨말을 하는지 아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얻었다고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이셨다. 이 모든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안다.*

SA—*오늘날에도 예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군중과 삭개오와 어떻게 상오 관계를 맺으셨는지 그 방법을 볼 수 있다.*

19. **SO--***이야기의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있었다. 그런후 이야기는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는 이야기로 바뀐다.*

SA--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있었음을 보지만 예수님도 역시 삭개오를 찾고 계셨음을 보았다. 둘다 사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도 우리를 찾으신 다는것을 안다는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영적 적용 질문 만들기:

마지막으로, 영적 적용으로 인도할 질문들을 보자. 당신이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관찰과 영적인 적용을 다시 나열하였다. 영적인 적용질문은 "SAQ"라는 약자 아래에 적어놓았다. 주의: 당신이 배운 마지막 두기지 질문: "이런 일이 당신에게나 혹은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 그리고 "이 이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당신이 있을 때 이 이야기의 어떤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겟습니까? " 이 두가지 질문들은 이야기 하는자가 적합하다고 느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SO***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 보이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었다.*

   SA*—예수님의 추종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은 종종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주기 때문에 (혹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치가 없거나 부주의 하여서 예수님을 찾는자들을 계속 밖으로 내몬다.*

   SAQ—
   - 오늘 날에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길을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까?
   - 이런 일이 어떠한 모습들로 일어 날 수 있습니까?

2. **SO--** *이 삭개오는 키는 작았으나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다. 그는 부자였고 세금 징수자들의 장이었으나 예수님을 보고싶은 마음이 무척 강하여, 쉽게 접근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다.*

   SA--*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할 때, 우리의 자존심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그분을 찾고 따르기에 필요한 것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SAQ—
   - 오늘 날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위하여 자신들의 프라이드를 곁으로 밀쳐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까?
   - 언제가 그런 때일까요?
   - 당신이나 혹은 당신이 아는 사람가운데 이런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들려 주실 수 있겠는지요?

3. **SO--***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중앞에서 길을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감으로 자신의 명예가 추락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져 하는 삭개오를 멈추게 하지 못하였다.*

   SA—*우리들은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말로 교만해 지거나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아는 일을 멀리하여서는 않된다. 만일 우리가 해야할 일이 다른 사람들 눈에 바보스럽게 보이거나, 우리들의 사회적인 직위 이하의 일이라도 어찌하든 그*

일을 해야한다.

SAQ—

- 오늘 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사람들을 비웃는 때가 있습니까?
- 비웃음을 당할 때의 기분은 어떠합니까?
- 당신이나 혹은 당신이 아는 분 중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한적이 있습니끼?
- 혹은 예수님을 좀더 알기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어떤 일을 경험했든 적이 있습니까?
- 만일 할 수 있으면 비웃음을 피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 우리가 옳바른 결정을 하는데 있어 이 이야기에 있는 삭개오의 어떤 모습이 우리 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4. ***SO—****우리는 예수께서 대중들이 밀집하게 둘러쌓고 있는 한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까이 있는 아무도 부르시지 않으셨다. 대신 예수께서는 자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나무위에 있는 이상한 그 한사람을 선택하셨다!*

SA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를 갖고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있는듯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시고 오직 한 사람만 선택하셨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다. 예수께서 순수한 한 사람을 불러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찾고있는지를 아신다.*

SAQ—

- 현재 세게 인구의 몇 퍼센트가 어떤 종교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까?
-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에서 보는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의 종교인들 가운데는 그저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고있는 얼마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있는 얼마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참으로 찾는자로 여겨진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오늘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5. **SO-**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준 것이다.*

SA—*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시는 속성을 본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이름도 아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찾는자에게 자비하신 분이라는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기를 원한다. 그분에게 우리가 이름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위로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싶어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더욱 큰 감격이었을까!*

SAQ—

-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중에서 오늘 당신에게 희망이 되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어느것이 최선의 것이라 생각합니까? 개인적이지 못한 신을 갖는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당신을 아는 신을 갖는것입니까?
- 당신을 개인적으로 아는 신을 갖는것에 대하여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쁩니까?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신적이 있습니까?

6. SO--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자청하여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대 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지나치게 용감한 행동이다. 예수께서는 마치 미래를 아는것처럼, 무슨일이 일어 "나야만(must)" 하는 지를 아는 지식과 확신을 보이셨다.*

SA—*예수께서는 그분을 찾는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어떤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신다는 것은 놀랍고 격려가 된다.*

SAQ—

- 예수께서는 당신의 방문이 확실히 일어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목적있는 방문과 상황의 통솔은 오늘의 당신께 의미가 있습니가?
- 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삭게오집에 자청하여 가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7. SO-- *어떤 사람이 위를 바라볼 때, 특히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가 위를 바라 볼때 따르는 자들의 눈도 지도자를 따라 위를 올려볼것이다. 그것은 삭개오를 본 것은 예수님 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았음을 뜻한다. 삭개오는 "발견되었을 때" 두려워 하거나 부꺼러워 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는 기븜을 보였다.*

SA—*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불성실한 신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것이 어리석고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하드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아니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때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반응해야한다.*

SAQ—

- 예수를 알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이 가족이나, 사회집단이나 혹은 문화적으로 붙들려있는 주위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 그런 일을 본적이 있는지요?
-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나 중요한 어떤 것으로 부터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삭개오의 행동에서 무엇을 보며 그가 선택한 결과에서 우리는 어떤 격려를 받는가요?
-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선택의 여지를 우리는 갖고있는지요?

8. SO-- *예수께서는 그분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가야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호출에 망서림 없이 명확하게 응답한 것은 재미있다. 그는 서둘렀다. 실제로는, 그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SA—*어느때든지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응답해야하며 그분의 지시대로 응답해야한다. 재빠른 순종은 믿음을 보여준다. 연기되는 순종는 불순종과 같을 수도 있다.*

SAQ—

-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군중과 삭개오에 관하여 개인적인 것들을 알고계셨음을 보며, 그리고 그분은 그중에서 한 사람만 부르셨다는 것을 봅니다. . 오늘 만일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 만일 어느 때든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 우리는 삭개오가 재빨리 그리고 기쁘게 응답하였음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할 선택을 하겠습니까? "순종 을 미루는 것" 은 어떠한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9. **SO--** *군중들은 삭개오를 대적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접대를 받다니 (혹은 손님이 되기 위해 가다니; 영어성경;역자주) "라고 불평하였다. "되기 위해 갔다 (gone to be)" 는 뜻은 예수님께서 막 금방 떠나고 있다거나 혹은 떠나 버렸거나 한 상태를 가르킨다.*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서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비난을 알고계셨든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시지 않고 삭개오의 집으로 향하신 걸음을 계속하셨다.

SA—*우리는 시작은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그들이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비판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SAQ—

- 군중들은 예수께 대하여 뒤에서 숙덕공론을 했고 삭개오를 비판했습니다.
- 오늘 날에도, 우월감을 갖고있는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멸시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납니까?
-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0. **SO--***"죄인의 집에 손님이 되기 위해 가버린 "예수님께 대한 군중들의 불평은,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SA—*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을 나타낸다. 자신들은 죄를 갖고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처럼 교만하지 말자.*

SAQ—

- 오늘 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 자신들은 완전하며 죄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참다운 추종자가 가끔 갖곤 하는 것인지 아니면 --- 마땅히 갖어야만 하는 어떤 것인지요?

11. **SO--***군중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 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다. 군중들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서 삭게오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조차 없었다. 비록 그들의 비난이 예수님께서 누구랑 식사를 하는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같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 가정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옳바른 선택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군중들은 예수께서 방문하시기로 한 선택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SA—*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것은 아니다. 기독교인 처럼 행동하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행동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SAQ--

- 군중들이 예수를 존경하는것 처럼 행동했으나, 예수께서 누구랑 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비판함으로 그들의 참다운 마음을 보여준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기억하는지요?
-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추종자들 처럼 행동하지만, 실지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요 ?

12. **SO**-- *이 비판단적인 군중은 그들데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예수님께 정면으로 질문을 한것같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그리며 불평한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

SA— *군중들의 행동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은 그들끼리의 수근거림을 들을 수 없거나, 어둠속에서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다.*

SAQ—

-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를 알고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 오늘날에도,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아무도 모르며, 하나님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어둠속에서 비밀히 말하거나 혹은 범죄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지요?
- 하나님께서 모든것을 알고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사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13. **SO--** *부자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SA—*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갖어온다.*

SAQ-

- 오늘날, 예수님과의 참다운 만남은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본보기들이 있겠습니까?

14**. SO--** *삭개오는 자신이 만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면, 그 취한 것의 네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했다. 삭개오는 그가 "만일*

법정에 기소되어 유죄라는 판결이 나면" 네배를 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삭개오는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돈을 주고 있었다고 말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중들의 의견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의 절반을 이미 주었다면, 남 몰래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속여 빼앗은 모든사람들의 것을 네배로 이미 갚았다면 삭개오는 군중들에게 의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야기의 어떤 장면에서 알 수 있는것은,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 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이다. 예수께서는 구원이 그날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삭개오가 매우 관대함을 보인것을 본다.

SA—*삭개오는 그의 탐욕의 길에서 변화를 받은 부자이며 세리장이었다. 그는 정직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다. 세금징수관들의 우두머리였든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잘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훔친돈의 네배를 갚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들의 죄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을 보이고 자원하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잘못을 관대함으로 바로고쳐야 한다.*

SAQ—

- 삭개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믿음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 삶이 급변했든 사람들을 본적이 있습니까?
- 본적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예수께 두었을 때 그들의 행동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보상을 한 사람들의 내면적인 감정과 태도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된 후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보상을 한 어떤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 **SO--** *처음에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접을 돈으로 사려고 시도했든 것 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믿었다는것을 알 수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오직 한 사람이며,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오직 한 사람이다.*

SA—*구원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온다.*

SAQ—

- 우리는 삭개오가 돈으로 예수님의 호의를 사려고 시도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인상적인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위해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는지요?
- 당신은 그 방법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한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까?
-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오직 삭개오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든 것을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타인들에 대한 심정의 변화에 의한 순수한 심정의 전환을 보였

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삭개오의 변화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다는것을 인정하셨습니다.

- 오늘 날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가요?
- 이 이야기에 기초하여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

16. **SO--**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직접 삭개오에게 "오늘 이집에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 곁에 다른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상대를 바꾸고 계시는것을 알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상대들로부터 삭개오를 방어하고계셨다!*

SA— *우리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사역을 하셨고, 삭개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한편, 그 동안에 비판적인 군중들은 계속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계속 이 자신의 의로움에 가득차 있는 군중들을 전도하시려 하고계신다; 군중들이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서 자신들의 필요를 알고 삭개오가 그분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셨다. 오늘 날에도 예수를 따를 때 변화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기의로 가득찬 군중들이 있다.*

SAQ—

- 삭개오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비록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예수께서는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는 군중들로부터 이 인기없는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날에도 삶의 방법이나 혹은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죄인들이라고 멸시를 받는지요? 특별히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받는 사람들?
- 이런일이 일어나는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 만일 본 일이 있다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영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것을 본일이 있습니까?
- 예수께서는 여전히 군중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점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뜻할 수 있는지요?

17. ***SO-***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오신 목적은 "잃은자를 찾아 구원하는것" 이라는 말씀은 확실히 삭개오를 존중하셨고 또한 군중을 비평하신 요약된 말씀인듯하다.*

SA—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잃어진 자이며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SAQ—

-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짧은 마지막 말씀속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까?
- 이 세상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가 잃어버린바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붙잡았는지요?
-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요?

18. SO--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미움을 받고있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보는, 한 의미심장한 지도자 예수를 본다.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다. 예수는 모든사람들의 의견을 항거하고 그에게 가셨다. 그분은 군중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무슨말을 하는지 아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얻었다고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이셨다. 이 모든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안다.*

SA—*오늘날에도 예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군중과 삭개오와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으셨는지 그 방법을 볼 수 있다.*

SAQ—

- 오늘날에도, 자신들과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알기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이야기의 어떤 것이 당신이나 혹은 다른사람들의 질문들에 답이 되겠습니까?

19. **SO--** *이야기의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있었다. 그런후 이야기는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는이야기로 변화된다. .*

SA--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있었음을 보지만 예수님도 역시 삭개오를 찾고계셨음을 보았다. 둘다 사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도 우리를 찾으신 다는것을 안다는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SAQ—

-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찾고계시는것에 대하여 어떤 것을 보십니까?
- 예수께서 사람을 찾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까? 이것은 모순이 되는지요?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쪽이 모두 찾고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늘날 이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록 C: 사용자들이 끼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들
지도와 증가 (Mentoring and Multiplcation)

"나는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5 년전 부터 목사와 전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1993 년에 주님께로 왔고 주님을 섬기기 원했다. 그래서 어느 성경대학에라도 들어가서 성경지식을 갖고져 했다. 그러나 나는 글을 몰랐기 때문에 학문적인 성경대학에서 성경 훈련을 받을 수 없었고 나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도 이해 할 수 없었는데, 그 말씀 선포는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사역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The God Story Project) 를 갖어다 주셨고 니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나는 155 이야기를 **오직 그 이야기** (STS) 방법으로 배웠고, 나는 지금 글을 아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 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

와이. 바부 (Y. Babu) - 전도자/목사 MMBC- 카나타카, 인디아

"어느 문화권이나, 대부분의 어떤 연령층이거나, 기독교인 이거나 비기독교인 이거나, 이 모두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보화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발견하려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라.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그 이야기** 성경공부 그룹에서 보통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스냅사진을 보게될것이다.

"우리는 선교지와, 장년부 가정 성경반과, 어린이부와 청년부에 **오직 그 이야기** 를 적용했다. 이 **오직 그 이야기** 개념은 나의 설교에도 영향을 끼쳤다. "

크리스 죤슨 (Chris Johnson) 목사- 갈보리 체플 ,미국

"오직 그 이야기는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대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지구촌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위해 한가지 방법 (주해 설교)을 수 백년 동안 고수해 왔으나, 우리는 어떤 한계들이 있음을 보아왔다.

"본서를 통하여 **오직 그 이야기**를 배운 이후에**, 나는** 감히, 여기에 제자 삼기에 보다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오직 그 이야기**는 나의 세계관을 변화시켰고 보다더 위대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열게했다. 비록 문맹자 비율이 매우 높은 나의 나라 수단의 남쪽에서 **오직 그 이야기**가 매우 요긴하지만, 나처럼 배운사람에게서도 그 영향을 본다.

"나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이 자원을 강하게 추천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 (TGSP :오직 그 이야기의 산실역활을 했든 프로프램: 역자주)가 이 훈련을 더욱 멀리 더욱 넓게 보급하기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하기를 기도한다. 이 책은 당신이 자격있는 강사들에게서 훈련을 받기 원 할 때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출발점이다. "

다니엘 차가이 가크 (Daniel Chagai Gak) 목사-수단 성공회

"나는 풀러 신학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철학 박사 (Ph.D)를 획득한 학자이며 선교 신학자로서, 수년간 고 학력자들 가운데서 일해왔다. 그러나 일찍이 나는 현대의 서구 교육 제도가 교수 방법에 있어 얼마나 나를 '좌측 두뇌' (분석과 명제적인 강의)에 묶어 두는지 충분히 의식해 왔다.

"도로시 여사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녀의 인도로 성장하고 있는 **오직 그 이야기**의 역동설적인 접근 방법 (the approach of dynamism) 의 운동을 통하여, 나는 교사들의 선생이신 예수께서는 항상 이야기를 사용하여 가르치셨고 그분 시대에 아주 높은 교육수준의 유대 율법학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나는 다시 한번더 일깨움을 받았다. **오직 그 이야기**의 방법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하는 나의 사역이 변화되었다.

"나는 정신적으로 잘 닳아 없어지는 습관들로 부터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부상될 참다운 변화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성경을 삶속에 갖어와서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오직 그 이야기**는 서방국가가 아닌 말로 배우는 세계의 교회들의 성장 뿐 아니라 서방세계의 복고적인 이야기식의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모든 전문적인 교사들은 이야기와 성경이야기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소명을 심도있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될 것이다. 그 목표를 성취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나는 **오직 그 이야기를** 강하게 추천한다. "

빌 브죠라커 (Bill Bjoraker) PhD- 유대 기독교 연구회 교수
윌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 미국

"기독교가 다양한 사회 정의의 기회를 잡기위해 쫓아가는 동안 세계는 참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채 남아있다. 그 굶주림과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 말씀---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오직 그 이야기** (STS)의 깊은 제자도의 접근 방식은 그 특출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갖어다 준다.

"우리는 **오직 그이야기**를 손자들의 경건 시간을 인도하는데에 사용한다. 우리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오직 그 이야기** 훈련을 받아서 이제 청소년 소그룹들을 가르친다. 우리들의 선교 목사와 선교 위원회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오직 그 이야기** 프로그램들과 구두 성경학교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재정을 방향전환 시키는 데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

"이 귀납적인 성경공부 방법을 전도와 제자 양육에 사용 할 기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복지 국가가 말하는 것과 또 여러 사람들이 중심이되는 이단들의 영속성으로 인한 거짓 구세주들과 거짓 복음들 때문에 절망이 가득한 미국의 도심 속으로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고있다. 참된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는 주님의 교육적인 접근 방법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깨어진 문화에 구속과 회복을 갖어오는데 사용하시리라 믿는, **오직 그 이야기**와 함께하는 한 "페케지"를 우리는 갖고있다. "

마크 샌즈 (Mark Sands) – 교회 건립 기초 대표, 지구촌

다음의 첫 세명의 간증문은 하나님의 이야기 프로젝트(The God Story Project) 의 집행위원에 의하여 깊은 지도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왔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훈련했다—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엠부 (Embu)에 있는 한 비셥이 일어서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회들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 이유는 성경적인 교회의 아버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당신을 훈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주기를 바란다. '부라무엘 (Bramuel) 로 하여금 비셥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힘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브라무엘 무시아 (Bramuel Musya)
직선으로 가는 자원들 (Straight Path Resources) 회장, 케냐

오직 그 이야기방법은 이전 보다 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하도록 도왔고, 영적인 지도자들 배출을 증가시켰고, 그들을 교회에 머물게하여 선교지로 보내는 일을 또한 배가시키고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든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완전한 영적 양식이다.

마르크 무니얍바 박사 (Dr. Mark Muniyappa)
인디아 총 책임자 /TGSP –인디아

당신들 모두에게 무슨 말로 감사를 표해야 할지? 나는 주님께 무척감사를 드리며 **오직 그 이야기** 라는 이 연장을 인해 감사한다. 이것은 나의 이십년간의 모든 사역중에서 사용해 왔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이다. **오직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보다 깊게 넓게 알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또한 조직속에서의 나의 삶에 많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이것에서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전에 여러 선택들을 찾아보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나의 팀들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 끼칠 영향을 멀리까지 보게했다.

라메시 사프코타 (Ramesh Sapkota)-왕국 투자 (Kingdom Investment) 회장, 네팔
인신 매매 항거 조직 (Organization fighting against Human Trafficking)

무엇 보다 먼저 나는 모든 영광과 진정한 감사를 우리의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원하며, 나의 기도의 동역자인 장로형제인 라메시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리스도안에서 새신자 였으며 나의 사역은 이제 태어난 신생아 같았다. 나는 계속하여 내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했다. 라메시는 내게 **오직 그 이야기**훈련을 시켰다. 이것은 시작이였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사람을 몇명 보지못했고 우리는 하나의 교제권만 있었는데 교제는 아주 미약했다. 라메시는 나의 교회에서 **오직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를 통하여 아주 짧은 시간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덟교회를 심으셨음을 보았고 올해 우리는 새로운 두 교회를 심을 계획을 하고있다. 나는 교회 증가를 위해 오직 그 이야기방법을 사용했고 이로 인하여 오직 그 이야기 훈련에 놀랍게 초대되었으며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오직 그 이야기** 방법을 더욱 잘 사용하고있는 나의 딸 교회 지도자도 역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라메시 형님, 나는 오직 나비의 몸일 뿐이었는데, 이제 당신은 내가 온전한 나비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 내 사역의 축복을 위하여 **오직 그 이야기**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크리시나 기미르 (Ps. Krishna P.Ghimire) - 네팔 국내교회 펠로십 부 총무.

부록 D: 어떤 지도자의 발견

폐쇄된 나라의 미 전도족들의 선교사

내가 처음 구두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린이들에게나 하는 성경이야기로는 –말씀에 뿌리를 두는 –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이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선교사들 수련회때 미국에 머물면서 한 부부와 함께 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말로써 성경을 가르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온갖 질문들을 그들에게 퍼부었고 그들이 그 주말에 훈련하는 과정을 비데오로 촬영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여행도 하였다.

나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기초를 세우도록 하는일에 헌신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들을 익숙히 알고있는 것으로 만은 아니되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납적으로 주해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것에 미치지 못하는 어느것이든지 신자들을 혼합주의로 들어가게 하여 모든 문제들을 초래한다.

귀납적인 연구와 책임있는 주해에 대한 나의 절대적 헌신은 해가 거듭할 수록 오직 더해만 갔다. 구두로 성경을 가르치는 아이디어와 함께 그덫은 줄어들지 않고 오직 증가만 되었다.

말로서 귀납적이며 주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가능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가?

첫째로 왜 그것이 필요한가? 말로 하는 성경공부의 기술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증언을 하는 씨디 (CDs) 들과 비데오 (Video) 들을 가지고 있는데 구두로 하는 성경공부의 필요성을 내가 말 할 수 있는것 보다 훨씬 잘 하고있다.

내가 결정적으로 돌아선 계기는 2004 년에 로잔 (Lausanne) 에서 있었든 세계 전도 모임들을 위한 위원회에서 접한 보고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보고서는 세계에서 말로써 배우는 인구비례를 말했는데 충격적인 비례였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글을 아는 인구가 높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보고는 문맹자가 많은 곳에 더욱 정밀했다.

십칠년 동안 우리팀은 선교지에서 일해오고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하여 매우 구두적인 접근을 하고있다 – 우리는 문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 우리의 팀원들은 배우고 외워서 구두로 복음을 제시한다.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목격했다;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나, 우리가 양육을 할 때는, 즉각 매우 문자적인 접근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마련해 주었고 성경을 귀납적으로 공부하기위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만났다. 우리는 이 양육방법을 사용하면서 충격을 받고있었다. 새로운 신자들은 시들어 갔다. 그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았고 냉냉해져갔고 신앙이 없는 자들이 되어갔다.

우리가 들어간 한 마을에서는 약 20 명이 그리스도에게 순수한 헌신을 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개인적인 시간도 함께 보내면서,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어떻게 귀납적으로 읽을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성경 읽기를 강조했다.

오늘날, 그들은 아무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는"자들이 되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자들이 원하였으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도 참으로 취한적이 없는자들 처럼되었다. 말씀은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다. 성경 읽기와 공부는 전혀 그들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우기나----그들은 결코 성경을 소유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도 그것을 나누지 않았다. 우리가 사역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역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불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하겠는가?

성경을 말로 전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읽도록 시도하는 방법데로 진리를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람들이 이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무척 나누고져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배가의 사역" 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질문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귀납적으로 그리고 주해적으로 구두형식으로 가르치는것이 가능한가?"

많은 기관들이 구두로 성경 배우기를 홍보하고 가르치는 나름데로의 부서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국제 구두 네트워 (International Orality Network/ION) 의 회원들이다. 그리고 그중 다수가 말로 성경을 가르치는것을 전문화 하고있다. 나는 몇가지 자료들을 보고 구입하고 비디오 등등을 보았다.

나는 한 가정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들이게 물었다. 이 모든 기관들 중에서 성경을 구두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가장 잘 가르치는 기관이 어떤기관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 STS" 혹은 "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 라고 불리우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웹사이트를 보고 재료들을 구입하여 보았다 그러고는 다른 것들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 관하여 내가 가장 좋아했든 것은 그들은 실지로 말로써 귀납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주해적인 구두성경공부에 근접해 있었다. 내가 찾고있든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스카이프를 통하여 나는 그들과 통화하기 시작했다.

구월 초순에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에서 강사 두명을 초청했다. 그두 사람은 닷세동안 훈련을 인도했다. 첫 이틀 동안은 훈련할 사람들(우리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 삼일동안은 금방 훈련 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팀을 강사들의 도움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일은 우리의 선교사역에 매우 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는데, 우리들이 이제막 시작한 선교사역에는 이 방법을 접목했다.

우리는 이방법을 즉각 시작했고 이 방법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나는 참으로 기뻤다. 이 말은 우리들이 기록된 말씀을 귀납적이며 주해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것을 멈췄다는 말이 아니다. 아 그너머, 이 방법은 아직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구두로 하고있는 것은 1) 우리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에 아주 잘 맞아서 지금하는 공부를 대체하지 않으며, 2).글을 읽을 수 없거나 글을 읽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3),평신도들도 잘 할 수 있으며 (우리는 평신도들을 동원하고있다), 4) 우리들이 직접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넘어있는 사람들과 훨씬 쉽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퍼지게 되며, 5) 아마도 폐쇄된 나라에 가장 안전하게 말씀이 다량으로 생산 될 수

있으며 6) **어떤 다른 외부의 기금이나**, **장비나 다른 자료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주위에 있는 가장 재 생산적인 선교의 전략이다.

내가 말한데로, 나는 여러 기관의 말로 하는 성경공부의 여러 종류들을 접하여 보았다. 그러나 많은 종류들이 참으로 성경을 구두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그 이야기**는 성경을 정확하게 말할 것을 강조 한다---말씀의 한 부분을 택하여 엉뚱한 뜻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말로 하도록 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두로 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는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정경으로써 이것은 원천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하는가를 가르쳐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구두로 된 말씀을 갖는다. 우리가 성경을 구두로 가르칠 때,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구두로 된 말씀이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이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대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들었다. 바울이 그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것을 큰 소리로 읽혀지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내가 선택한 씨디 하나에서 받은 질문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일세기에 살았든 사람들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겠는가---"하루에 삼천명이 그들의 수에 더해졌"을 때? 약 5% 였다는 답을 들었다.

내가 **오직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한가지 이유는 성경적인 정확성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도 또한 귀납적으로 배우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방 들은 이야기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귀납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관찰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고, 질문으로 사람들이 정확한 해석을 하도록 도운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도록 한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연장이며 아주 잘 발전되었고 숙련된 교수방법이다.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부터 영원까지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직 그 이야기 (STS)**의 "부모"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 의 한 열매로써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를 발전시켰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는 성경 신 구약의 주된 이야기를 80 분 길이의 파노라마로 엮었다. 이작품은 음향기기로나 혹은 비데오 형태로 만들어져있다. 2011 년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300 언어로 되어있었다. (2015 년 5 월 현재 330 개 이상으로 되어있다: 역자 주)

가장 인기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료는 태양열로 작동하는 음향기기 (solar-powered audio-player) 용이다.

> 수단에 살고있는 한 소년이 자신의 학교 한 급우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상대 급우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학교로 왔다. 그 학급 **담임선생님**은 그 지역 언어로 된 *하나님의 이야기* 가 담긴 태양열 기기를 막 구입해 놓고 있었다. 이 운명적인 날에 그 선생님은 학급 학생들을 위하여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켜 주었다.
>
> 이 성난 소년이 성경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어떤일이 발생했다. 그는 칼을 꺼내어----선생님께 주면서 자신이 하려고 했든일을 선생님께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을 움직이셨다. 그날 그 소년은 하나님께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오직 그 이야기 (STS)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를 태양열 기기나 (solar players) 혹은 씨디 (CDs), 그리고 엠피쓰리(MP3s)등에 담아 사용한다. 몇백개의 원본을 재 상연 하면서 만든 비데오 작품은 성경 이야기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직접 보았거나 혹은 텔레비젼으로 본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신앙으로 응답해 왔다. 수천개의 사역과 많은 교단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용하고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한 이야기군은 경청자들이 성경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말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두로 배우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이야기"를 들을 때야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점이다. 창조로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 오실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참된이해의 기초가 놓여져있다. 우리는 전도와 제자 양육 모두에 *하나님의 이야기* 의 영향과 능력을 본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플립 챠트 (flip chart; 비데오로 부터 나오는 150 개의 그림판) 로 만든 태양열 기구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용하면 마을의 전도자들은 움직이는 영화관이된다! 토론 안내, 책 형태로 되어있는 각본 그리고 라디오 대본 같은 도구들을 더하면 사용자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넓은 영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www.Gods-Story.org | Info@Gods-Story.org

세계적인 연결 (World Contacts)

아프리카: EAfrica@Gods-Story.org

에티오피아: Ethiopia@SimplyTheStory.org

서 아프리카 “불어와 영어”: STSWestAfrica@SimplyTheStory.org

서 아프리카 “불어와 영어”: GSWestAfrica@SimplyTheStory.org

유럽: BT@SimplyTheStory.org

인도: IndiaDirector@Gods-Story.org

네팔: Nepal@SimplyTheStory.org

동남아시아: Thailand@SimplyTheStory.org

“서반아어”: LatinAmerica@SimplyTheStory.org

오세아니아: Oceania@SimplyTheStory.org

필리핀: eb@SimplyTheStory.org

미국: info@SimplyTheStory.org

저자 도로시 밀러 (Dorothy A. Miller) 여사의 약력 (1940.12 – 2014.12)

밀러 여사는 소천 직전까지 하나님 이야기 프로젝트 (The God's Story Project) 의 실행 위원장으로 봉사했다. 밀러 여사는 또 **오직 그 이야기**의 모체격인,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에서 영원까지 (*God's Story: From Creation to Eternity , 현재까지 약 325 개어 넘게 번역되었다*) 의 각본자로써 성경 이야기 사역 도구들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사역을 주도해왔다. 구두형식의 귀납적인 성경공부의 도구인 오직 그 이야기 (*Simply The Story*) 는 미국을 포함하여 106 개국에서 사용되고있다. 그녀는 오직 그 이야기 의 워커샵,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한 훈련 도구들, 성경이야기들과 부분들의 녹화, 그리고 10 개국이 넘는 나라에 구두로 하는 성경 학교 (Oral Bible Schools) 를 심는 사역등 , 오직 그 이야기의 계속되는 확장사역을 감독해 왔다.

도로디는 남편과 함께, 미국 승마 팀 상 (US Equestrian Team status) 을 수여한 기수들을 배출하기도 한 미국 서부해안 지역 에서 가장 큰 승마학교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사업체를 설립하고 ,소유하고 운영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사업체들 속에 고객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성경공부와 전도할 사역의 기회를 항상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업적인 경험들과 젊은 신자들을 지도하는 일들은 그녀로 하여금 여러가지 책들을 저술하고,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기사들과 영화각본들을 쓰도록 인도했으며 세계적인 수양회들의 연사로 또는 교사로 초대 받게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그녀가 수행한 선교사역의 지도자 역활을 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도왔다. 밀러부부는 54 년간의 결혼생활을 했고 결혼한 두 자녀를 두었으며 두 자녀 모두, 새로운 지파들의 선교들 (New Tribes Missions) 을 포함한 선교적인 배경을 갖고있다.

역자, 정양숙 (Mary Yangsook Ahn) 약력 (1946.5 -)

경남진주 출생. 경희대 영문과 졸업. 총신대연구원이수(사당동). 침신대 대학원 졸업 (대전,MA).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졸업 (미국 캔터키, M.Div). Illinois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박사과정이수. 침례신학대학및수도신학교 강사 역임. 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일리노이주, 북침례신학 대학원 임상목회교육 강사 역임. 시카고 그리스도 병원 및 스웨디쉬 병원 원목 역임. 현재 아가페 침례교회 교육목사 및 이야기 하는 집 대표.

저서: 여성 선교를 위한 기독교적인 여성 이해 연구.

역서: 스펄전의 셜교에 나타난 센스어필. 바울의 설료에 나타난 청중에의 적응. 4 월의 사랑. 집사의 아내. 신약성서의 여성관. 침례교 여성사. 미국 남침례교 현대사. 새신자를 위한 기독교의 기본진리. 그외 침례교 주일학교 교재 다수.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에 위치한 아가페 침례교회 담임 안영배목사 사이에 장성한 삼남매와, 세명의 손자손녀를 두고 있다.